

定本 退溪全書

定本 退溪全書 17

印 刷: 2025年 4月 20日

發 行: 2025年 4月 25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朴炳元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8-89-85009-93-5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定本 退溪全書

17

梅花詩帖

退陶先生自省錄

聖學十圖

古鏡重磨方

退溪學研究院 院長：宋載邵

行政 支援：李載甲，金銀永

研究責任者：李光虎

共同研究員：金彥鍾，李相夏，文錫胤

研究專擔人力：柳浩珍，金太年，姜志喜，尹相洙

研究補助員：尹璿香

梅花詩帖 校勘·標點：柳浩珍

校閱：金彥鍾

退陶先生自省錄·聖學十圖 校勘：文錫胤

標點：李相夏

校閱：李光虎

古鏡重磨方 校勘 및 標點：尹璿香

校閱：李光虎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8-CDM-1230002)

* 이 책 중 梅花詩帖·退陶先生自省錄·聖學十圖는 退溪學研究院의 자체 특별 예산에 의해 편성됨.

梅花詩帖

解題

退溪는 매화를 몹시 사랑하여 평생 75題 107首의 梅花詩를 창작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를 직접 선별하여 엮은 책이 《梅花詩帖》이다. 여기에는 퇴계 나이 42세(1542년)부터 타계한 70세(1570년)까지 28년 동안 창작한 梅花詩 62題 91首가 실려 있다. 《梅花詩帖》은 작품들이 창작 시기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특히 60세에서 졸년에 이르는 시기의 작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 퇴계 만년의 정신세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퇴계가 60대에 창작한 梅花詩의 특성은 늦은 봄에 핀 매화를 형상화하였다는 데 있다. 그는 이러한 매화를 통하여 만년에 은거한 자신, 聖賢의 遺風이 사라진 후대에 태어난 자신을 비유하였다. 또 학문과 수양을 통해 도달하는 고결한 인격과 世人들을 일깨울 수 있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만년의 매화시는 퇴계 만년의 은거가 지닌 정신적 의미를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매화시들은 蘇軾과 朱熹의 梅花詩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개성적인 이미지를 통해 퇴계의 독자적인 의식을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전하는 《梅花詩帖》은 퇴계가 선별하여 친필로 써놓은 《梅花詩帖》을 모각한 판본으로, 목판 원판은 安東 陶山書院에 보관되어 있다. 결국 이 시첩은 퇴계 만년의 개성적인 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의 단정하면서도 원활한 필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목판본 1책으로 《退溪學文獻全集》 제4책 (啓明漢文學硏究會 硏究資料叢書 II)에 실려 있다.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1) 基準本

《梅花詩帖》은 친필모각본인 목판본으로 간행된 이후, 이 판본의 후쇄본들이 다수 전하고 있다. 초간본도 남아 있는 듯하나, 후쇄본들 역시 목판본 원판에 의해 간행된 것이기에 그와 차이가 없다. 《梅花詩帖》은 퇴계의 친필을 새긴 것이 유일본이다.

〈木版本〉

《梅花詩帖》, 1책, 《退溪學文獻全集》 제4책, 啓明漢文學硏究會 硏究資料叢書 II.

2) 對校本

《梅花詩帖》에 수록된 시들은 문집에도 모두 수록되었다. 하지만 《梅花詩帖》에 수록된 시들과 문집에 수록된 시 사이에는 내용상 다소 출입이 있다. 이것은 퇴계가 70세에 《梅花詩帖》을 엮으면서 기존 梅花詩의 글자나 시구를 바꾸었거나 문집이 거듭 간행되면서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梅花詩帖》의 시들을 기준으로 삼되 문집의 시를 대교본으로 삼아 양쪽을 비교하는 교감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미 출간된 《定本 退溪全書》退溪先生文集을 대교본으로 삼아 중요한 차이를 밝

혀두기로 한다.

<出版本>

《定本 退溪全書》退溪先生文集 1~3책, 2022, 退溪學研究院

2. 定本の 構成

1) 머리말

(1) 詩題의 맨 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2) 위 일련번호는 梅花詩 각각의 고유번호로서 基準本 內 작품의 순차를 표시한 것이다. 漢詩의 경우 한 제목에 두 수 이상의 작품으로 구성된 연작시가 존재하므로, 각 詩題에 따른 일련번호와 작품 수에 따른 일련번호를 나란히 표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詩題와 각 작품의 순서가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예컨대, M58-86~87의 경우, 맨 앞의 M은 《梅花詩帖》을 가리키고, 다음 숫자 58은 《梅花詩帖》에서의 詩題 順次이며, ‘-’ 다음의 숫자 86~87은 詩首의 順次를 나타내는 것으로 《梅花詩帖》에서 순차 상 86수와 87수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2) 詩題

基準本の 편성체제에 따라 시의 제목을 제시한다. 《梅花詩帖》의 시 제목은 문집에 수록된 같은 시와 제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제목 옆의 주석 역시 문집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차이가 있을 때는 校勘記

凡例

를 달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題下註

文集의 예에 따라 題下註를 단다. 여기에서는 시의 창작시기와 장소를 밝힌다. 또 [資料考]를 통해 이 작품이 文集 體制內 실려 있는 곳을 밝히고, 《定本 退溪全書》 文集에서의 작품 제목과 고유번호를 아울러 제시한다.

4) 本文

(1) 詩題 아래에 《梅花詩帖》의 본문을 실는다. 해당 시의 본문과 주석 전체를 수록한다.

(2) 본문과 주석 안의 한문 문장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위의 표점 범례를 참고한다. 특히 인명, 지명 등에 대해서는 밑줄을 그어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3) 본문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자 처리 범례를 따른다.

(4) 基準本과 문집의 시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으면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하여 脚注의 형태로 배치한다.

(5) 기준본인《梅花詩帖》의 초서체는 해서체로 바꾸어 독자가 읽기에 편하도록 한다.

(6) 기준본 원문에 누락 된 글자가 있으면 《定本 退溪全書》 退溪先生文集 文集에 수록된 시에 따라 본문의 글자를 보충하고 교감기에서 관련 사실을 설명한다.

5) 校勘記

- (1) 基準本과 對校本 사이의 異同사항을 표시한다.
- (2) 異本 자료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 (3)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 (4)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5) 校勘記에 인용되는 문집 시의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처리한다.
- (6) 校勘記의 校勘 臺本인 《定本 退溪全書》退溪先生文集에 수록된 시에 대해서는 文集의 原所在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略號를 사용한다.

退溪先生文集 內集→內集	退溪先生文集 別集→別集
退溪先生文集 續集→續集	退溪先生文集 外集→外集

- (7) 校勘記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 단어, 구절을 쓰고 ‘:’을 찍은 후 異本の 내용을 기록한다.
- (8)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를 해서 밝힌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는, 없으면 ‘……에는 없다.’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也 : 內集에는 앞에 ‘先生’이 있다.

예2) 處士……先生 : 別集에는 없다.

- (9)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

凡例

’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10)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1) 《梅花詩帖》의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 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凡例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 】’로 표시한다.

(9) 밑줄()

凡例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을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解題	i
凡例	iii

梅花詩帖

M01-1 玉堂憶梅【壬寅】	1
M02-2~3 東湖讀書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甲辰春赴召後】	2
M03-4 望湖堂尋梅【丙午仲春，將歸嶺南。】	4
M04-5 再用前韻，答閔景說	5
M05-6 退溪草屋，喜黃仲學來訪【庚戌】	6
M06-7 壬子正月二日立春	7
M07-8 幽居【示李仁仲·金慎仲。】	8
M08-9~10 題蔡居敬墨梅	9
M09-11 秋懷十一首之一【丙辰】	10
M10-12 孤山詠梅【丁巳 ○〈題畫十絕〉之一】	11
M11-13 梅花【庚申】	12
M12-14 林居早春【和李玉山〈林居十五詠〉之一】	13
M13-15 節友社【〈陶山雜詠·十八絕〉之一】	14
M14-16 感事【〈東齋感事，十絕〉之一 ○己未作，當在庚申前。】	15
M15-17 梅塢清香【〈歧亭十詠〉之一 ○辛酉】	16
M16-18 答友人【壬戌】	17
M17-19~20 題畫梅	18
M18-21 節友社梅花，暮春始開。追憶往在甲辰歲，東湖賞梅，用東坡韻賦詩二篇，忽忽十九年矣。因復和成一篇，以示同舍諸友，道余思舊感今之意云	19

M19-22 梅梢明月【〈韓上舍 永叔江墅十景〉之一】	20
M20-23 孤山梅隱【題畫八幅之一 ○畫中，返棹鶴還，而門前無客。】	21
M21-24 李剛而見訪，月下詠梅【壬戌】	22
M22-25 西湖伴鶴【題畫八幅之一 ○甲子】	23
M23-26 陶山訪梅，緣被去冬寒甚藥傷，殘芳晚發，憔悴可憐，爲之嘆息，賦此云	24
M24-27 金君而精出游陶山留宿，明早，見寄一絕。次韻却寄	25
M25-28 三月十三日，至陶山，梅被寒損，甚於去年。窻竹亦悴，次去春一律韻，以見感歎之意【時鄭子中亦有約。○乙丑】	26
M26-29~31 寓感	27
M27-32 雙清堂趙松岡韻【丙寅正月赴召，病留榮川。】	28
M28-33 折梅置插案上【病辭召命，留體泉。】	29
M29-34 二月二十一日，偶題【同上。】	30
M30-35 得鄭子中書，益嘆進退之難，吟問庭梅【書言陞拜事。】	31
M31-36 梅花答	32
M32-37 季春辭召命，還陶山，梅花問答	33
M33-38 梅答【襄陽見梅後，近數旬而陶山梅始發。】	34
M34-39~40 丁卯踏青日，病起，獨出陶山，鵲杏亂發，窓前少梅，皓如玉雪團枝，絕可愛也	35
M35-41~50 再訪陶山梅，十絕	36
M36-51 用大成早春見梅韻【戊辰】	39
M37-52 次韻金惇叙梅花	41
M38-53~54 己巳正月，聞溪堂小梅消息，書懷	42
M39-55~56 憶陶山梅【同前，時在漢城。】	43
M40-57 漢城寓舍，盆梅贈答	44
M41-58 盆梅答	45
M42-59 季春，至陶山，山梅贈答	46
M43-60 主答	47

目錄

M44-61 山居偶題	48
M45-62 次韻奇明彥追和盆梅詩見寄	49
M46-63~68 陶山月夜，咏梅	50
M47-69 梅下，贈李宏仲	52
M48-70~72 次金彥遇慎仲梅花韻	53
M49-73 咏梅	54
M50-74 次韻慎仲不及賞梅	55
M51-75~76 挹清主人金慎仲盆養梅花，至月晦日，溪莊大雪中，寄來 梅一枝·詩二絕。清致可尚，次韻奉酬。因記得去春都下，得盆梅甚佳， 未幾東歸，思之未已，於後併及之	56
M52-77~78 彥遇·惇叙同訪，慎仲盆梅韻	57
M53-79 彥遇雪中賞梅，更約月明韻	58
M54-80 慎仲贈彥遇·惇叙韻	59
M55-81 又雪月中賞梅韻	60
M56-82~83 庚午寒食，將往展先祖墓於安東。後凋主人金彥遇擬於其 還，邀入賞梅，余固已諾之。臨發，適被召命之下，既不敢赴，惶恐輟 行，遂至愆期。爲之悵然有懷，得四絕句，若與後凋梅相贈答者。寄呈 彥遇，發一笑也	61
M57-84~85 後凋梅答	62
M58-86~87 余贈彥遇詩，謂雖負尋梅於彼，亦有陶山梅，足以自慰。 已而彥遇來訪溪上，歷陶社云，梅被寒損特甚，著花未可必。余聞之，將 信將疑，用彥遇韻以自遣，且以示彥遇	63
M59-88 陶山梅爲冬寒所傷，歎贈金彥遇，兼示慎仲·惇叙【每句用梅字， 效陶淵明〈止酒〉·王介甫〈勸學〉詩體也。】	64
M60-89 溪齋夜起，對月咏梅	65
M61-90 次韻彥遇見寄	66
M62-91 都下梅盆，好事金而精付安道孫兒，船載寄來，喜題一絕云	67

梅花詩

梅花詩

M01-1

玉堂憶梅【壬寅】

一樹庭梅雪滿枝，風塵湖海夢差池。
玉堂坐對春宵月，鴻鴈聲中有所思。

▶ 壬寅年 (中宗37, 1542년, 42세) 3월 1일~18일 추정.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外集 권1에 같은 제목(KWP0789/詩-外卷1-47)으로 실려 있다.

M02-2~3

東湖讀書堂梅花， 暮春始開【用東坡韻。 ○甲辰春赴召後】

我昔南遊訪梅村，風烟日日銷吟魂。
天涯獨對歎國艷，驛路折寄悲塵昏。
邇來京輦苦相憶，清夢夜夜飛丘園。
那知此境是西湖？邂逅相看一笑溫。
芳心寂寞殿殘春，玉貌淖約迎初暉。
伴鶴高人不出山，辭輦貞姬常掩門。
天教晚發壓桃杏，妙處不盡騷人言。
媚嫵何妨鐵石腸？莫辭病裏携罍樽。¹⁾

又²⁾

藐姑山人臘雪村，鍊形化作寒梅魂。

▶ 甲辰年 (中宗39, 1544년, 44세) 3월 19일 추정.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1에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春赴召後】〉
(KNP0041/ 詩-內卷1-58~59)로 실려 있다.

1) 樽：內集 ‘罍’

2) 又：內集에는 없다.

梅花詩

風吹雪洗見本真，玉色天然超世昏。
高情不入衆芳騷，千載一笑孤山園。
世人不識嘆類沈，今我目擊³⁾欣逢溫。
神清骨凜物自悟，至道不假餐霞噉。
昨夜夢見縞衣仙，同跨白鳳飛天門。
蟾宮要授玉杵藥，織女前導姮娥言。
覺來異香滿懷袖，月下攀條傾一樽。⁴⁾

3) 目擊：內集‘獨得’

4) 樽：內集‘罇’

M03-4

望湖堂尋梅【丙午仲春，將歸嶺南.】

望湖堂裏¹⁾一株梅，幾度尋春走馬來？
千里歸程難汝負，敲門更作玉山頹。

▶ 丙午年（明宗1, 1546년, 46세）2월.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1에 같은 제목(KNP0051/詩-內卷1-77)으로 실려 있다.

1) 裏：內集 ‘下’

梅花詩

M04-5

再用前韻，答閔景說

聞道湖邊已放梅，銀鞍豪客不曾來。
獨憐憔悴南行子，一醉同君抵日頹。

▶ 丙午年（明宗1, 1546년, 46세）2월 추정.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1에 〈再用前韻, 答景說〉(KNP0052/詩-內卷1-78)로 실려 있다.

M05-6

退溪草屋，喜黃仲舉來訪【庚戌】

溪上逢君叩所疑，濁醪聊復爲君持。
天公却恨梅花晚，故遣斯須雪滿枝。

▶ 庚戌年（明宗5, 1550년, 50세）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1에 〈退溪草屋，喜黃錦溪來訪【庚戌 ○罷郡歸鄉後】〉(KNP0105/詩-內卷1-174)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06-7

壬子正月二日立春

黃卷中間對聖賢，虛明一室坐超然。
梅窓又見春消息，莫向瑤琴嘆絕絃。

▶ 壬子年 (明宗7, 1552년, 52세) 1월 2일.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2에 〈正月二日立春【壬子】〉의 제2수(KNP0135/詩-內卷2-48)로 실려 있다.

M07-8

幽居【示李仁仲·金愼仲.】

幽居一味閑無事，人厭閑居我獨憐。
置酒東軒如對聖，得梅南國似逢仙。
巖泉滴硯雲生筆，山月侵牀露灑編。
病裏不妨時懶讀，任從君笑腹便便。【時南中故人新寄重葉梅，
裁活甚佳.】¹⁾

▶ 壬子年（明宗7, 1552년, 52세）4월 2일~6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2에 〈幽居, 示李仁仲·金愼仲〉(KNP0146/詩-內卷2-60)으로 실려 있다.

1) 時南中……甚佳 : 內集에는 없다.

梅花詩

M08-9~10

題蔡居敬墨梅

古梅香動玉盈盈，隔樹冰輪輾上明。
更¹⁾待微雲渾去盡，孤山終夜不勝清。

瓊枝疏瘦雪英寒，縱被緇塵不改顏。
可惜詩翁眞跌宕，枉將調戲比端端。

▶ 乙卯年（明宗10, 1555년, 55세）1월~2월 추정.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2에 〈題金季珍所藏蔡居敬墨梅, 二首〉(KNP0176/詩-內卷 2-124~125)로 실려 있다.

1) 更：今按: 《梅花詩帖》에는 ‘史’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內集에 따라 수정하였다.

M09-11

秋懷十一首之一【丙辰】

庭前兩株梅，秋葉多先悴。
谷中彼薔蔚，亂雜如爭地。
孤標未易保，衆植增所恣。
風霜一搖落，貞脆疑無異。
芬芳自有時，豈必人知貴？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8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2에 〈秋懷十一首, 讀王梅溪和韓詩, 有感, 仍用其韻〉의 제2수 (KNP0201/詩-內卷2-174)로 실려 있다.

梅花詩

M10-2

孤山詠梅【丁巳 ○〈題畫十絕〉之一】

一棹湖遊鶴報還，清真梅月稱盤桓。
始知魏隱非眞隱，賭得幽居帝畫看。

▶ 丁巳年（明宗12, 1557년, 57세）봄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2에 〈黃仲舉求題畫十幅〉의 제6수 〈孤山詠梅〉(KNP0204/詩-內卷2-192)로 실려 있다.

M11-3

梅花【庚申】

溪邊粲粲立雙條，香度前林色映橋。
未怕惹風霜易凍，只愁迎暖玉成消。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1월~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같은 제목(KNP0236/詩-內卷3-14)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12-14

林居早春【和李玉山〈林居十五詠〉之一】

臘酒春光照眼新，陽和初覺適形神。
晴簷鳥哢如呼客，雪磴梅寒似隱眞。

▶ 庚申年（明宗15, 1560년, 60세）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林居十五詠【李玉山韻】〉의 제1수 〈早春〉(KNP0237/詩-內卷3-15)으로 실려 있다.

M13-15

節友社【〈陶山雜詠·十八絕〉之一】¹⁾

松菊陶園與竹三，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霜契，苦節清芬儘飽諳。

▶ 庚申年（明宗15, 1560년, 60세）여름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十八絕【七言】〉의 제6수 〈節友社〉(KNP0241/詩-內卷 3-39)로 실려 있다.

1) 今按: 《梅花詩帖》에는 ‘淨友社’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內集에 따라 ‘節友社’로 수정하였다.

梅花詩

M14-6

感事【〈東齋感事，十絕〉之一 ○己未作，當在庚申前.】

歲寒山谷雪霜深，溪上梅花尙闕心。
叵耐故人千里外，相思難與共幽襟。

▶ 己未年（明宗14, 1559년, 59세）12월.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東齋感事, 十絶〉의 제10수(KNP0234/詩-內卷3-12)로 실려 있다.

M15-7

梅塢清香【〈歧亭十詠〉之一 ○辛酉】

誰將尤物破天荒？小塢臨池栽韻芳。
皎皎驚人冰雪白，馥馥襲袂旃檀香。
孤山微吟占風情，草堂索笑開愁腸。
麻姑後夜許同攀，莫辭對月傾壺觴。

▶ 辛酉年（明宗16, 1561년, 61세）여름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歧亭十詠【在咸昌公儉池上.】〉의 제6수 〈梅塢清香〉(KNP0262/詩-內卷3-132)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16-18

答友人【壬戌】

性僻常耽靜，形羸實怕寒。
松風關院聽，梅雪擁爐看。
世味衰年別，人生末路難。
悟來成一笑，曾是夢槐安。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1월~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次友人寄詩求和韻, 二首〉의 제2수(KNP0278/詩-內卷 3-163)로 실려 있다.

M17-19~20

題畫梅

一樹橫斜雪作團，香肌瘦盡玉生寒。
不知疏影傳毫末，疑向孤山月下看。

玉人頰頰出天姿，肯恐冰容不入時？
可笑坡仙嘲石老，却緣花惱自成癡。【紅梅】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3월 4일~15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詩는 續集 권2에 같은 제목(SNP1039/詩-續卷2-127~128)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18-21

節友社梅花，暮春始開。追憶往在甲辰歲，東湖賞梅，用東坡韻賦詩二篇，忽忽十九年矣。因復和成一篇，以示同舍諸友，道余思舊感今之意云

青春欲暮嶠南村，處處桃李迷人魂。
眼明天地立孤樹，一白可洗群芳昏。
風流不管臘雪天，格韻更絕韶華園。
道山疇昔幾仙賞？廿載重逢欣色溫。
臨風宛若西湖伴，對月不覺東方暎。
問我緣何太瘦生，白首長屏雲巖門。
向來自有烟霞疾，今者何須蘭臭言？
天涯故人不可見，與爾日飲無何樽。¹⁾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3월 4일~15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節友壇梅花，暮春始開. 追憶往在甲辰春，在東湖，訪梅於望湖堂，賦詩二首，忽忽十九年矣. 因復和成一篇，道余追舊感今之意，以示同舍諸友〉(KNP0280/詩-內卷3-165)로 실려 있다.

1) 樽：內集 ‘罇’

M19-22

梅梢明月【〈韓上舍永叔江墅十景〉之一】

天上冰輪若霽團，庭前玉樹掛梢端。
渚宮清艷雖藏好，何惜¹⁾幽人百匝看？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3월 4일~15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韓上舍永叔江墅十景〉의 제7수 〈梅梢明月〉(KNP0281/詩-內卷3-172)로 실려 있다.

1) 惜 : 內集 ‘厭’

梅花詩

M20-23

孤山梅隱【題畫八幅之一 ○畫中，返棹鶴還，而門前無客.】

返棹歸來鶴趁人，梅邊閑坐自清真.

門前想亦非凡客，底事逡巡尚隱身？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3월 4일~15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鄭子中求題屏畫, 八絶〉의 제8수 〈孤山梅隱【畫中, 返棹鶴還, 而門外無客.】〉(KNP0291/詩-內卷3-201)으로 실려 있다.

M21-24

李剛而見訪，月下詠梅【壬戌】

歷盡崎嶇荷遠尋，花殘春老恨休深。
天教緩緩梅花發，月白風清待子吟。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3월 16일~18일 추정. 禮安.

[資料考] 內集 권3에 〈喜李剛而府尹見訪, 二首〉의 제1수(KNP0282/詩-內卷3-176)로 실려 있다.

梅花詩

M22-25

西湖伴鶴【題畫八幅之一 ○甲子】

湖上精廬絕俗緣，胎仙栖託爲癯仙。
不須剪翮如鸚鵡，來伴吟梅去入天。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봄 추정. 禮安.

[資料考] 內集 권3에 〈題金上舍愼仲畫幅, 八絶〉의 제8수 〈西湖伴鶴〉(KNP0304/詩-內卷3-238)으로 실려 있다.

M23-26

陶山訪梅，緣被去冬寒甚藥傷，殘芳晚發，憔悴可憐，爲之嘆息，賦此云

有客同心期不來，孤筇延佇白雲堆。
重嗟宿契三梅樹，只向殘春數萼開。
入手清風空灑落，傍簷明月自徘徊。
明年此事知諧未？愁思吟邊浩莫裁。

▶ 甲子年(明宗19, 1564년, 64세) 3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陶山訪梅, 緣被去冬寒甚藥傷, 殘芳晚發, 憔悴可憐, 爲之歎息, 賦此〉(KNP0322/詩-內卷3-258)로 실려 있다.

梅花詩

M24-27

金君而精出游陶山留宿，明早，見寄一絕。次韻
却寄

至後梅梢意已生，山翁不見佇幽情。
多君獨去探消息，吟到黃昏片月橫。

▶ 甲子年(明宗19, 1564년, 64세) 11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3에 〈金而精出遊陶山留宿，明早，見寄三絕。次韻卻寄〉의 제1수 〈觀梅〉(KNP0326/詩-內卷3-262)로 실려 있다.

M25-28

三月十三日，至陶山，梅被寒損，甚於去年．窻竹亦悴，次去春一律韻，以見感歎之意【時鄭子中亦有約．○乙丑】

朝從山北訪春來，入眼山花爛錦堆．
試發竹叢驚獨悴，旋攀梅樹嘆遲開．
疏英更被風顛簸，苦節重遭雨惡摧．
去歲同人今又阻，清愁依舊浩難裁.¹⁾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3월 13일.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三月十三日，至陶山，梅被寒損，甚於去年．窻竹亦悴，次去春一律韻，以見感歎之意．時鄭眞寶亦有約〉(KNP0334/詩-內卷4-13)으로 실려 있다.

1) 難裁：內集에는 뒤에 ‘【是日風雨.】’가 있다.

梅花詩

M26-29~31

寓感

杜鵑花似海漫山，桃杏紛紛開未闌。
早知¹⁾不關榮悴事，莫將梅蘂較他看。

梅樹依依少著花，愛他疏瘦與橫斜。
不須更辨參昏曉，看取香梢動月華。

絕艷風流玉雪眞，開時休怪混芳春。
太平當日濂溪老，光霽襟懷映俗塵。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3월 17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들은 內集 권4에 〈寓感, 五絶〉의 제3수(KNP0338/詩-內卷4-20), 제4수(KNP0338/詩-內卷4-21), 제5수(KNP0338/詩-內卷4-22)로 실려 있다.

1) 知: 內集 '識'

M27-32

雙清堂趙松岡韻【丙寅正月赴召，病留榮川.】

旅病淹留自作涼，雪庭春信闕梅香。
故人尙有題名處，拭淚幽吟宛對床。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1월 29일~30일 추정. 榮州.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題目註 없이 같은 제목(KNP0350/詩-內卷4-58)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28-33

折梅置插案上【病辭召命，留醴泉.】

梅萼迎春帶小寒，折來相對玉窓間。
故人長憶千山外，不耐天香瘦損看。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2월 17일. 醴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折梅插置案上〉(KNP0359/詩-內卷4-72)으로 실려 있다.

M29-34

二月二十一日，偶題【同上.】

梅花初發郡舍東，客子臥病愁思中。
冷雨淒風殊未已，天香國艷無與同。
襄陽自古稱樂國，李白狂歌詫山翁。
只今耆舊無多存，誰是鹿門 龐德公？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2월 21일. 醴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二十一日，偶題〉(KNP0362/詩-內卷4-75)로 실려 있다.

梅花詩

M30-35

得鄭子中書，益嘆進退之難，吟問庭梅【書言陞拜事.】

風流從古說¹⁾孤山，底事移來郡圃間？

畢竟自爲名所誤，莫欺吾老困名關。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2월 22일 추정. 醴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得鄭子中書，益歎進退之難，吟問庭梅【書言陞拜事.】〉(KNP0363/詩-內卷4-76)로 실려 있다.

1) 風流……說：內集 ‘梅花孤絕稱’

M31-36

梅花答

我從官圃憶湖¹⁾山，君夢雲溪客枕間.
一笑相逢天所許²⁾，不須仙鶴共柴關.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2월 22일 추정. 醴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代梅花答〉(KNP0364/詩-內卷4-77)으로 실려 있다.

1) 湖：內集 ‘孤’

2) 許：內集 ‘偕’

梅花詩

M32-37

季春辭召命，還陶山，梅花問答

爲問山中兩玉仙，留春何待¹⁾百花天？
相逢不似襄陽館，一笑凌寒向我前。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3월 하순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陶山訪梅〉(KNP0381/詩-內卷4-100)로 실려 있다.

1) 待：內集 ‘到’

M33-38

梅答【襄陽見梅後，近數旬而陶山梅始發.】

我是逋翁¹⁾換骨仙，君如歸鶴下遼天.
相逢²⁾一笑天應許，莫把襄陽較後前.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3월 하순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代梅花答〉(KNP0382/詩-內卷4-101)으로 실려 있다.

1) 翁：內集 ‘仙’

2) 逢：內集 ‘看’

梅花詩

M34-39~40

丁卯踏青日，病起，獨出陶山，鵲杏亂發，窓前少
梅，皓如玉雪團枝，絕可愛也

不到陶山歲已更，山巖無主自春明。
千紅喜我初乘興，一白憐君晚有情。
病起尙耽芳節好，吟餘更覺午風輕。
悠然又向江臺坐，俯仰乾坤感慨生。

又¹⁾

雲物芳妍麗景遲，韶華滿眼暮春時。
陶公止酒還思酒，杜老懲詩更詠詩。
盖地翠茵千卉亂，漫山紅闌萬花披。
平生苦厭紛華事，壓掃全憑玉雪枝。

▶ 丁卯年（明宗22, 1567년, 67세）3월 3일,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隆慶丁卯踏青日, 病起, 獨出陶山, 鵲杏亂發, 窓前小梅一
樹, 皓如玉雪團枝, 絕可愛也〉(KNP0396/詩-內卷4-126~127)로 실려 있다.

1) 又：內集에는 없다.

M35-41~50

再訪陶山梅，十絕

手種寒梅今幾年，風烟蕭灑小窓前。
昨來香雪初驚動，回首群芳盡索然。

南國移根荷故人，溪山烟雨占清真。
何妨桃李同時節，玉骨冰魂別樣春。

個個瓊葩抵死妍，眞剛休詫鐵腸堅。
撚鬚終日孤吟賞，妙處如逢雪子然。

千載孤山有宿緣，高吟香影世爭傳。
只今人境雖非舊，那忍風流墮杳然？

玉瘦瓊寒雪韻姿，詩窮霞癖野心期。

▶ 丁卯年(明宗22, 1567년, 67세) 3월 4일~7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4에 같은 제목(KNP0397/詩-內卷4-128~137)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相從莫逆爲深契¹⁾，不道逋仙粉蝶知。

日暮東風太放顛，浮紅浪蘂摠翻翩。
丁寧爲報東君道，莫使封姨撼玉仙。

坡仙十絕與三詞，不獨西湖作已知。
況有紫陽風雅手，長吟絕嘆寓心期。

一花纔背尙堪猜，胡奈垂垂盡倒開。
賴是我從花下看，昂頭一一見心來。

病來杯勺久成疏，今²⁾日梅邊置一壺。
野鳥不須啼更款，清宵將擬待麻姑。

童子疑人久不歸，恹寒餘戀動斜暉。

不辭日日來幽款，湖面無如片片飛。【第八首一花云云，本³⁾誠齋梅花詩“一花無賴背人開。”而云也。⁴⁾向⁵⁾余得此重葉梅於南州親舊，其

1) 爲深契：內集‘如蘭臭’

2) 今：內集‘此’

3) 本：內集에는 없다.

4) 而云也：內集에는 없다.

5) 向：內集에는 없다.

著花一皆倒垂向地，從傍看望，不見花心，必從樹下仰面而看，乃得一一見心，團團可愛。杜詩所謂“江邊一樹垂垂發”者，疑指此一種梅言⁶⁾也。】

6) 言：內集에는 없다.

梅花詩

M36-51

用大成早春見梅韻【戊辰】

周詩詠梅非眞識，不爲梅花分皂白。
屈原〈離騷〉侈衆芳，還昧冰霜天下色。
何遜楊州始知己，別去重來屢歎息。
或吟江南寄情思，或詫嶺上分南北。
剛腸尙吐嫵媚詞，廣平節義逾堅石。
唐·宋紛紛幾騷客，賞到孤山不落莫。
何況雲臺老眞逸，腸斷江城詠霜角。
我生多癖酷愛梅，人道癯仙著山澤。
舊遊南國識玉面，故人遠惠連根得。
自期相伴老巖壑，胡奈風塵去飄泊？
豈無京洛或相逢？素衣化緇嗟非昔。
寧辭白髮赴佳招？瞥眼榮華過虻雀。
丙歲自比遼東鶴，歸來及見花未落。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1월~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題目註 없이 같은 제목(KNP0417/詩-內卷5-17)으로 실려 있다.

丁年病起始尋芳，絕喜瓊枝攢雪萼。
何意今年老更甚，光生正患汾陽額？
尺一嚴程久稽滯，仰兢俯慄如龜縮。
梅君不須遽疏我，我事尚可親高格。
未諧法真避名聲，猶信尙平知損益。
道韻休將一日離，馨懷預恐終年隔。
淡烟微雨客絕門，清夜無風月上岳。
呼樽¹⁾試一病已蘇，作詩縱百情何極。
汾翁好事誇我說，早梅先得天工力。
豈知陶梅知我病畏寒，爲我佳期晚發猶不惜？
君不見范石湖，種梅譜梅爲天職？
又不見張約齋，玉照風流匪索寞？
嗟我與君追二子，苦節清修更勵刻。

1) 樽：內集‘尊’

梅花詩

M37-52

次韻金惇叙梅花

我友五節君，交情不厭淡。
梅君特好我，邀社不待三。
使我思不禁，晨夕幾來探。
帶烟寒漠漠，傍湖清澹澹。
粲然百花間，益見眞與濫。
自臨吸月杯，肯上賞春擔。
吟詩託密契，夜光非投暗。
精神炯相照，俗物難窺瞰。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봄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18/詩-內卷5-18)으로 실려 있다.

M38-53~54

己巳正月，聞溪堂小梅消息，書懷

聞說溪堂少梅樹，臘前蓓蕾滿枝間。
留芳可待溪翁去，莫被春寒早損顏。

手種寒梅護一堂，今年應發滿園香。
主人京洛遙相憶，無限清愁暗結腸。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1월.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己巳正月，聞溪堂小梅消息，書懷，二首〉(KNP0441/詩-內卷5-50~51)로 실려 있다.

梅花詩

M39-55~56

憶陶山梅【同前，時在漢城.】

湖上山堂幾樹梅，逢春延佇主人來。
去年已負黃花節，那忍佳期又負回？

丙歲如逢海上仙，丁年迎我似登天。
何心久被京塵染，不向梅君續斷絃？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1월.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憶陶山梅, 二首【同前，時在漢城.】〉(KNP0443/詩-內卷 5-53~54)로 실려 있다.

M40-57

漢城寓舍，盆梅贈答

頓荷梅仙伴我涼，客窓蕭灑夢魂香。
東歸恨未携君去，京洛塵中好艷藏.¹⁾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3월 3일.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48/詩-內卷5-59)으로 실려 있다.

1) 藏 : 內集에는 뒤에 【吾鄉禮安, 在嶺南最北, 陸路由鳥嶺而行, 則曰南行, 水路由竹嶺而歸, 則曰東行, 皆指禮安而言也.】가 있다.

梅花詩

M41-58

盆梅答

聞說陶仙我輩涼，待公歸去發天香。
願公相對相思處，玉雪清真共善藏。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3월 3일 추정. 서울.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49/詩-內卷5-60)으로 실려 있다.

M42-59

季春，至陶山，山梅贈答

寵榮聲利豈君宜？白首趨塵隔歲思。
此日幸蒙天許退，況來當我發春時。【梅贈】¹⁾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3월 17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季春，至陶山，山梅贈答，二首〉의 제1수 〈梅贈主〉(KNP0454/詩-內卷5-67)로 실려 있다.

1) 梅贈 : 內集에는 없다.

梅花詩

M43-60

主答

非緣和鼎得君宜，酷愛清芬自詠思。
今我已能來赴約，不應¹⁾嫌我負明時。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3월 17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季春, 至陶山, 山梅贈答, 二首〉의 제2수 〈主答〉(KNP0454/詩-內卷5-68)으로 실려 있다.

1) 應 : 今按: 《梅花詩帖》에 누락되어 內集에 따라 보충하였다.

M44-61

山居偶題

早梅方盛晚初開，鵲杏紛紛趁我來。
莫道芳菲無十日，長留應得別春回.¹⁾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3월 27일경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暮春, 歸寓陶山精舍, 記所見〉(KNP0462/詩-內卷5-78)으로 실려 있다.

1) 回 : 內集에는 뒤에 【時山西·山北皆未花, 而山舍杜鵑爛熳, 杏花隨亦相次而發, 今十餘日, 而春事未闌云.】이 있다.

梅花詩

M45-62

次韻奇明彥追和盆梅詩見寄

任他饕虐雪兼風，窓裏清孤不接鋒。
歸臥故山思不歇，仙眞可惜在塵中。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4월 2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55/詩-內卷5-69)으로 실려 있다.

M46-63~68

陶山月夜，咏梅

獨倚山窓夜色寒，梅梢月上正團團。
不須更喚微風至，自有清香滿院間。

山夜寥寥萬境空，白梅涼月伴仙翁。
個中唯有前灘響，揚似爲商抑似宮。

步履中庭月趁人，梅邊行遶幾回巡。
夜深坐久渾忘起，香滿衣巾影滿身。

晚發梅兄更識眞，故應知我怯寒辰。
可憐此夜宜蘇病，能作終宵對月人。

往歲行歸喜裊香，去年病起又尋芳。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4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陶山月夜，詠梅，六首〉(KNP0465/詩-內卷5-81~86)로 실려 있다.

梅花詩

如今忍把西湖勝，博取東華軟土忙？

老艮歸來感晦翁，託梅三復歎羞同。

一杯勸汝今何得，千載相思淚點胸。

M47-69

梅下，贈李宏仲

喚取山家酒一壺，適然相值更吾徒。
梅邊細酌梅相勸，不用麻姑急掃除。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3월 하순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46/詩-內卷5-57)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48-70~72

次金彥遇愼仲梅花韻

但知姑射出塵姿，莫把芳辰較早遲。
萬紫千紅渾失色，小園驚動兩三枝。

淖約天葩玉雪姿，何妨春晚景遲遲？
細看冷艷彌貞厲，不必清霜凍樹枝。

棲遯難兄苦憶梅，溪居難弟獨徘徊。
寄詩撩我吟梅興，更與懷人一併催。【時彥遇避寓。】¹⁾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3월 16일경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奉酬金愼仲詠梅，三絕句，一近體〉의 제1, 2, 3수 (KNP0412/詩-內卷5-8~10)로 실려 있다.

1) 時……避寓：內集 ‘【來詩一·二絕，皆道此間梅晚發，三絕，言其伯氏梅時不在家之恨.】’

M49-73

詠梅¹⁾

韻格清癯甚，冰霜慘刻餘。
和曾三疊僭，栽尙百株疏。
偶入小羌笛，偏宜高士廬。
令人益生厭，薇藥欲紛如。²⁾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3월 16일경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奉酬金愼仲詠梅, 三絶句, 一近體〉의 제4수(KNP0412/詩-內卷5-11)로 실려 있다.

1) 詠梅 : 內集에는 없다.

2) 紛如 : 內集에는 뒤에【朱先生嘗和東坡松風亭梅花詩, 有梅花自入三疊曲之語. 蓋坡詩三篇, 而先生三和之, 合爲六篇, 篇篇皆有仙風道韻. 每一諷誦, 令人飄飄然有凌雲之氣, 不勝其欣慕愛樂之情. 亦嘗兩和於東湖梅, 一和於陶山梅, 僭妄何可言也? 范石湖於石湖雪坡, 種梅數百本, 又於范村, 種梅尤多. 張約齋於玉照堂, 植梅三·四百株, 蓋絕致清賞, 不厭其多也. 余之植梅於溪莊山舍, 僅十餘本, 將漸廣以至百本也. 故云.】이 있다.

梅花詩

M50-74

次韻愼仲不及賞梅

別去梅初落，重來我復遲。
剪冰憐委地，飄玉恨空枝。
妙韻森餘想，孤風宛在詩。
子成如未實，和鼎詎深期。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4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次韻愼仲落梅〉(KNP0413/詩-內卷5-12)로 실려 있다.

M51-75~76

挹清主人金愼仲盆養梅花，至月晦日，溪莊大雪中，寄來梅一枝·詩二絕。清致可尚，次韻奉酬。因記得去春都下，得盆梅甚佳，未幾東歸，思之未已，於後併及之

盆中未臘梅花發，澗上窮陰雪片橫。
折寄相思清入骨，挹清眞個不虛名。

痛憶京師二月中，盆梅歸袖挹仙風。
那知此日高齋裏，幻出黃鍾律未窮？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11월 30일.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74/詩-內卷5-98~99)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52-77~78

彦遇·惇叙同訪，愼仲盆梅韻

至後微陽生九地，盆梅驚動已先春。
誰能畫出兩騷客，踏雪携壺訪主人。

窓外雪風吹動地，窓間梅蘂玉生春。
故應天護清香別，隔斷寒威餉與人。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11월~1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彦遇·惇叙同訪, 愼仲盆梅韻, 二首〉(KNP0475/詩-內卷 5-100~101)로 실려 있다.

M53-79

彦遇雪中賞梅，更約月明韻

雪映瓊枝不怕寒，更邀桂魄十分看。
個中安得長留月？梅不飄零雪未殘。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11월~1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76/詩-內卷5-102)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54-80

愼仲贈彥遇·惇叙韻

寸土能開子月梅，連娟跨臘未須催。
豈如病叟居寒谷，直到春深始見開？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11월~1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77/詩-內卷5-103)으로 실려 있다.

M55-81

又雪月中賞梅韻

盆梅發清賞，溪雪耀寒濱。
更著冰輪影，都輸臘味春。
超¹⁾遙閨苑境，倬約藐姑眞。
莫遣吟詩苦，詩多亦一塵。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11월~12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478/詩-內卷5-104)으로 실려 있다.

1) 超：內集 ‘迢’

梅花詩

M56-82~83

庚午寒食，將往展先祖墓於安東。後凋主人金彥遇擬於其還，邀入賞梅，余固已諾之。臨發，適被召命之下，既不敢赴，惶恐輟行，遂至愆期。爲之悵然有懷，得四絕句，若與後凋梅相贈答者。寄呈彥遇，發一笑也

後凋堂下一株梅，春晚冰霜獨擅開。
豈謂天書下前日，能令佳約坐成頽？

梅不欺余余負梅，幽懷多少阻相開。
風流不有陶山社，心事年來也盡頽。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2월 20일.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522/詩-內卷5-199~200)으로 실려 있다.

M57-84~85

後凋梅答

聞君逃祿自前春，釣月耕雲儘可人。
更惹塵機來負我，不知誰復與相親。

騷情非淺後凋春，苦節君休訝主人。
與我已成心契密，不應桃李更交親。【昨聞彦遇以堂制頗奢，恐
不稱梅韻爲病，故末絕云。】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2월 20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523/詩-內卷5-201~202)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58-86~87

余贈彥遇詩，謂雖負尋梅於彼，亦有陶山梅，足以自慰。已而彥遇來訪溪上，歷陶社云，梅被寒損特甚，著花未可必。余聞之，將信將疑，用彥遇韻以自遣，且以示彥遇

結社陶梅八九條，佇看眞白發春孤。
翻思託地高寒甚，莫是天香太損無？

雪虐風饕戰許條，摧傷烈氣更貞孤。
君廚俊及雖凋謝，樹屋烟爐詎盡無？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2월 하순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余贈彥遇詩，謂雖負尋梅於彼，亦有陶山梅，足以自慰。已而彥遇來訪溪上，歷陶社云，梅被寒損特甚，著花未可必。余聞之，將信將疑，用彥遇韻以自遣，且以示彥遇，二首〉(KNP0524/詩-內卷5-203~204)로 실려 있다.

M59-88

陶山梅爲冬寒所傷，歎贈金彥遇，兼示愼仲·惇叙

【每句用梅字，效陶淵明〈止酒〉·王介甫〈勸學〉詩體也.】

與君賞梅曾有諾，及到梅香我負約.
心期獨在山中梅，溪夢夜夜探梅萼.
昨日梅社共君來，梅興索漠令人哀.
八梅風烟但空枝，一梅數萼猶未開.
杖藜吟梅遶百匝，冥珥胡爲我梅厄？
不比君家梅得暖，梅社風多寒更虐.
我欲牋天籲梅冤，我欲作辭招梅魂.
梅冤悄結天所憐，梅魂歸來我所溫.
向來桃李妬梅白，奢華競笑梅孤潔.
但使吾梅本根在，一闕英華梅豈缺？
何況一梅之發可動人，梅乎肯與千紅百紫爭一春？
我願朝朝走訪一梅君，西京之末只有吳門 梅子眞.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2월 하순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525/詩-內卷5-205)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60-89

溪齋夜起，對月咏梅

群玉山頭第一仙，冰肌雪色夢娟娟。
起來月下相逢處，宛帶仙風一粲然。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3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溪齋夜起, 對月詠梅〉(KNP0526/詩-內卷5-206)로 실려 있다.

M61-90

次韻彥遇見寄

造化全孤秀，乾坤賦妙功。
綴冰非爍日，團雪不驚風。
幸值佳期至，那知勝賞空？
明年開滿樹，來看月明中。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3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같은 제목(KNP0527/詩-內卷5-207)으로 실려 있다.

梅花詩

M62-91

都下梅盆， 好事金而精付安道孫兒， 船載寄來，
喜題一絕云

脫却紅塵一萬重， 來從物外伴癯翁。
不緣好事君思我， 那見年年冰雪容？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3월 27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시는 內集 권5에 〈都下盆梅, 好事金而精付安道孫兒, 船載寄來, 喜題一絕云〉(KNP0528/詩-內卷5-208)으로 실려 있다.

萬曆癸酉孟秋初吉，吾友李監司清之，自首陽館，寄以新刊退溪李先生¹⁾所著，而寫〈陶山記〉與詩〈梅花帖〉，兼以²⁾大字書四張三十二字，仍命曄爲之跋。嗚呼！退溪先生，曄之願慕而學焉者也。學焉而未成，一念常存而不弛，今得以目擊夫所著手跡，則其中心感激，爲如何哉？先生作於嶺南，抱道修德，其流風餘澤，固吾東之所均被而興起也。只以地有遠近，政有遲速，西北之士，得見先生所著手跡者，蓋無幾矣。監司乃能窅然深思，俾入于梓，以廣其傳，黃海之人，無不得³⁾觀，其功可謂盛矣。其將流被於關西，使邊圉之士薰炙而起，成親上死長之俗，夫豈遠哉？卷中有高峯奇大升明彥所步詩若干首。噫，高峯之於先生，猶子澄之於晦菴也，付見於此，眞知言矣。余又悲之，使天假明彥之年，平生與先生往復論辨心性之說，得以到老而潛玩，則其所⁴⁾立，豈止於此而已哉？不幸而夭，嗚呼惜哉！嗚呼痛哉！⁵⁾

1) 李先生：《草堂集》‘先生’

2) 以：《草堂集》‘之’

3) 得：今按：《梅花詩帖》에 누락되어 《草堂集》에 따라 보충하였다.

4) 所：今按：《梅花詩帖》에는 ‘法’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草堂集》에 따라 수정하였다.

5) 이 글은 許曄의 〈陶山記跋〉이다.

退陶先生自省錄

解題

《退陶先生自省錄》은 퇴계 자신이 1555년 閏11月 金富倫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해서 1560년 9월 1일 奇大升에게 보낸 편지까지 모두 22통의 편지를 모아서 대체로 작성 연대순으로 편성한 것이다. 1558년 단오 다음날 곧 5월 6일에 스스로 쓴 序에 의하면 朋友들과 講究하여 往復한 것 중 원고가 남아 있는 것들을 채록하여 옆에 두고서 거듭 읽으며 반성의 자료로 삼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 序를 쓰기 전에 작성한 것이 1558년 4월에 李珥에게 보낸 편지까지 14통이며¹⁾, 이 序를 쓰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8통을 추가하였다. 南彦經에게 보낸 것이 2통, 金富倫 및 그의 형제들에게 보낸 것이 2통, 鄭惟一에게 보낸 것이 9통이고, 權好文에게 보낸 것이 1통, 李珥에게 보낸 것이 1통, 黃俊良에게 보낸 것이 2통, 奇大升에게 보낸 것이 4통, 盧守愼에게 보낸 것이 1통이다. 이 중 8번째 실려 있는 鄭惟一에게 보낸 편지는 실제로는 2통의 편지를 통합 편성한 것이고, 반면 20번째 실려 있는 奇大升에게 보낸 편지 1통은 17번째 실려 있는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의 별지이다.

《退陶先生自省錄》은 퇴계가 별세한 후인 1585년 퇴계의 제자로서 당시 羅州牧使로 재직 중이던 鶴峯 金誠一(1538~1593)에 의해 羅州牧에서 木板 1책 77판으로 初刊 되었다.²⁾ 맨 앞에 퇴계가 1558년 5월 6일에 쓴 自序(1판)가 있고, 본문은 76판이다. 현재 각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 판본들은 다음과 같다.

1) 그중 南時甫에게 보낸 2번째 편지는 序를 쓴 후에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

2) 《鶴峯集》附錄 권1:15a-b 〈年譜〉 ‘(萬曆)十四年丙戌’(1586년) 補 “秋, 刊《朱子書節要》·《退溪先生自省錄》”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1586년 가을이지만 아래 羅州本(연세대본)의 刊記와 印送記에 따라 1585년 겨울로 보았다.

1) 羅州本: 初刊本

(1) 연세대본(고서 귀37): 맨 뒷면에 ‘萬曆十三年乙酉冬羅州牧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또한 표지 이면에 ‘萬曆十四年五月十八日錦城太守金士純所贈’이라는 글이 필사되어 있다. 萬曆14년은 1586년이고, 錦城은 羅州의 별칭이며, 士純은 鶴峯의 字이다. 이는 곧 이 본이 金誠一이 羅州牧使로 있을 때 간행하여 知人에게 우송한 初刊本 《退陶先生自省錄》임을 확증시켜 주는 증거이다. 金誠一이 月川 趙穆(1524~1606) 등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보면³⁾, 그가 인쇄한 다음해인 1586년 인쇄된 책자를 知舊들에게 다수 우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版心 魚尾 花紋 부분에 太(3·4·6·9·14판 등), 英(혹은 兪. 序·8·11·12판 등), 육(20·52판), 더(75판) 등 刻者의 署名이 있는 것이 있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C2 252): 이 본은 연세대본 곧 初刊本의 補刻本이다. 初刊本과 거의 유사하나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版心에 刻者의 署名이 花紋으로 바뀌어 있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다. 고려대 소장본(대학원 C1 A176A / 만송 C1 A176 / 대학원 貴139) 3건은 이 본과 동일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3659-4)은 ‘만송 C1 A176’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는 동일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그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원문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退溪學文獻全集》 제4책(啓明漢文學研究會 研究資料叢書 II) 역시 동일본이다.

2) 日本刻本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17-208): 표제는 ‘退溪先生自省錄’이고

3) 《鶴峯集》續集 권4:23a-b 〈與趙月川【丙戌】〉 참조. 또한 《鶴峯集》續集 권4:35b 〈答權定甫【字○丙戌】〉(1586년)과 《雪月堂集》 권4:14b 〈贈鄭景善《自省錄》·《溪山雜詠》小識〉(1587년 가을) 등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보면 당시 士流들 사이에서 購讀을 원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解題

판심제는 ‘自省錄’으로, 1658년 11월 石齋鵜信이 訓點한 것이다. 寬文五稔乙巳三月吉杁 곧 1665년 3월 開板한 것이다. 발행처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첫머리의 退溪의 序는 羅州本의 것을 覆刻한 것이며, 또한 끝에 ‘萬曆十三年乙酉冬羅州牧開刊’이라는 羅州本의 刊記를 그대로 模刻해 두었다. 원문 이미지(<http://www.nl.go.kr/>) 이용이 가능하다.

(2) 연세대 소장본(고서 181.15 이항퇴-1, 2): 위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17-208)과 동일한 판본이다. 다만 끝에 ‘二條通玉屋町村上平樂寺’라고 하여 발행처가 표시되어 있다.

《退陶先生自省錄》은 진리에 대한 퇴계 한 개인의 진지하고 철저한 추구 태도와 투철한 ‘爲己之學’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조선뿐 아니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감화를 끼쳐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많이 읽혔다.⁴⁾ 에도 시대 초기의 藤原惺窩가 주자학에 입문한 것이 바로 퇴계를 통해서였으며, 崎門學派의 개조인 山崎闇齋와 熊本實學을 연 大塚退野는 자신들이 주자학의 진수에 눈을 뜬 것이 이 책 덕분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이 책은 에도시대 초기부터 유신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국에서 주자학의 주요 교재로서 존중되었다. 따라서 《退陶先生自省錄》은 주자학의 동아시아적 전개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自省錄》이 일본에 끼친 영향과 그 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희재, 〈퇴계 《자성록(自省錄)》의 일본에서의 판각(板刻)과 영향력〉, 《民族文化論叢》 57(2014). 그리고 《日本刻板 李退溪全書》에 붙인 阿部吉雄의 解題 참고. 阿部吉雄는 해제 작성 당시 初刊本의 존재를 확인치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自省錄》의 존재를 당시 퇴계의 제자들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주3) 참고. 에도시대 유학자들 특히 규슈 학파에 《自省錄》이 미친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서 성해준, 〈에도시대 유학자들의 퇴계학 傳承과 그 학맥: 특히 규슈 학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41(2017) 참조.

凡例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1) 基準本: 羅州本을 基準本으로 한다. 실제 작업에서는 《退溪學文獻全集》 제4책에 수록된 것을 이용하였다.

2) 對校本: 日本刻本을 對校本으로 한다. 실제 작업에서는 연세대 소장본을 이용하였다.

그 외에 아래 자료들 역시 함께 참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교감 내용을 기록하였다.

〈文集 木板本〉

(1) 癸本: 《退溪先生文集》, 癸卯校正本,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本

(2) 庚本: 《退溪先生文集》, 庚子本, 慶熙大圖書館 소장본

(3) 擬本: 《退溪先生文集》, 擬庚子本, 陶山書院(國學振興院 委託) 소장본

(4) 甲本: 《退溪先生文集》, 甲辰重刊本, 養閑堂本 啓明大圖書館 소장본

〈文集 筆寫本〉

(1) 樊本: 《陶山全書》, 樊南本, 退溪學研究院 影印本

(2) 上本: 《陶山全書》, 上溪本, 陶山書院(國學振興院 委託) 소장본

〈文集 草本〉

定本 退溪全書 ㉓

- (1) 中本: 《退溪先生集》, 中草本, 陶山書院(국학진흥원 위탁) 소장본
- (2) 定草本: 《退溪先生文集》, 定草本, 陶山書院(국학진흥원 위탁) 소장본

〈校正, 校勘 및 考證 자료〉

- (1) 養校: 養閑堂本 상란에 기재된 교정기록. 養閑堂 李世恒(1692~1766)의 수택본.
- (2) 柳校: 柳道源(1721~1791)의 《退溪先生文集攷證》(1788년), 韓國文集叢刊 수록본
- (3) 李校: 李野淳(1755~1831)의 《要存錄》, 啓明漢文學研究會 《退溪學文獻全集》 수록본
- (4) 《朱子大全》: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朱子全書》 共27冊, 2002
- (5)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2. 定本の 構成

1) 머리말: 일련번호

편지 수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였다. 예를 들어 ‘自省錄-1’은 첫 번째로 수록된 편지를 의미한다.

2) 題目

편지의 제목을 제시한다. 문집에 수록된 제목과 다른 경우 그를 밝혀 두었다.

凡例

3) 題下註

文集의 예에 따라 題下註를 단다. 먼저 작성 시기와 장소를 밝힌다. 또한 해당 저작과 관련된 정보들을 [文集所在], [編輯考], [資料考], [年代考]의 순서대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제시한다.

- (1) [文集所在]는 문집 癸卯本과 樊南本 각각에서 해당 서신이 수록된 卷次 사항을 밝힌다.
- (2) [編輯考]는 문집 편집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시한다.
- (3) [資料考]는 자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年代考]는 작성 시기 추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작성 시기 추정의 근거를 서술한다.

4) 本文

- (1) 본문 전체를 원형대로 수록한다.
- (2) 기준본 본문의 글자가 誤字임에 분명해 보이는 경우, 만약 대교본에 수정된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본문을 수정하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면 고치지 않는다. 또한 어떤 경우든 관련 사항을 校勘註 내에 밝혀 둔다.
- (3) 避諱하여 ‘滉’을 ‘某’라 한 것 등은 퇴계 자신이 避諱한 것이 아니면 避諱하지 않고 원래대로 쓴다. 임금 등을 높이기 위해 한 자를 띄운 것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 (4)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훼손된 부분을 추정한 글자

5) 校勘記

- (1) 기본적으로 《自省錄》 판본들 사이의 이동에 대해 교감한다.
- (2) 《自省錄》에 수록된 편지와 시는 모두 문집에도 이미 수록되어 있다. 《定本 退溪全書》 退溪先生文集에 수록된 해당 편지들은 樊南本에 수록된 것이 初稿이고, 癸卯校正本에 수록된 것이 修正稿이다. 《자성록》은 기본적으로 癸卯校正本에 수록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처음 목판본 편성 시 《자성록》에 수록된 것은 《자성록》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채택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집 목판본 제 판본에 실린 것은 모두 《자성록》 수록 편지의 異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집 목판본 제 판본 사이의 이동에 대한 교감 기록은 대체로 반영하기로 한다.
- (3) 초고인 樊南本 수록본에서 목판본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사항들은 이미 정본 문집에 자세하게 교감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교감 기록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관련이 없는 寫本類와 草本類와 관련된 교감 기록도 필요한 경우 반영한다.
- (4) 그 외 일반적인 校勘記 작성 방식은 《定本 退溪全書》의 범례에 의한다.

3. 文字 處理

-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凡例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매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凡例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데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데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로 표시한다.

(9) 밑줄(_)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凡例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解題	i
凡例	v

退陶先生自省錄

自省錄-序	1
自省錄-1 答南時甫【彥經】	2
自省錄-2 答南時甫	6
自省錄-3 答金伯榮·可行·惇叙 父喪遷母墓合葬等禮	7
自省錄-3A 別紙	9
自省錄-4 答鄭子中【惟一】	15
自省錄-5 答鄭子中	16
自省錄-6 答鄭子中	19
自省錄-7 答鄭子中	21
自省錄-8 答鄭子中	23
自省錄-8A 別紙	24
自省錄-9 答鄭子中	27
自省錄-10 答鄭子中	29
自省錄-11 答鄭子中	32
自省錄-12 答權生好文論樂山樂水	36
自省錄-13 答金惇叙【富倫】	38
自省錄-14 答李叔獻【珥】	49
自省錄-14A 別紙	52

自省錄-15 答黃仲舉【俊良】論白鹿洞規集解【松堂朴公有《集解》，近始刊行.】	58
自省錄-16 重答黃仲舉	64
自省錄-17 答奇正字明彥【大升】	68
自省錄-18 答奇明彥論四端七情分理氣辨第一書	74
自省錄-19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	80
自省錄-20 與奇明彥書別紙【書見上】	86
自省錄-21 答盧伊齋【守慎】	88
自省錄-22 答奇明彥	93

退陶先生自省錄

自省錄-序

“古者，言之不出，恥躬之不逮也。”今與朋友講究往復，其言之出，有不得已者，已自不勝其愧矣。況既⁵⁾言之後，有彼不忘而我忘者，有彼我俱忘者，斯不但可恥，其殆於無忌憚者，可懼之甚也。間搜故篋手寫書藁之存者，置之几間，時閱而屢省之。⁶⁾於是而不替焉，其無藁不錄者，可以在其中矣。不然，雖錄諸書，積成卷帙，亦何益哉？嘉靖戊午端午後一日，退溪老人識。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5월 6일. 禮安.

[文集所在] 〈自省錄【小序】〉(SNW126/序-7)(續卷8:3右)

[編輯考] 이 편지는 문집 續集과 續集草本에 수록되어 있다.

5) 既：上本 ‘其’

6) 之：문집에는 없다.

退陶先生自省錄 卷之一

自省錄-1

答南時甫【彦經】

去春一書後，欲嗣修問，此間往來京師人，率由金遷路，未遇便風，未果也。倅來辱書兼兩詩，承悉近況。前日心恙，正¹⁾因憂患而作，今歷時既久，事往境新，如何？尚未快豁耶？滉暮齒重病，理宜日衰，比前相從之時，又不啻倍甚，鬚髮種種，神疲眼暗，諸證迭侵。頃者，再蒙恩召，適添暑毒，委頓不運，不得已再上辭狀，懇乞鑄罷，物情深非之，謗議沸騰，將獲大譴，幸賴天鑑矜察，下旨溫諭，已替²⁾玉堂，仍付僉知。雖在

▶ 丙辰年（明宗 11, 1556년, 56세）6월. 禮安.

[文集所在] 〈答南時甫【彦經○丙辰】〉(KNL0219/書-南彦經-2)(癸卷14:1右)(樊卷16:1右)
[編輯考] 편지 후반부의 ‘心氣之患……幸甚’은 문집에서는 〈別幅〉(KNL0219A)으로 편집하였다. 그리고 편지 끝에 첨부된 詩는 문집에 수록된 이 편지 뒤에는 없다.
[資料考] 편지 끝에 첨부된 詩는 문집 詩 부분에 편성되어 있다. 〈奉酬南時甫見寄〉(KNP0200/詩-內卷2-172), 〈奉酬南時甫【彦經】見寄〉(KBP0742/詩-別卷1-327) 참조.
[年代考] 初本에는 題下 小註로 ‘丙辰六月’이 있다.

1) 正：樊本·上本 ‘政’

2) 替：中本·樊本 ‘遞’

退陶先生自省錄

野朝銜，大非分義，此則無如之何？天涵微物，得遂屏退，感忤無窮。細讀來喻，知所患亦非偶然，攝治誠不可忽，皆滉素所身歷，其說略具別紙。應吉一家事，聞之怛然忍涕。諸友皆無恙，深荷見喻，以慰遐思。但拙跡如此，死者無以恤孤，存者無時會合，爲可歎耳。

心氣之患，正緣察理未透而鑿空以強探，操心昧方而握苗以助長，不覺勞心極力以至此。此亦初學之通患，雖晦翁先生，初間亦不無此患。若既知其如此，能旋改之，則無復爲患，惟不能早知而速改，其患遂成矣。滉平生病源，皆在於此。今則心患不至如前，而他病已甚，年老故耳。如公青年盛氣，苟亟改其初，攝養有道，何終苦之有？又何他證之干乎？大抵公前日爲學，窮理太涉於幽深玄妙，力行未免於矜持緊急，強探助長，病根已成，適復加之以禍患，馴致深重，豈不可慮哉？其治藥之方，公所自曉。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一切置之度外，不以累於靈臺。既辦得此心，則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如是而凡日用之間，少酬酢，節嗜慾，虛閒恬愉以消遣，至如圖書花草之玩·溪山魚鳥之樂，苟可以娛意適情者，不厭其常接，使心氣常在順境³⁾中，無拂亂

3) 境：樊本‘鏡’[두주 ‘鏡’，傳作‘境’]，上本‘鏡’[두주 ‘鏡’，印作‘境’]；中本에는 [부

以生嗔恚，是爲要法。看書，勿至勞心，切忌多看，但隨意而悅其味；窮理，須就日用平易明白處，看破教熟，優游涵泳於其所已知。惟非著意非不著意之間，照管勿忘，積之之久，自然融會而有得，尤不可執捉制縛，以取其速驗也。見喻涵養體察，吾家宗旨，天理人事，本非二致，善矣。但悟之一字，力主言之，此則葱嶺帶來頓超家法，吾家宗旨，未聞有此。然則向所謂強探助長之患，恐依舊未免也。滉於此病，身親諳悉，言之無疑。其攝養之道，則於身尚未見效，猥言殊愧。但同病相愛，同患相掄，不得不云云，願勿以人而棄言，則於公不能無補也。《晦菴書》，見成七冊，無窮事業，都在其中，但一味力不能趁，而光陰不留，恨不從數十年前做此工夫。願公以滉爲戒，毋以一恙故，中年自廢，以貽晚悔也。盛詩，古風意趣深長。絕句不無可疑，效顰寫呈，千里一笑。土炯已入妙香，公往踵之，以遂壯遊之志，堪羨堪羨。自此益遠，明春還後，枉顧固未卜。苟無替問字，幸甚。⁴⁾ 詩云⁵⁾:

與君不相見，時序去堂堂，幽憂各抱病⁶⁾，寂寞兩韜

전지 ‘鏡’疑‘境’，傳本果‘境’.]이 있다.

4) 心氣之患……幸甚：문집에는 〈別幅〉으로 편집되어 있다.

5) 詩云：문집에는 이하의 내용이 없다.

退陶先生自省錄

光，所希在往躅，所服曾迷方，解牛有餘地，握苗斯自傷，相思欲相勵，關嶺阻風霜，緘辭繫歸鴈，悵望西雲蒼。

右古風。

聖言上達不言悟⁷⁾，功在循循積久中。既說⁸⁾無爲便脫誤，如何自說落禪空？

右絕句。

6) 幽憂各抱病：문집에는 ‘綿延各抱病’로 되어 있고, 柳校 [‘延’, 手本作‘連’.]가 있다.

7) 聖言上達不言悟：문집에는 ‘聖門言達不言悟’로 되어 있다.

8) 說：문집에는 ‘道’로 되어 있다.

自省錄-2

答南時甫

此學全藉朋友切磋之力，吾鄉士友有志者，多緣事故，未能專心於此事，殊闕警益。塊坐山中¹⁾，日有鈍滯之憂，每思前日洛中相從之樂而不可得，正如來喻所云也。但向來所講，大率多墮於渺茫汗漫之域。近讀晦菴書，窺得親切意思，方知其誤。蓋此理洋洋於日用者，只在作止語嘿之間·彝倫應接之際，平實明白，細微曲折，無時無處無不然，顯在目前，而妙入無朕。²⁾初學舍此而遽從事於高深遠大，欲徑捷而得之。此子貢所不能，而吾輩能之哉？所以徒有推求尋覓之勞，而於行處，莽莽然無可據之實矣。延平曰：“此道理全在日用處熟。”旨哉，言乎！

▶ 戊午年（明宗 13, 1558년, 58세）9월 이전 추정. 禮安.

[文集所在] 〈答南時甫〉×別紙(KNL0223A/書-南彦經-6-1)(癸卷14:9左)(樊卷16:10左)

1) 中：문집에는 ‘樊’으로 되어 있다；柳校 [‘樊’，〈自省錄〉作‘中’.]

2) 朕：癸本·日本刻本 ‘朕’；養校 [‘朕’]，李校 [‘朕’，兆也，〈東屏錄〉·〈聲彙〉作‘朕’，音‘진’.]

答金伯榮·可行·惇叙 父喪遷母墓合葬等禮¹⁾

並有喪，所以先輕而後重者，蓋葬是奪情之事，人子之所不忍也，特不得已而爲之，故先輕爾。²⁾ 若改葬，則所謂奪情之義，比於新葬者，則似有間矣。前日問及時，所以謂“與並有喪之禮少異”者，此也。蓋今日之事，既與〈曾子問〉之意不同，則疑可以不拘先輕之例也。然此出³⁾於臆見⁴⁾，正犯汰哉之誚，爲未安。其後歷考諸禮，當喪而改墓合葬之禮，並無據證，而改墓一事，古人皆以喪禮處之，考於瓊山《儀節》，可見。今

▶ 乙卯年（明宗10, 1555년, 55세）윤11월 15일~29일 추정. 禮安.

[文集所在] 〈答金伯榮【富仁】·可行【富信】·惇叙問目【喪禮○乙卯】〉(KNL1352/書-金富倫-12)(癸卷28:9左)(樊卷39:11左)

[編輯考] 別紙는 문집에서는 別紙 표시 없이 행을 바꾸어 편성되어 있다.

[資料考] 이 편지는 金富倫의 문집인 《雪月堂集》卷3에 그 일부가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으로 되어 있다.

1) 日本刻本에는 편지 제목이 ‘答金伯榮【富仁】可行【富信】惇叙【富倫】父喪遷母墓合葬等禮’로 되어 있다.

2) 爾：《雪月堂集》‘耳’

3) 出：樊本·上本에는 없다.

4) 見：中本 ‘度’

與其無據而創行臆見，寧比類於並有喪之例而行之，庶不乖禮意。故繼而有先輕後重之云，正所以救前言之失也。第其日適會病冗，未盡其曲折耳。惟在僉量。

退陶先生自省錄

自省錄-3A

別紙¹⁾

改葬之服，既云“親見尸柩，不忍無服”，則於改葬母也，獨無服而可忍乎？此甚可疑。雖然，竊意人子於父母，情非有間，而聖人制禮，則多爲父厭²⁾降於母者，家無二尊之義最重，故謹之也。其意豈不以五服最輕者總，降總無服，今既以斬衰當總，則齊³⁾衰以下，無服可當，故只以素服行之耶？觀瓊山《儀節》“改葬服”註，惟云“子爲父，妻爲夫”，餘皆素服布巾，而無爲母之文。然則以意加服，亦爲難矣。但今當喪改葬，當處以偕喪之禮，則改葬時仍服斬衰，正得不敢變服之義，非如只改葬母素服未安之意。如是行之，如何？若曾擇之所問，乃指諸父昆弟之喪哭奠所服之節，與偕喪葬禮自不同，故朱子答云云，不當與此合而爲說也。【曾擇之所問，見瓊山《家禮》。】

或曰：“《大明會典》〈孝慈錄〉服制，‘父與母同服

1) 문집에는 별도의 제목이 없이 행을 바꾸어 이어져 있다.

2) 厭：上本 ‘壓’

3) 齊：《雪月堂集》에는 없다.

斬衰.’既服⁴⁾斬衰，則改葬總服，豈不可同耶？”曰：“〈孝慈錄〉服制，即瓊山《禮》所謂今制者，多變先王⁵⁾之制，殊不可曉。未知中國人一遵此制與否。若用斬衰，則總服固當同之，恐終有未合古制之譏耳。”

《禮》：“反葬云云，遂修葬事。”又云：“先葬者不虞祔，待後事。”據此則先改葬畢，但未實土以築，【〈曾子問〉並有喪章小註：“張子曰：‘先葬者必不復土，以待後葬者之入，相去日近故也。’復土，謂實土也。”】其明日治後葬。今若如此，則所喻“奉新喪至墓所，又詣遷墓所”一節，不爲患矣。但改墓十⁶⁾日，未必恰在後葬前一二日，或相去日遠，則未實土多經日，亦爲難矣。若緣此不得已在一日內，則新喪未窆露處，不可無守，留昆季一人奉守，爲當。蓋守喪次爲重，此一人雖未往遷墓所，恐無不可也。葬畢告廟時，則與未窆時不同，皆來告，何如？前云“告廟時素服”，亦出臆見。葬時既不敢變服，至此而變服，似爲未安。但既不可不告，又不可以凶服，不得已代墨衰之例，素服

4) 服：養校〔上‘服’字，本作‘同’〕

5) 王：庚本·擬本‘生’

6) 十：문집과 日本刻本에는 ‘卜’으로 되어 있다.

行之，庶得權宜。但喪冠絞帶，不可入廟，令子弟出主，而以右服奠告，又子弟返主，何如？⁷⁾

奉祀題左之說，從前只見《家禮圖》所題，意謂‘與《大學傳》“序次如左”者同例，蓋據自己向彼而分左右耳’，更不置疑於其間。頃在都下，見一士人嘗游慕齋門下者云：“慕齋謂‘左者⁸⁾指神主左旁而言’。”以慕齋公之該博，其言必有所據，心始疑之。及今示及〈小學圖〉【何氏註】⁹⁾，見其所題正在神主左旁，然後乃知慕齋公亦必據此而言也。又承¹⁰⁾所諭“神道尊右，一櫝內考右妣左，而題奉祀於右，爲未當”之說，【神主之右，即人之左也。】¹¹⁾推究¹²⁾得¹³⁾亦精到，恐當依〈小學圖〉，爲善。【後日又¹⁴⁾考《大¹⁵⁾明會典》，奉祀書神主之右，與《家禮》同。乃更與書烏川¹⁶⁾曰：“此是上國當日見行之禮。”孔子亦曰：“吾從周。請並此參考處之。”烏川¹⁷⁾

7) 何如：《雪月堂集》‘如何’

8) 云慕齋爲左者：《雪月堂集》에는 없다.

9) 何氏註：《雪月堂集》에는 없다.

10) 承：定草本·庚本·擬本·甲本‘得’

11) 神主……左也：《雪月堂集》에는 없다.

12) 究：《雪月堂集》‘考’

13) 得：中本에는 없다.

14) 又：《雪月堂集》‘先生’

15) 大：中本‘天’

16) 烏川：《雪月堂集》에는 없다.

17) 烏川：《雪月堂集》‘云. 是以’

卒從《家禮》書左。】葬後合祭，於古禮無考，則所行節目，皆難義起。今既不能免俗而行之，則當取其稍穩便者爲之。位板，今難厝而後難處，不若紙榜今附櫬內，而後日焚之爲便。或者之說，宜可從也。

《儀禮》：“將啓殯，設奠具於廟門外。及朝祖。”又云：“重先，奠從，燭從，柩從，及正柩于兩楹間，奠設如初，【此疑夕奠，從柩來仍奠於此，故云：“奠設如初。”】質明徹，【徹前奠】乃奠。【上既徹而此云乃奠，此指廟門外奠具，至是乃奠也。】”古禮如此，故《文公家禮》有設奠之禮，【文公意亦似指前奠隨柩來奠，非別奠也。】而瓊山則務簡，既以魂帛代柩，并此禮去之。凡朝祖，所以象平時出告之禮。前奠之隨柩來奠者，奠所以依神，無時可去故耳。非爲朝祖設也，故文公存之。其別爲設奠，則平時出告，未必皆有酒食之事，故文公去之。若瓊山并去二奠，則無乃太簡乎？《儀禮》雖別設奠，猶不奠於祖禰者，死而辭去，無取於奠獻之義也，亦無焚香再拜之文。蓋靈柩辭廟，喪者不可代行也。

《儀禮》“朝祖，正柩于兩楹間，主人陞自西階，柩東西面”，【衆人東即位，衆人，必衆子也。】此非變服而入也。蓋凶服不可入廟，指他祭及他禮而言也。若朝祖之時，柩尚

入廟，何凶服之不可入耶？

“虞祭偶同，則異日而祭，若同日合葬，則虞不必異日。”所疑正然。但¹⁸⁾夫婦一體，虞祭偶同，同日而祭，似不害義。且所謂先重後輕，未必皆非合葬也。然猶必云異祭，此必有深意，不敢強爲之說。然與其徑¹⁹⁾直而行，恐不若從禮文之言，如何？

稱某朔，似當以月建。然嘗考之古文，實皆指朔日之支干。蓋古人重朔，朔差則日皆差，故必表出而言之耳。孤哀之稱，出於後世，故古禮只稱孤子。然文公嘗云“循俗稱不妨”，則并哀字稱之，無所害矣。等字不當書之。獨稱主人，此乃尊祖敬宗之義，衆子所不敢參稱也。

虞祭漸用吉，禮文稍備，著網巾，似當，而禮文無據，故今人不用。蓋網巾亦出於後世，故禮文不載耶？未可知也。但又有一事，〈喪服小記〉云：“總·小功，虞·卒哭則免。”又云：“既葬而不報虞，則雖主人皆冠，及虞則皆免云云。”此言既葬而有事故未得虞者，【即不報虞也。】且冠以飾首，及虞則主人至總·小功者皆免也。免者，去

¹⁸⁾ 但：定草本·庚本·擬本·甲本‘且’；養校【‘且’，本作‘但’。】

¹⁹⁾ 徑：中本·樊本‘經’

冠而以布繞髻者也，比於冠則免乃哀飾也。虞·卒哭乃去冠而用免者，喪事主哀，故雖漸吉而反用哀飾也。以此言之，虞不用網巾，似無妨也.²⁰⁾

20) 문집에는 뒤에 몇 조목의 내용이 더 있다.

答鄭子中【惟一】

夫士之所病，無立志耳。苟志之誠篤，何患於學之不至而道之難聞耶？雖然，以公如是之志願，而不得夫一世有道之君子以親依之，顧乃過自貶損，以有叩於如澠慙慙之人，豈非公爲不幸而澠爲愧懼之甚耶？向者於公，固有一二往復之言，今來諭則非但講疑，所云大非其宜。古人之執禮愈恭者，施當其可，而卒能有成，所以爲貴。不然，其爲愈恭，豈不適足爲笑罔耶？況無實盜名，古者比之穿窬，澠所以尤不欲得此於梁·楚之間也。雖然，公云“不懼世譏”，若只是朋友講學之名，則澠亦安能盡避乎？故從前犯笑侮論學，自不爲少。請公去他名而講所疑，其亦可乎。¹⁾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2월~3월 추정.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惟一○丙辰】〉(KNL1032/書-鄭惟一-3)(癸卷24:1右)(樊卷33:2右)

1) 初本에는 [부전지 此下無他語否?]가 있다.

自省錄-5

答鄭子中

春盡不得聞問，僧來辱教，承悉近況。所云承家幹蠱，不免反爲所累，因此省悟，思所以勇改者，甚善。然於愚意，猶有所未盡也。蓋嘗聞之，古人所以爲學者，必本於孝悌忠信，以次而及於天下萬事盡性·至命之極。蓋其大體無所不包，而其最先最急者，尤在於家庭唯諾之際，故曰：“本立而道生。”今以幹蠱之故，至妨於爲學之功¹⁾，無乃與古所云者有異乎？然則其所以承幹者，得無緩於義理而急於營爲，故馴至於此耶？請無改其名，而改其所從事之實，自承順權奉之餘，一切唯盡義理之所在，則其向所營爲者，未必不在其中矣。如其節目之詳，具在方冊，在審擇而力行之如何耳。所可懼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4월 11일.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KNL1033/書-鄭惟一-4)(癸卷24:1右)(樊卷33:3右)

[資料考] 이 편지는 《文峯集》 卷3에도 그 일부가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으로 되어 있다.

[年代考] 初本 題下 小註에 ‘四月十一日’이라 했다.

1) 功：初本 ‘工’

者，今之所謂頓減者，不能保於後日，如先正所戒“野火燒不盡，春風吹又生”耳。滉病患如前，讀書躬行，皆不能十分用工，又無朋友切磋之益。時復思之，懍惕靡容。《朱子書》，今幾寫畢。每一人寫來，隨將元本校正，病中頗費²⁾心力。然因此不無見到親切處，真覺聖賢不我欺也。而難形於紙墨以告人，又未知天假幾年於此做得晚境工夫也。心爲太極，卽所謂人極者也。此理無物我，無內外，無分段，無方體。方其靜³⁾也，渾然全具，是爲一本，固無在心在物之分。及其動而應事接物，事事物物之理，卽吾心本具之理，但心爲主宰，各隨其則而應之，豈待自吾心推出而後爲事物之理？北溪在朱門，最精於窮理，豈不知此而云哉？但於此，下一出字，似微有如來喻所疑之嫌，乃語言小疵，善讀者以意逆志，自無所礙。恐不當云“自在心者片片分來”也。且來喻“在心在事只是一理”者，得矣。但又云：“所謂一本者，指理之總腦處，非指在心者。”夫既曰“只是一理”，則理之總腦，不在於心，更當何在？但須知在心在物本無二致處，分明透徹，然後始爲真知。苟爲不

2) 費：上本‘煩’

3) 靜：上本‘正’

然，謾曰“只一理”，則恐於一本萬殊處，猶有所未瑩也。此滉前日每云“理字難知”者，此也。如何如何？《通書》“闇者求於明”，“篤其實而藝者書”，及朱子“體有偏正”之論，皆已得之。“幾動於彼，誠動於此”，彼此二字，果爲可疑。鄙意幾者動之微。感物而動，故於幾言彼；誠者理之實，自內而發，故於誠言此耳。“有善不及”，是設問，其下當有如之何等辭，而今無之，此濂溪立語太簡處。然此自吾東人以辭吐讀之，故爲難爾。若如⁴⁾漢人既無辭吐之拘，則但曰“有善不及”，卽係以曰以下之文，有何不可乎？“動靜”首節·次節，但以形而上下者，分言有方體者有滯超形器者莫測之意。今以“分之一定命之流行”言之，恐未安。熟玩註解說，可見。凡此皆以臆見率爾奉告，不知可否？如有悖理，悉以反教，以資講益，幸甚。

4) 如：上本‘使’

答鄭子中

今因景昭¹⁾，知自山回。想靜中讀性理書，所得超詣，恨不得聯牀講究以祛蔽惑²⁾也。前論“心爲太極”，北溪之說，細思之，終是有病。但以延平謂朱子“從此推出分殊處爲非”之說。朱子《大學或問》補亡章，“心主一身，理在萬物，互爲體用”之論及程子“他人食飽，公無餒乎？”等說推之，可知北溪之說爲未穩。公能悟其語病，甚不易也。貳相疏儀納呈。僕近日脹痞頻作，不得盡力於此事，如此。疏儀，雖甚愛之，亦不得傳寫，可歎其衰之甚也。《晦庵書》，諸人今已畢寫，託李大用粧績³⁾，未來。了此一事，閒中大幸，但精力如此，未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4월 29일(그믐).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KNL1034/書-鄭惟一-5)(癸卷24:4右)(樊卷33:6右)

[編輯考] 문집에 있는 주신 부분을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資料考] 이 편지는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 卷3(韓國文集叢刊42, p.202)에도 그 일부가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으로 되어 있다.

[年代考] 初本 題下 小註에 ‘淸和晦日’이라 했고, 定草本에는 ‘丙辰四月’이라 쓴 부전지가 붙어 있다.

1) 景昭：上本 ‘景照’

2) 惑：上本 ‘惑’

知其終有絲毫之益與未也.⁴⁾

3) 績：初本·中本 ‘潢’

4) 也：문집에는 뒤에 추신이 있다.

答鄭子中

細詳來示，每有一病，輒能知有其藥。朱子所謂“卽此欲去之心，便是能去之藥”者，公皆¹⁾得之矣。恐更不須問人，但能默默加工，向前不已，積習久久，至於純熟，則自然心與理一，而無隨捉隨失之病矣。程子曰“學貴於習，習能專一時方好”，又曰“整齊嚴肅則心便一，一則自無非僻之干”者，正謂此也。然其習之之方，當如顏子非禮勿視聽言動，曾子動容貌·正顏色·出辭氣處做工夫，則庶有據依而易爲力。至於眞積力久而有得焉，然後“三月不違仁”，及“一以貫之”之旨，可得而議。今來諭則不然。患操存之不能常，則驗鼻息於虛靜，論此心之未發，則疑知覺之有無，而深以把捉收拾爲難。竊恐就此而習操心，愈見紛擾，而無寧息之期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5월.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別紙〉(KNL1035/書-鄭惟一-6)(癸卷24:9右)(樊卷33:7右)

[年代考] 初本 題下 小註에 ‘五月’이라 했다.

1) 皆：癸本·甲本에는 [두주 一本, ‘皆’下有‘已’字.]가 있다；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已가 있다；擬校 [‘皆’字下, 手本有‘已’.]

矣。故程子每以坐忘爲坐馳，而其答蘇季明未發之問，反覆論辨，而卒之不過以敬爲言。朱子之論中和，亦曰：“未發之前，不可尋覓，已發之際，不容安排。惟平日莊敬涵養之功至，而無人欲之僞以亂之，則其未發也鏡明水止，而其發也無不中節矣。”今以此語，觀來諭之云，其尋覓安排，亦已甚矣，無乃有乖於莊敬涵養而積²⁾久有得者耶？至於未發之前知覺有無之說，朱子〈答呂子約書〉，論之詳矣。兼情意·理氣之辨，來諭亦不能無可疑。適此病倦，來使回晚，姑俟後便。

2) 積：上本‘精’

答鄭子中

足下於學¹⁾，既知其方，又知其病之所在，苟能持²⁾進銳退速之戒，不已其功，久久習成，質變而仁熟，庶幾得見人生一大歡喜事，正恐欲速不得也。觸處皆然，當處便行，但見得如此，未行得到此，深愧聖門“先行後從”之訓也。來示³⁾欲須靜處專一下工，此又似不盡然也。若如應俗紛紛，則果有妨學之時，如家庭日用事，則無非所以立大本專一用功之地，且靜處專一非難，鬧處專一爲難。若必要靜工，則所謂《雜儀》者，【子中集先賢格言，爲《日用雜儀》。】⁴⁾亦殆爲緩歇第二件事，其⁵⁾可乎？⁶⁾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8월 2일.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KNL1038/書-鄭惟一-9)(癸卷24:10右)(樊卷33:13左)

[資料考] 이 편지는 부분적으로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실려 있다.

[年代考] 初本 題下 小註에 ‘八月初二日’이라 했다.

1) 足下於學：문집에는 앞에 내용이 더 있다.

2) 持：上本 ‘指’

3) 示：初本 ‘教’

4) 子中……雜儀：中本·樊本·上本에는 있으나, 문집 목판본에는 없다.

5) 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있으나, 문집 목판본에는 없다.

6) 乎：문집에는 뒤에 내용이 더 있다.

自省錄-8A

別紙

“在心在事”之說，看得透．知此，則理之難知處，漸可融會矣．日在地下，亦當明曜，只看其光之能射出而爲月之明，則可知矣．然冬爲四時之陰，地下爲地上之陰．地上日景，至冬而差微者，日非微也，窮陰使然耳．然則大地積陰之下，雖有光景，與出地爲晝者當有間，故《易》以“明入地中”爲明夷也.¹⁾

“惻隱之心，人之生道”，程子此一段語，朱門辨說三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7월 추정.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別紙〉(KNL1037/書-鄭惟一-8)(癸卷24:6右)(樊卷33:10右)

[編輯考] 이 別紙는 현재 문집 통행본에는 〈答鄭子中別紙〉로 따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自省錄》에서는 이것이 앞의 편지의 別紙인 것처럼 편성되어 있다. 정석 태는 1556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月日條錄》)) 《自省錄》에는 산절되어 있으나 문집에 실린 앞의 편지 말미에는 “格物說, 未敢輕易” 운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 편지에서 “在心在事之說, 看得透” 운운하는 것과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원래 별도의 편지였던 것을 내용상 연속성이 있기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일 수 있다.

[資料考]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3에도 실려 있다. 제목은 ‘上先生問目【丙辰】’으로 되어 있다.

1) 日在……夷也 : 문집에는 별행으로 편집되어 있다. 그런데 定草本에는 여기에서처럼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條。詳見下文，可考也。蓋此生字，只是生活之生，“生生不窮”之義，即與天地生物之心貫串，只一生字，故朱子答或問“天地生物之心”，曰：“天地之心，只是箇生。凡物皆是生，方有此物。人物所以生生不窮者，以其生也。才不生，便乾枯死了。”以此觀之，桀·跖不能無是以生，亦是生活之生耳。來諭以爲生出之義，又以爲動用之意，恐非本意也。

心體包含，無所不具。仁固心之德，智亦不外於心德。知覺，智²⁾之事，故謂之心之德，何疑之有？

“稟氣之惡，亦性之理也。”此語似可駭，然程子以來，論此理非一。蓋性比於水，清而安流，水之性也。其遇泥滓而污濁，遇險而波濤洶洶，非其性也。然不可不謂之水，特所值者異耳。然則稟氣之惡，雖非性之本然，豈不可謂性之理耶？來諭謂“陰氣生於理而陰爲惡”，以此爲惡亦性之證。此則恐未然。夫謂惡爲陰者，以淑慝之類分之，以爲當屬乎此耳，非謂生於理之陰氣必爲惡，亦能由是而爲人物之惡也。若如此說，是惡之生，亦原³⁾於性，與善相對出來。其可乎？

2) 智：擬本·《文峯集》‘知’；擬校[‘知’字本‘智’字.]

3) 原：樊本·上本‘源’

“氣之始，無不善”，乃氣生源頭處，非稟受之初也。然氣有一日之始，有一月之始，有一時之始，有一歲之始，有一元之始。然此亦概舉而言之耳。推來推去，其變無窮，當隨處活看，不可執定爲某氣之始。苟指認一處爲定則不通，不足以語造化之妙。

程子“心本善”之說，朱子以爲微有未穩者，蓋既謂之心，已是兼理氣，氣便不能無夾雜在這裏，則人固有不待發於思慮動作，而不善之根株，已在方寸中者，安得謂之善？故謂之未穩。然本於初而言，則心之未發，氣未用事，本體虛明之時，則固無不善。故他日論此，又謂指心之本體，以發明程子之意，則非終以爲未穩，可知矣。

非性則亦無自而發，猶之非水則何自而爲波濤耶？

“氣有生死，理無生死”之說，得之。以日光照物比之，亦善。然日光猶有時而無者，以有形故也。至於理，則無聲臭，無方體，無窮盡，何時而無耶？釋氏不知性之爲理，而以所謂精靈·神識者當之，謂“死而不亡，去而復來”，則安有是理耶？⁴⁾

4) 耶：문집에는 뒤에 한 조목이 더 있다.

答鄭子中

前月中，騫姪傳書，具悉佳況．端午後，能復還山否？滉平生不幸之極，虛名欺世，老病益甚¹⁾，以至上誤天聽，旬月之間，再蒙召旨，駭窘戰惕，不知所出．初欲冒恥奔走，適苦河魚殊劇，勢難昇行，又於私心，極有所難者，不得已昧萬死，再上辭狀．今聞物論深以爲非，未知終如何？日夕危慮，以俟譴罰之至．今世進退之難如此，奈何奈何？來書稽報，亦緣此無聊之故，愧愧恨恨．²⁾示喻以事過多悔，歸於踐履之未得力．又云：“格物致知，亦非歲月工夫可至，因以知欲速之妨於進學．”可見自飭勵之意．本領如此，更加不能不措之功，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6월 28일.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KNL1036/書-鄭惟一-7)(癸卷24:5右)(樊卷33:8左)

[資料考] 이 편지는 그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年代考] 初本에는 ‘六月二十八日’라는 題下 小註가 있는 반면에, 定草本에는 ‘丙辰五月’라 적힌 부전지가 붙어 있다. 착오가 있는 듯하다.

1) 甚：庚本·擬本·甲本‘深’；甲本에는 [두주 ‘深’, 一本作‘甚’.]가 있다；擬校 [‘深’本作‘甚’.]

2) 愧愧恨恨：初本·中本·癸本·樊本·上本‘愧恨愧恨’；定草本에는 [부전지 {‘愧愧恨恨’}本作‘愧恨愧恨’.] [추가 {鄭}司諫家藏.]가 있다.

遲以數十年之久，氣質之難變者，豈不可變？此道之難聞者，豈終不可聞耶？如滉者，憊懔日甚，雖知此意，不能痛下工力，凡與朋友往復之言，恐卒歸於空言也。比來，點檢平日應接之間，流徇敝俗，因自失己者，十常六七。見示“知處世之難，且嘆規矩之嚴，外銷中³⁾變”等語，此在吾輩，非小病也。所當亟改，但改之亦非易事。只以言語一事言之，其曲折正如所喻。然如此預作閒安排，不濟事，只當敬以無失，涵養深厚，而發於應接者，不敢輕易放過，至於久久漸熟，則自然已無所失，而應人中節，雖有所不合，人亦不甚怨怪也。如何？秋涼，惟珍鍊。不宣。

3) 中：上本‘內’

答鄭子中

滉病作止無定，衰老目昏，漸不辨細字。時有一二來問之人，率皆舉業，覺無益於彼己。有漢城人金命元，來此讀《易》。象數之學，雖亦爲性理之源·玩養之助，然於身心日用工夫，不甚親切。每日講究數卦，便覺疲倦，無精力可及他書，殊浪過了日子。忽蒙來喻，未敢率易¹⁾而復之，增愧增愧。況凡此衆理，來意已自得之耶？但所云流行日用者，千條萬緒，儘無窮，自事親以及萬事萬物，儘多端。以無窮處多端，一一恰好，非窮理居敬之極功，卒難致之。故觀古人爲學，雖乾乾惕厲，靡容一息之間斷，然亦必積累工程，持以悠久，優游厭飫，然後所知所行，自然循次而有得焉。竊矚公之於此學，似有急迫求之之病，故未免於計較近功，而恒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10월 6일.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KNL1039/書-鄭惟一-10)(癸卷24:11左)(樊卷33:15右)

[年代考] 初本 題下 小註에 ‘陽月初六日’이라 했다.

1) 易：養校 [‘易’恐‘爾’.]

有戛戛難行之慮．竊恐似此不已，駸駸然入於私意，反害於義理之實，非細累也．且事親節目，無非天衷所在，至理所寓．量古今之宜，至誠溫謹，以漸而行之，安有上拂²⁾親意³⁾而下爲一家之驚怪乎？其不免有拂⁴⁾親意而爲驚怪者，得非亦由於急迫，求之爲之太銳之故耶？亦無乃不量所宜，行之無漸，其迹太露而然耶？行有不得，反躬自訟，固不可無，然至曰云云則過矣．以此意象，行於家庭之間，宜其有所謂云云之患也．橫渠曰：“事親奉祭，豈可使人爲之？”躬親甘旨，乃事親中緊要事．其以謂妨於學業而勸止者，亦異於餘力學文之旨矣．但末俗刳敝，人家子弟鮮有行之者，一朝卒然每親調膳，或未爲親意所安，則亦當隨宜⁵⁾斟酌，以漸成慣．要在自盡其心而無忤親意，可也．若率意驟作，反致違拂，則所爲雖善，恐非養志之道也．滉風樹悲懷，終天罔訴，其於辱問，雖不敢自外而妄對，深有所戚戚然也．至於操存節度・正助病痛，所喻皆當．滉亦嘗粗窺此意，行之不力，未有一得，不能加一辭於其間．在

2) 拂：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拂’；定草本에는 [추가 ‘拂’本作‘拂’.]이 있다.

3) 親意：中本‘意’

4) 拂：初本‘拂’

5) 宜：樊本・上本‘意’

公力行而究竟之耳。丘瓊山所見，誠不可曉。大抵三代以下，士大夫進退之義，莫善於宋朝諸君子。瓊山獨非議之如此，其亦陋矣。而欲論此事，爲說甚長，今不暇⁶⁾悉也。丁景錫處與書，未知何所言，後日可得寄來相示否？彼或有復書，亦望見示爲幸。滉於此人，甚愛之重之，意謂不乖於終始。但來鄉後只得一書，其後寂然，此必有所以然，非其人有所差池也。⁷⁾今公至都下，必一相見，爲我亦略致意。然公方布衣，滉在閒廢，其於新得路之友，若徒以愛重其人之故，過爲汲汲憧憧，則不無自失之悔，此則所不可不知也。滉前所云云，亦慮此故耳，非設畦畛於道義之朋也。

6) 暇：上本‘可’

7) 也：擬本‘池’；擬校[‘池’本作‘也’字.]

自省錄-11

答鄭子中

滉孤陋日甚，雖不忘¹⁾舊業，正苦疲劣，不能自力於做工，日夕懔然而已。權好文與審姪見在清涼，而孤山菴則安東 權春蘭與滉從孫宗道來寓。但此菴距此殊不近，溪路冰雪阻塞，頗以往來爲艱。公來此本無益，若寓此菴，又有此²⁾礙，尤未穩耳。學非一蹴可到，誠然，而又云：“向時期功於一二年。”若用意如此，真是疎脫。此事乃終身事業，雖到顏·曾地位，猶不可言已了，況其下者乎？心氣之患，滉乃曾傷於虎，前已屢進藥說。其不服驗，而復有如何之問，何耶？病之所起，公自知之。今若就心上求去此病，愈去而愈撓，不勝其勞撓，而成大病矣。且公於此學，已略見得路脈入頭處，不須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 12월 7일. 禮安.

[文集所在] 〈答鄭子中〉(KNL1040/書-鄭惟一-11)(癸卷24:13左)(樊卷33:19右)

[資料考] 이 편지는 《文峯集》에도 내용 일부분이 실려 있다.

[年代考] 初本 題下 小註에 ‘臘月初七日’이라 했고, 定草本에는 ‘丙辰冬’이라 쓴 부전지가 붙어 있다.

1) 忘：上本 ‘妄’

2) 此：樊本·上本 ‘自’

更加許多強探索，許多閒安排。所謂操存·省察工夫，權且勿上念，只看日用平常明白處，寬著意思，游泳其間，虛閒恬愉以自養，如朱子〈調息箴〉之爲者，及夫歲月積久之餘，非徒心恙自然有效，收斂·操存之實，亦不能無得力於此矣。所云“操存·省察勿上念”之說，非謂學者常法爲然，只是心恙必如此然後可安也。況此道理，無間內外。凡致謹於外，乃所以涵養其中也。故孔門未嘗言心學，而心學在其中。滉當時無引喻之人，不知此理，徒畏心恙，而遂全然放下了，坐失數十年光陰，是所恫恨。公當視以³⁾爲戒也。矯揉氣質，在我不在人，固不易之論，然嚴師畏友，日與之處，其薰陶切磋之益，亦豈少哉？景昭，善人之未學者，誠可惜也。吾鄉，却多文學之士，但皆梏⁴⁾於舉業，其讀書率皆匆匆趁逐，未有回頭住脚料理此事之意。雖趙士敬輩不無有意，亦不⁵⁾免移奪於此，相見無甚講論，無大段相資之益。唯李大用深用力於《朱書》，今已寫畢，逐一勘過，思索儘得到底。又有金惇叙爲學亦甚力，每事必欲求其是處，亦有意於《朱書》。但其人厄會非常，長在

3) 以：樊本·上本‘而’

4) 梏：樊本·上本‘括’

5) 不：初本‘末’

憂患中，不得專意此事，爲可歎耳。窮而買田，本非甚害理，計直高下之際，約濫從平，亦理所不免。但一有利己剋人之心，便是舜·跖所由分處。於此，亟須緊著精采，以義利二字剖判，才免爲小人，卽是爲君子，不必以不買爲高也。然此等事，留心之久，易陷人於污賤之域，切宜常⁶⁾激昂，庶不墮落也。體用之說，甚善。惻隱，情也，其未發則性也。若所謂性之流行卽情，是耳。豈情外別有性之流行耶？放⁷⁾失亡三字，固指已發後言，然梏之反覆，夜氣不足以存，則清明純一之體，十分昏鑿，謂之不亡，可乎？延平有“無主”之說，朱子亦譏《樂記》之語，謂“天理不待好惡無節而後滅”，皆此意也。惟其日夜之所息不窮，故雖亡而有未嘗息者存，能隨感而隨發，如未嘗亡耳。心纔覺其放，便在於此。此亦先儒已論之，來說皆然。但以“既屈方伸，往過來續”爲比，則爲衍說耳。游定夫倍師從夷之惑⁷⁾，至此爲極。“如遇孟子，恐異於曾子”之歎，不獨發於陳相也。可怪可嘆。朱子初得陳安卿，甚喜之，屢稱於朋友間。蓋其學長於辨說，門人鮮及之者。惜其局於所長，不屑

6) 常：문집 제 판본에는 뒤에 ‘自’가 있다. 中本·樊本·上本에도 뒤에 ‘自’가 있지만 또한 [소주 《錄》無‘自’字.]가 있다.

7) 惑：上本 ‘惑’

踐履工夫，正所謂“智者過之”也。嘗於講席，先生覺其有誤處，欲極論以曉之，他便隱其說。以是觀之，其心術隱微之間，病亦不少，不但其言之少餘味也。然先生所謂“所行與所知相反”者，未必專爲安卿發也。似泛指門人而戒勵之耳。滉嘗竊怪朱子發程門所未發，而門人得力，不及於程門人。亦如孟子發前聖所未發，而萬章·公孫丑之徒，不及於游·夏，未知此何故也。雖然，此自傳道一大事言耳。其相與發明斯道之功之盛，亦豈獨朱子一身之力哉？一時及門之士，隨材成就，傑然樹立者，不可勝數。傳相授受，以至於元·明之世，而扶植斯文者，不絕如彼。此又不可不知者也。胡致堂事，人倫大變，其所處亦甚未安。然以文定爲父，而一時師友，皆大賢之人，致堂爲人，又極剛正，直道而行，豈無禮義而妄⁸⁾爲之乎？恐既養於嫡母，則所生母爲其所厭，如人君入繼大統，則不得顧私親之義，故不得不然耳。丁景錫無答書耶？頃因窩兒寄一書來云：“年來大病廢業，不意入仕，尤有礙。今病稍蘇，稍繙習古書。”其書欲奉寄，偶尋不得，未果耳。

8) 妄：上本‘忘’

自省錄-12

答權生好文論樂山樂水

樂山樂水¹⁾，聖人之言，非謂山爲仁而水爲智也，亦非謂人與山水本一性也。但曰：“仁者類乎山，故樂山；智者類乎水，故樂水。”所謂類者，特指仁智之人氣象意思而云爾。觀朱子《集註》兩下‘有似’字以釋之，可見其意。故其下文‘動靜’之訓，亦以體段而言；‘樂壽’之義，亦以效驗而言，皆非眞論仁智本然之理也。故吾恐聖人之意，豈不以仁智之理微妙，人未易曉？故於此或指其氣象意思，或指其體段效驗，而反覆形容之，欲人因可象而求其實，以爲指²⁾準模範之極耳，非欲其就山水而求仁智也。故吾以爲欲知二樂之旨，當求仁智者之氣象意思，欲求仁智者之氣象意思，亦何以他求哉？反諸吾心而得其實而已。苟吾心有仁智之實，充諸中而暢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10월 추정. 禮安.

[文集所在] 〈答權章仲【好文○丙辰】〉(KNL1871/書-權好文-4)(癸卷37:11右)(樊卷53:1左)

1) 樂山樂水：문집에는 앞에 내용이 더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2) 指：養校 [‘指’恐‘標’.]

於外，則樂山樂水，不待切切然求而自有其樂矣。今不知務此，而徒見其巍巍然蒼蒼然者，曰吾以是求仁者之樂；混混然滔滔然者，曰吾以是求智者之樂，吾恐其莽莽蕩蕩，愈求而愈不近矣。故謂仁者似山則可，謂仁爲山之性則非，仁所以爲仁之全體也；謂智者似水則可，謂智爲水之性則非，智所以得名之本意也。細看來喻，知人與山水之性本一，而不知其分之殊，一失也。謂體山水之動靜，而行仁智之道，非聖言之本旨，二失也。若能知去此二失，而就《集註》之說，反覆研究而有得焉，則可以信吾言之不誣矣。今且以講於仁智之實而言，必須先將平日私意強探揣摸安排之習，一切掃去，只就聖賢言仁智處，虛心平氣，熟讀精思，反覆體驗，令二字義理界分，各有著落，聖賢旨意，與吾身心性情，脗合無疑，而又旁推衆說以盡其趣，習於日用以踐其實，此乃敬以存心·精以讀書之事。其間有多少工夫，有多少階級，若不忍辛耐煩，用得十分精力，未易窺其藩籬，況入其門庭乎？吾一生悠悠至老，略聞如此，而徵信於經傳，日思企而不及者，因生之問而不敢不告者，亦以吾之於生，義不當有所隱也，不知生其能信之乎？³⁾

3) 乎：문집에는 뒤에 내용이 더 있다.

自省錄-13

答金惇叙【富倫】

向示疑目，義理微隱。如滉淺識，卒難剖析，加以中間，偶失元目所在，久未報答。近方搜得，僭以愚見質之前言，逐一評註，呈稟可否，如有未當，復以見喻。幸甚。大抵人之爲學，勿論有事無事有意無意，惟當敬以爲主，而動靜不失，則當其思慮未萌也，心體虛明，本領深純，及其思慮已發也，義理昭著，物欲退聽，紛擾之患漸減，分數積而至於有成，此爲要法。今不務此，而以應接時自然思生爲可，則是欲其無事時絕無思慮也。以有意思之爲心害，則是必欲如聖人無意而思，乃不爲心害也。欲絕思慮，近於坐忘，無意而思，又非大賢以下所可躡至，恐皆非也。況所云“纔思便有私意”，自本心陷溺之人言之，固如此。若以義理論之，私意之生，

▶ 丁巳年（明宗12, 1557년, 57세）7월 추정. 禮安.

[문집 해제] 〈答金惇叙【丁巳】〉(KNL1359/書-金富倫-19)(癸卷28:16左)(樊卷39:13 {23} 右)

[資料考] 이 편지는 金富倫의 문집인 《雪月堂集》卷3에도 그 일부가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으로 되어 있다.

豈可以爲思之罪也？孟子曰：“心之官則思，思則得之，不思則不得。先立乎其大者，其小者不能奪也。”是則凡人私意之生，正爲不思故也。今反謂纔思便有私意，語意亦未精審¹⁾也。思明思聰等事，合在一時，思一不思二之疑，此則切問也。而“用力之久，自然各當其理”等語，亦甚善。但所云“一事方思，雖有他事，不暇思之”，此亦心無二用，主一工夫當然。然一向如此說，恐又有礙理處。且如今²⁾人亦有視聽偕至·手足並用時節，苟一於所聽而所視全不照管，一於手容而足容任其胡亂，則奚但於事，一得一失而已？其不照管任胡亂處，可見其心遇此事，當應不應，頑然不靈，便是心失其官³⁾處。以此酬酢萬變，豈能中節哉？故鄙意程子所謂“九思各專其一”，是就一事上，說心無二用之理耳。若遇衆事交至之時，或左或右，一彼一此，豈可雜然而思，旋思旋應？只是心之主宰，卓然在此，爲衆事之綱，則當下所應之事，幾微畢見，四體默喻，曲折無漏矣。所以能然者，蓋人心虛靈不測，萬理本具，未感之前，知覺不昧，苟養之有素，固不待件件著思，而有旁

1) 審：《雪月堂集》‘深’

2) 今：中本에는 [부전지 {‘今’, 一本}作‘令’.]이 있다.

3) 官：上本‘管’

照泛應之妙。“師冕見，及階，曰：‘階’，及席，曰：‘席’，皆坐，曰：‘某在此。’”主於言思忠，未必兼於視思明，而所視自中節矣。“君召使擯，色勃如，足躩如。揖所與立，左右手，衣前後襜如。”此主於事思敬，未必兼於色貌手足，而周旋之頃，各自中其節矣。不獨在聖人爲然，中人以下，亦不可謂盡不然也。但隨所稟所養之粹駁淺深，而有分數耳。故朱先生答呂子約主一·主事不同之問曰：“主一只是專一。無事則湛然安靜而不驚於動，有事則隨事應變而不及乎他。是所謂主事者，乃所以爲主一者也。若是有所係戀，却是私意。必有事已過而心未忘，身在此而心在彼者，此其支離畔援，與主一無適，非但不同，直是相反。”蓋嘗以是深思來喻之意，以爲一可以御萬，萬不可以命一。故心能主宰專一，則有不待思而能隨事中節，即朱子前說，是也。若徒曰“一事方思，不暇他事”，則恐未免反爲此事所累，如後說係戀之私意，而成支離畔援之病也。

“事無善惡大小，皆不可有諸心中。”此有字，泥著係累之謂。正心助長，計功謀利，種種病痛，皆生於此，故不可有。若如三省之類，有事於心，即孟子所謂“必有事焉”之有。此豈所當無耶？如欲并此而無之，則自堯·

舜·禹·湯‘精一·執中’，顏·冉“請事斯語”，皆可廢，而必如佛·老枯槁寂滅而後，爲學之至也，奚可哉？然此一事字，亦難看得。如延平先生所謂“非著意，非不著意”，即此事字之意⁴⁾也。

靜而涵天理之本然，動而決人欲於幾微。如是真積力久，至於純熟，則靜虛動直，日用之間，雖百起百滅，心固自若，而閒⁵⁾雜思慮，自不能爲吾患。彼莊·列之徒，徒知厭事求靜，而欲以坐忘爲道之極致，殊不知心貫動靜該事物。作意忘之，愈見紛拏，至其痛絕而力滅之，則流遁邪放，馳驚於汗漫廣莫之域，豈非坐忘便是坐馳也歟？然來喻懲此而欲以思慮隨生隨遣爲用功之地，而求至於頓無妄想雜念，則恐亦不免於坐馳之患也。故程子曰：“入道莫如敬。”

明道寫字時甚敬，固非要字好，亦非要字不好，但敬於寫字而已。字之工拙，隨其才分工力而自有所就耳。此即“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之見於事者，乃聖賢心法如此，不獨寫字爲然也。故朱子亦曰“一在其中，點點畫畫，放意則荒，取妍則惑”，所謂一，即敬

4) 意：《雪月堂集》‘義’

5) 閒：擬本‘間’

也。來喻謂“欲使學者不必工於書藝”，此非程子之意，而又云：“故爲不好。”其去程子之意，益遠矣。

乘馬行路，情境在此，口占詠物，即此身心所接之事，何疑於主敬之法乎？此與讀書時在讀書，著衣時在著衣者，不見其有異也。“東望不堪頻極目，歸心已度鳥飛前。”若人主心不定，逐物飛馳，如《或問》論“仰面貪看鳥”，以謂⁶⁾身在此而心馳於彼，血肉之軀，無所管攝，則果如所喻。若先生之心，則如明鏡在此，物之過者，自無不照，非鏡逐物而照也。蓋物過而照者，如大明中天而萬象普照。逐物而照者，如日下逐一物，而入於陰崖之裏·蔀屋之下。此其言相似而大不同也，何可以彼而疑此乎？

“讀書，句語中看何字要切？”如人讀書，不知看大意，必先以何字要切之意橫在肚裏，則不無如來喻之患。若能如先生讀書法，循序致一，熟讀精思，優游厭飫，力久功深，到得無味中有味，無緊要中有緊要，則此語豈有牽合之病？來喻云云，似見人之噎而欲廢天下之食也。

“以出門如賓，承事如祭，恐爲心害。”此說大誤。苟如

6) 謂：定草本·庚本·擬本·甲本‘爲’

此，從古聖賢戰兢臨履，日夕惕若者，皆爲心害，而必如原壤夷俟·莊周滅禮·東坡打破這敬字而後，心得其養耶？

求諸己，求諸人，此君子小人用心之所由分也。見人之善惡，而尋己之善惡，正是君子反求諸身，遷善改過，點檢矯揉處，私意何所容乎？所惡於方人者，不務修己，而較短長於他人，其心外馳，而自治轉疎故耳。與此⁷⁾思齊·自訟者，用心自不同也。

所引朱子及樂正子春兩語，所疑甚當。【朱子曰：“聖人視天下猶一家，中國猶一人，不能一日忘也。”樂正子春曰：“君子一舉手⁸⁾一舉足，而不敢忘父母。”若每以不忘爲意，則便害於心，如何？】此難以言喻，須熟玩〈西銘〉之旨，識得仁體，則自知此兩語之味。蓋仁者之心，本自如此，非以不忘爲意，然後不忘也。然亦須於自家心得其正時，親切體驗，實見得‘乾父坤母，民胞物與，涵渾惻怛，無內外遠近之間，事親事天，真是一理，舉目莫非此事，靡容一息之停’意思分明，方知此非強設之言也。不然，假使真能如子春之言，要止是篤於孝行之人爾。若於朱子之言，則又莽

7) 與此：養校 [‘與此’當乙.]

8) 一舉手：癸本에는 [두주 ‘一舉手’三字, 一本無.]가 있다；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莽蕩蕩，無交涉，不近情，而流於墨子之兼愛矣。

論人長短爲不可者，恐使人益長險薄之習耳。其本於忠愛而辨別是非，則自古聖賢，論當世人物長短，自不爲少⁹⁾，何可概謂之不美，而一切禁斷耶？但觀其心之¹⁰⁾所在如何耳。故程子論格物之學，亦以是爲言。來示謂“今字帶於古字”，如此回互，反涉私意，非也。至於心辨是非而不必論，或有當如此之時，然亦不可如此立定死法也。

“常習舊學，則於方讀書有妨”者，此爲欲速之心所使，故以此爲患也。欲速故不惟不暇溫故，而方讀之書，亦不暇精熟，意緒匆匆，常若有所迫逐，本欲廣讀諸書，而鹵莽遺忘，厥終與初不讀一書者無異。觀今日學者每坐此病，畢竟成就得甚麼事業？滉向爲舉子，正亦¹¹⁾如此，加以病倦，讀書殊草草，過了多少光陰。今年力衰邁，無路追補，無以勸勵士友，直是無可開口。近來尤覺此弊，內自愧勵而已。“晝日所讀，夜中思¹²⁾繹”，此延平所以告晦菴者。依此做不輟，當日有益也。

9) 自不爲少：《雪月堂集》‘自爲不少’

10) 之：上本에는 없다.

11) 亦：《雪月堂集》에는 없다.

12) 思：定草本·庚本·擬本·甲本·《雪月堂集》‘所’

“來不迎，去不追”，所論大概得之。比如一家主人翁，鎮常在家裏，做主幹當家事，遇客從外來，自家只在門庭迎待了，去則又不離門庭，以主送客。如是，雖日有迎送，何害於家計？不然，東西南北，客至紛然，自家輒離出門庭，遠迎近接，奔走不息，去而追送，亦復如是，自家屋舍，却無人主管，被寇賊縱橫打破蕪沒，終身不肯回頭來，豈不爲大哀也耶？

平居無事，是涵養本原地頭，外儼若思，中心主一，惺惺然時也。一念之萌，但遏其邪而存其理爾，一切排遣不得。蓋無事時固當靜以存養，然如有所當思而思，能主一無走作，是乃靜中之動，恐無害於持心也。今論無事時持心之法，一要常惺惺而遣去思慮，是一於靜而欲無動也。一要未嘗息念而不替其窮理，是偏於動而無靜時也。此即朱子所論“常寐無覺，常行不輟”之病，皆不可也。

嘗觀朱子〈跪坐說〉云：“兩膝著地，伸腰及股，而勢危者爲跪。兩膝著地，以尻著蹠，而稍安者爲坐。”然則今所謂危坐，即古之坐，今所謂跪，古亦謂之跪，而古別無危坐盤坐之稱也。姑以古坐今危論之，古人想其自《小學》隅坐時而習之，習之熟，故能安而無難焉。

朱子所以引道家禮懺者，以爲習故能之之云也。今人既不能如古之習安，故朱子有“盤坐何害？”之說。蓋能收斂身心，齊¹³⁾莊整齊，則有時盤坐，雖不如危坐之嚴肅，自不害義理，故可以通謂之正坐·端坐而可行也。但來喻所謂“不別危·盤而靜坐，非危非盤而端坐”，未知此指何坐而云耳。¹⁴⁾ 椅坐，恐是出於中古。古之禮，坐皆席地而坐，故古塑像，皆爲地坐，朱子考辨甚詳矣。“坐如尸”者，只謂齊¹⁵⁾敬之容如是，非謂學尸之坐法也。

“寢不尸”註，“偃臥”之說，滉亦常¹⁶⁾疑之。然以似死人之意推之，似是謂仰臥也。又嘗見古圖畫，畫人之臥者，率作仄臥，未見有仰臥者，得非古人以仰臥爲非禮歟？然¹⁷⁾常人未之能行，而唯孔子能之，故特記於此，未可知也。

“禱於尼山”，不能必其有無。假令有之，今於叔梁紇，固不可以生聖子¹⁸⁾之故而事事責其正道，又不當擯夫

13) 齊：中本·《雪月堂集》‘齋’；養校 [‘齊’當作‘齋’.]

14) 但來喻……而云耳：《雪月堂集》에는 없다.

15) 齊：中本 ‘齋’

16) 常：《雪月堂集》‘嘗’

17) 然：上本에는 없다.

18) 子：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소주 ‘子’, 《錄》作‘人’.]이 있다. 즉, 《自省錄》에는

子之言，揆紇之所爲，而有疑於夫子顯其親之失也。但大夫而禱山川，實諂而非禮，乃應而生聖人，此又理之不可知者。故每疑此與野合等事，皆齊東野語之類耳。嘗見古記有云：“南斗司生，北斗司死。”故捄死請命，皆於北斗，此乃術家之邪說耳。黔婁之禱，特出於迫切之至情，徇俗爲之，邪正不暇論也。其得愈病，只是孝感所致。大抵孝子至誠，動天地，致祥異，古今此類，不可枚數，不必致疑於此也。朱子所云正禮，恐記者之誤，子路請禱之事，《集註》盡之，不可以多求也。此事雖於君父，已有“迫不得已”·“不請於病者”之說，今又有“爲妻子兄弟”之云，則是相率而爲巫風，不務民義，諂瀆鬼神，而正道湮矣。正不可容易爲說，故引朱先生答滕德粹書以告之，不審惇叙以爲如何？【答滕書，見《朱子大全》四十九卷。】

右皆因來問之及，而不敢有隱於左右，在公裁擇之如何。第觀來喻，皆以所聞¹⁹⁾推驗於日用操術之間，思索儘細，察識儘密，可見用工²⁰⁾之切。但於持敬一

‘子’가 ‘人’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自省錄》에는 ‘子’로 되어 있다.

19) 聞：《雪月堂集》‘問’

20) 工：《雪月堂集》‘功’

事，猶未能真實見得，著實行去，所以自家用工處與聖賢之言，動相違異，疑慮前却，徒有比較指擬之煩，未有明白可據驀直進前之意。此學問大本，於此而不得，則雖有零碎工夫，卒難湊泊，勞而無功，或轉入釋·老去矣。朱子謂李晦叔曰：“罷却許多閒安排，除却許多閒言語，只看操則存一句是如何。”此是公當病之藥，試思之，幸甚。

答李叔獻[珥]

前月中，金子厚人還，奉書，知好抵北坪，學履勝迪，欣寫鬱懷。未遇歸便，修復不時。子厚之回，又蒙惠書及詩，兼墮詢薨之語，感忤無已。澁也僻陋寡徒，無與爲學，病中看書，時有意會處，及到體行，或相矛盾者多矣。年衰力微，又不能取友四方以自輔益，恒自企佇。兩書之來，乃不及藥石，而反欲借聽於聾者，何耶？踖蹐不敢承，然而欲遂無言，則又非相與之道，終不敢有隱於情素也。前書深以往時失學爲歎。足下行年甫弱冠耳，而穎脫如許，不可謂失學，而尚且云然者，豈不以所學有差同於未學也耶？悟前非而思改，又知從事於窮理居敬之實，可謂勇於改過，急於向道，而不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4월 추정. 禮安.

李珥（字 叔獻，號 栗谷·石潭·愚齋，諡號 文成，本 德水. 1536~1584）

[文集所在] 〈答李叔獻[珥○戊午]〉(KNL0229/書-李珥-1)(癸卷14:17右)(樊卷16:19右)

[資料考] 이 편지의 別紙는 李珥가 戊午年(1558년) 2월 上溪로 退溪를 찾아왔다가 江陵으로 간 다음, 같은 해 3월에 부친 두 번째 편지인 〈上退溪李先生別紙[戊午]〉에 대한 답장이다. 《栗谷全書》(권9:1a~6a)〈上退溪李先生別紙[戊午]〉에는 李珥가 문의한 내용뿐 아니라, 이 별지의 내용인 退溪의 답변도 일부 내용을 刪節하여 첨부되어 있다.

迷其方矣。聖遠言湮，異端亂真，古之聰明才傑之士始終迷溺者，固不足論矣。亦有始正而終邪者，有中立而兩是者，有陽排而陰右者，其入雖有淺深，而其誣天罔聖，充塞仁義之罪，一也。惟程伯子·張橫渠·朱晦菴諸先生，其始若不能無少出入，而旋覺其非。噫！非天下之大智大勇，其孰能脫洪流而返真源也哉？往聞人言，足下讀釋氏書而頗中其毒，心惜之，久矣。日者之來見我也，不諱其實，而能言其非，今見兩書之旨又如此，吾知足下之可與適道也。所懼者，新嗜靡甘，熟處難忘，五穀之實未成，而稊稗之秋遽及也。如欲免此，亦不待他求，惟十分勉力於窮理居敬之工，而二者之方，則《大學》見之矣，《章句》明之矣，《或問》盡之矣。足下方讀此書而猶患夫未有所得者，得非有見於文義而未見於身心性情之間耶？雖見於身心性情而或不能真切體驗實味膏腴耶？二者雖相首尾，而實是兩段工夫，切勿以分段爲憂，惟必以互進爲法。勿爲等待，即今便可下工，勿爲遲疑，隨處便當著力，虛心觀理，勿先執定於己見，積漸純熟，未可責效於時月，弗得弗措，直以爲終身事業。其理至於融會，敬至於專一，皆深造之餘自得之耳。豈若一超頓悟立地成佛者之略見

影象於恍惚冥昧之際，而便謂一大事已了耶？故窮理而驗於踐履，始爲眞知；主敬而能無二三，方爲實得。今雖見理而未免於淺淡，雖持敬而或失於顛頃，則其日用應接之間，從而壞之者，沓至而無窮，豈但所謂思慮食色燕談之爲害而已乎？雖然，爲學之初，見理未眞，持敬屢失，亦人之通患。若如滉者，非但厥初，至白首尤甚，常恐吾生之浪過，而有望於並世之君子，不啻如飢渴之在躬。顧嘗以是觀於一時之人，其英材絕識，未可一二數，未達則奪於科目，已達則沒於利害，縱或有意，而不能勇爲者滔滔也。若足下之所存，則有異於是，以其曾不難於斷置，知之矣。足下苟能移斷置不難之心，以行於世，雖科目利害之在前，其不與衆人同其怵迫也，無疑。此滉所以有感於足下者也。第以超詣之資，容易於講解，故其發爲言論者，有不由憤悱；見於推行者，似欠於懇篤。誠恐若此不已，未保其終不受變於世習也。故不計其有無於己，而輒言之。後書所問，亦粗見別紙，并冀諒察。不宣。

自省錄-14A

別紙

朱子謂“安而後能慮，非顏子，不能之”，誠如所疑。然聖人之言，徹上徹下，精粗具備，隨人所學之淺深，皆可用得。安而能慮，自其粗者言之，中人以下，猶可勉進，自其精之極致言之，非大賢以上，固有所不能焉。朱子此言，乃以其極致言之耳。若以是藉口而自棄者，其人之識趣，已不足與議於道，何可憂彼之藉口而卑吾說以就之耶？【‘藉口’二字，才有一毫此意，便不可與入堯·舜之道。】¹⁾無事時，存養惺惺而已，到講習應接時，方思量義理，固當如此。蓋才思義理，心已動了，已不屬靜時界分故也。然此意分明，似不難知，而人鮮能真知，故靜時不思，便認以爲窈冥寂滅，動時思量，又胡亂逐物去，都不在義理上。所以名爲學問而卒不得力於學也。惟主敬之功，通貫動靜，庶幾不差於用工爾。²⁾

1) 朱子謂……堯舜之道：《栗谷全書》〈上退溪李先生別紙【戊午】〉에 의하면 이 조목에 대한 李珥의 問目은 다음과 같다. 朱子曰: “定靜安, 雖分節次, 皆容易進. 安而後能慮, 慮而後能得, 最是難進處. 安而後能慮, 非顏子, 不能之.”【此下缺.】

2) 無事時……用工爾：《栗谷全書》〈上退溪李先生別紙【戊午】〉에 의하면 이 조목에 대한 李珥의 問目은 다음과 같다. 先生曾問珥曰, “敬者, 主一無適, 如或事物齊頭來, 則如

窮理多端，不可拘一法。如窮一事不得，便生厭倦，遂不復以窮理爲事者，謂之遷延逃避，可也。不然，所窮之事，或值盤錯肯綮，非力索可通，或吾性偶闇於此，難強以燭破，且當置此一事，別就他事上窮得。如是窮來窮去，積累深熟，自然心地漸明，義理之實，漸著目前。時復拈起向之窮不得底，細意紬繹，與已窮得底道理參驗照勘，不知不覺地，并前未窮底，一時相發悟解，是乃窮理之活法，非謂窮不得而遂置之也。若延平說待一事融釋脫落而後，循序少進者，即是窮理恒規當如是，其意味尤爲淵永，與程子之言初不相妨。格菴所論，無可疑矣。³⁾

何應接？”珥以此言反覆窮之而得其說焉。主一無適，敬之要法，酬酢萬變，敬之活法。若於事物上，一一窮理，而各知其當然之則，則臨時應接，如鏡照物，不動其中，東應西答，而心體自如，因其平昔斷置事理分明故也。不先窮理，而每事臨時商量，則商量一事時，他事已蹉過，安得齊頭應接。譬如五色同現鏡中，而鏡之明體，不隨色變，同時缺照。敬之活法，亦如是也，此則動中功夫。若於靜中，則須於一事專心，如讀書而思射鴻鵠，便是不敬。蓋靜中主一無適，敬之體也，動中酬酢萬變而不失其主宰者，敬之用也。非敬則不可以止於至善，而於敬之中，又有至善焉。靜非枯木死灰，動不紛紛擾擾，而動靜如一，體用不離者，乃敬之至善也。以此推之，舜之明四目，達四聰，齊七政，修五禮，如五器，雖若多事，何嘗不敬，何往而無主一之功也。先生以爲何如，若方氏所謂“中虛而有主宰”，朱子曰“聖人之心，瑩然虛明，看事物來，若大若小，四方八面，莫不隨物隨應，此心元不曾有這物事”，此之謂也。

- 3) 窮理多端……無可疑矣：《栗谷全書》〈上退溪李先生別紙【戊午】〉에 의하면 이 조목에 대한 李珥의 問目은 다음과 같다. 程子曰：“或讀書講明道義，或論古今人物而別其是非，或應接事物而處其當否。若於一事上窮不得，別窮一事。”司馬溫公曰：“自未始有形之前暨四達無窮之外，事物之理，舉集目前，可者學之。”此言近於格物，而所謂可者學之者，與程朱之言，全然不同，未若求其所當爲與其所以然者之妙也。理本至善，何嘗有

‘敖惰’之說，胡氏謂爲衆人言者是也。故章首以人之一字爲言，而朱子解之，亦曰“人謂衆人”，又曰“常人之情，惟其所向而不加察”，可見其本非爲君子言也。然其說衆人病處，正所以曉君子，使之知病矯偏，以致之於中道，故敖惰二字，亦不可不就君子而論其所處之如何也。蓋由衆人言之，雖曰因人可敖，亦曰情所宜有，猶未免於帶累凶德者，以其陷於一偏故也。在君子則因其人平平，而我略於爲禮，乃事理當然之則也，亦洒然無一點帶累向一邊底意思，而其渾厚懇惻中正和平氣象，依然自在。朱子所以援取瑟隱几爲證者，非實謂孔·孟爲敖惰，謂敖惰之在聖賢做處如是而已爾。然則何嫌於同歸敖惰，亦何慮學者之傲物輕世乎？【敖字與凶德之敖，本非字同義異，就君子說時，其義方少異耳。】⁴⁾

溫公既誤解格物之格爲扞禦之義，則其爲說，固不得與

不可。若曰可者學之，則與察天行以自강，察地勢以厚德者，何異哉。蓋溫公以格物之格，爲扞禦字，知格物之要，不若程子，故其言如此。先生曾以此言示珥，故敢告，不審何如。

- 4) 敖惰之說……少異耳：《栗谷全書》〈上退溪李先生別紙【戊午】〉에 의하면 이 조목에 대한 李珥의 問目은 다음과 같다. 八章釋“敖惰”處，朱子曰：“因人之可敖而敖之，則是常情所宜有，而事理之當然也。”乃以夫子之取瑟而歌，孟子之隱几而臥爲證。胡氏曰：“敖惰，非爲君子言，乃爲衆人言。衆人中，固自有偏於敖惰者。”此兩說如何和會。若曰彼人可敖而遂敖之，則能無病乎。孔孟所爲，乃不屑之教誨也。豈有敖之之心乎？此處不能無疑。但陳氏曰：“敖只是簡於爲禮，惰只是懶於爲禮。”然則此章敖字之義，與韓子所謂“敖雖凶德”之敖，有異義耶？

程·朱同矣。然其泛論爲學，則有不違義理處，所謂天資粹美暗合道妙者也。來喻以“事物之理，舉集目前，可者學之”一段爲近於格物，而深斥可者學之之說爲誤。滉不記前日面論如何，以今所見，殆不如⁵⁾盛喻也。蓋嘗反復其上下文義，而揆以知行之說，所謂“窺仁義之原，探禮樂之緒”者，是乃格物事也，而“事物之理，舉集目前”者，即致知之效也。可者學之，當爲力行事也，而未至夫可，又爲行之未至而自勉之辭也。夫天下之理，舉集目前，非窮理之深，不能也。惟其窮理既深，故於天下之理，一目無全，能知其孰可孰否，而學其可者，此因其所知而身履之也。可，猶善也。學，猶行也。可者學之，未至夫可，猶言得一善則拳拳服膺而猶未至於至善之地也。若以可者學之，亦爲格物事，則上文窺探集前數句，已說知了，再著此一句說知，其說知爲重複矣。下文無一語說及行，而遽以未至夫可一句懸空說未至自勉之意，則其說行處，又爲無頭矣。溫公之學，雖未有傳授，不應如是之疎繆也。況此二句，如鄙說，而求其義，則正見公‘學如不及，惟恐失之，俛焉孳孳，知有此樂，不知其他’之意。故其下係以“何求於人，何待

5) 不如：《栗谷全書》에는 [두주 ‘不如’之‘如’，疑‘知’.]가 있다.

於外”之語，此正是公獨樂之實事，至志倦以下，乃樂之餘事耳。然則此數句，非徒無誤，實爲至論也。⁶⁾事物之理，循其本而論之，固莫非至善，然有善斯有惡，有是斯有非，亦必然之故也。故凡格物窮理，所以講明其是非善惡，而去取之耳。此上蔡所以以求是，論格物也。今日：“事物之理，莫非至善，何嘗有不可？”以此而訾溫公可者學之之說。恐如此論理，將墮於一偏，而非內外一致之學也。⁷⁾

‘割股’⁸⁾，先儒之論，盡矣。至於迫切之極，既不可取之他人，則容有不得不權以處之者。蓋此外更無他道理，則寧毀體以救親命，亦人子至痛之情，然終不可以是訓人爲孝。故朱子止謂之庶幾，而不以爲至善也。凡事到無可奈何處，無恰好道理，則不得已擇其次者而從之，乃所謂權，亦此時所當止之處也。然尤當審處，不然，或至於乖僻亂道之罪也。

6) 蓋嘗反復其上下文義……實爲至論也：《栗谷全書》에는 없다.

7) 溫公既誤解……一致之學也：《栗谷全書》에는 이 부분이 “敖惰之說” 조목 앞에 배치되어 있다. 今按: 내용상 이 부분은 앞의 문목에 대한 답변의 계속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栗谷全書》의 편집이 더욱 원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두었다.

8) 割股: ‘割股’ 이하 두 조목에 대해서는 《栗谷全書》에 그 問答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割股’에 대해 定草本에는 상란에 ‘別條’라는 朱墨追記가 있고, 《要存錄》에는 “先生後以此段問答爲未當. 詳見〈答禹景善書〉”라 했다.

退陶先生自省錄

所論“主一無適，酬酢萬變”之義，甚善．其引朱子“隨物隨應，此心元不曾有這物事”及方氏“中虛而有主宰”等語，尤爲的確．惟此理，非知難而行難，非行難而能眞積力久爲尤難．此衰拙所深懼，而亦不能不爲高明懼也．⁹⁾

9) 所論……高明懼也：《栗谷全書》에 의하면 이 부분은 “無事時，存養惺惺而已”운운한 것과 “窮理多端”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今按: 내용상 이 부분은 “無事時，存養惺惺而已”운운한 답변과 연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栗谷全書》의 배치가 원래 형태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自省錄-15

答黃仲舉【俊良】論白鹿洞規集解【松堂 朴公有《集解》，近始刊行.】

“正其義不謀其利”，以義對利說，而又引“利者，義之和也。”於不謀之意如何？

自利之本而言之，利者，義之和，非有不善，如《易》言利不利，《書》言利用之類，是也；自人之爲利而言之，在君子則爲心有所爲之害，在衆人則爲私己貪欲之坑塹，天下之惡，皆生於此。利之爲言，隨處不同，如此。董子此言，本以君子心術精微處言之，未說到衆人陷溺處，故朱子引孔子義和之說以明之。夫以利爲義之和，則利不在義之外，正義而利在其中矣，乃復言不謀其利，則又似利在義外爲二物，有欲其爲此不爲彼之意。此來喻所以疑其牴牾，而其實非牴牾也。蓋利雖在於義之和，畢竟與義相對，爲消長勝負者，非利之故

▶ 己未年（明宗14, 1559년, 59세）2월 추정. 서울.

[文集所在] 〈答黃仲舉論《白鹿洞規集解》〉【松堂朴公有《集解》，近始刊行.】(KNLO 673/書-黃俊良-41)(癸卷19:21右)(樊卷25:30右)

然，人心使之然也。故君子之心，雖本欲正義，而臨事或不能一於義，而少有意向於利，則是乃有所爲而爲之，其心已與義背馳，而所謂利者，非復自然義和之利矣。所以朱子以義之和釋利字之義，旋以有所爲三字，說破謀利之害，然後知此說利字，初非不好，緣被謀之之心，便成不好了。然則引義之和與不謀之意，有何礙乎？況此處若非先生如此研精停當，細意說出，則人將麤著眼看，以此利字爲貪欲之利，謀字爲營求之謀，其於仁人心法毫釐之辨，相去遠矣，則董子此說，安得與先難後獲同其微旨乎？雖然，於此又須知自有所爲之心，而墮於衆人之坑塹，亦不多爭分數，始得。若曰“吾但爲有所爲之利，不與衆人同惡”，則已爲小人之歸矣。

朱子謂此與孟子“何必曰利”·“行法俟命”同義。《規解》不載此語，松堂之意，蓋不可曉。¹⁾

愚²⁾嘗反復規後諸說，而僭爲之論曰：“《規解》後首引一貫之旨，次之爲邦之道，而附以己說。其意若

1) 朱子謂……不可曉：문집에서는 앞 단락에 이어져 있다. 또한 뒤에 몇 조목이 더 있다.

2) 愚：문집에서는 이 이하의 내용이 極行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低一字하여 편집되어 있다.

有所不足於規，而以是補其闕，可謂善矣。雖然，以滉所聞，殆不能無惑焉。古之聖賢教人爲學，豈不欲人人知道，而立談之頃，盡舉以傳付耶？然而不能者，非斬道之傳而畫人於卑近也，勢有所不可也。三千之徒日游聖門，而所講者惟孝悌·忠信·《詩》·《書》·執禮，其論仁也，亦止於爲仁之事而已。及其久也，隨材成就，各有所得，而一貫之妙，惟曾子·子貢可以與聞焉。故至於是而後乃告之，非得已也。先王教人之法，今可見者，《小學》·《大學》也。《小學》之教，固所以盡人事之纖微曲折，至於《大學》，雖有以極其規模之大，然以言乎其知，則就事物而言窮格，以言乎其行，則由誠意·正心·修身，而後推之於家國，而達之於天下。其教之有序，而學之務實也，如此。其論治也，猶不過存心出治之本而已，未及乎制度文章之際，如夫子之告顏淵，何也？損益四代，爲百王大法，惟顏子可以得聞之爾。至於《大學》，乃爲天下立通法，聖人豈可誣天下之英才，而概於爲學之初，躡等而告之哉？且子朱子之學，全體大用皆備，而其爲學者立規也，特以五倫爲本，而係之以爲學之序，終之以篤行之事，不及於道體之全者，其亦孔門之遺意，先王³⁾之教法也。博學以下，致知也；

3) 王：庚本·擬本·甲本‘生’；甲本에는 [두주 ‘生’，一本作‘王’.]이 있다.

篤行以下，力行也。以是二者，待天下之士，理無精粗，由粗而得精，語徹上下，下學而上達，如群飲於河，各充其量。高而爲聖賢，下而爲善士，皆可以得之於此。若所謂一貫之旨·爲邦之道，蓋有待而發焉，非闕而不舉也。今不察此，而欲引而補之，其亦不思之故也。至其所自爲說，則其言雖多，要以誠敬爲主。“毋不敬”以上，主敬而言，“道有體用”以下，主誠而言。其主敬而言者，辭氣之間，雖有急迫之病·齟齬之疵，尙不至大繆矣。主誠而言者，病痛尤多。教當循序，言貴適時，今率爾而論道之體用，以及於誠，發之無端，一病也。《中庸》，論道之書也，中以未發爲言，和以已發爲言，以顯性情之德爾。今論學規，而引以爲言，殊不親切，二病也。以《大學》之明德·新民擬於《中庸》之中和，理雖無二，名義異指，附會相配，俗儒之陋也。今取以爲說，鑿經言，誤後學，三病也。立天下之大本，誠意正心而後，可言也。今日“格明德以致明，而立天下之大本”，則是但能致知而大本已可立矣。其下又曰“而⁴⁾誠意正心”，則是立大本而後，方可以誠意正心矣。先後倒置，語意無倫，四病也。於天下之達道，言行，可也。而今曰“定天下之達道”，已爲未穩。且據《中庸》而論達

4) 而：中本에는 [부전지 ‘而’字, 當考.][추가 手本亦有.]가 있다.

道，自誠正以下，皆可言也。今斷自修身以下而言之，失於勘析，五病也。“大而化之，誠神之妙”，是聖人地位，顏子之所不逮，今以語於學規，與前之引“一貫”·後之論“乾乾不息便是天”者，同歸於虛說，六病也。大抵儒者之學，若升高必自下，若陟遐必自邇。夫自下自邇，固若迂緩，然舍此，又何自⁵⁾而爲高且遐哉？著力漸進之餘，所謂高且遐者，不離於卑且邇者而得之，所以異於釋·老之學也。今未一舉足，而遽責以窮高之升，未嘗發軔，而亟期以⁶⁾極遐之陟，天下安有此理哉？又不能致詳，徒恃其一言半句，而欲有得焉，則是使人妄意懸想，大言誑嚇，而卒陷於欺天罔聖之罪矣。其爲害，豈但小小文義之差而已哉？嗚呼！今之經生學士，以文字發身享利者，其視道學二字，不啻如堇喙，未嘗開一口下一筆，憫然自以爲得計。斯人也自挺於流俗之中，乃能投戈講學，橫槩思道，雖中遭折辱，不自沮廢，至取前賢教人之法，註釋以曉世，亦可謂毅然大丈夫矣。惜其所見猶未免疎脫，《集解》雖甚發明，而仔細考之，有數條不合者，〈後說〉雖好意思，而究極論之，又有如前所云者，使人不能無遺恨於此也。然則今當如之何而可也？夫非議前輩，固後學之不敢輕也。然至於析理

5) 何自：初本‘自何’

6) 以：初本에는 없다.

論道，則一毫不可苟也。故晦菴與東萊訂定《知言》之醇疵也，南軒亦與焉。南軒，五峯之門人也。以弟子而議師門之書，不以爲嫌者，豈不以義理天下之公也？何先何後？何師何弟？何彼何此？何取何舍？一於至當而不可易耳。故是《解》也，得與其門人之識道理公是非者，考論其得失，而去其所可去，存其所可存，改刊以行於世，則後學之幸也，而所以爲松堂地者，亦不爲不厚矣。不審高明以爲何如？”

自省錄-16

重答黃仲舉

前承別紙所論《鹿洞規解》之說，多病因循，久未報，爲媿也。利者義之和，所以致疑之由。引人心道心之說，而指其異同處，辨析細密，可見其思之深矣。然於鄙意猶有所未穩者，輒再稟可否焉。其謂此利字袞合說，在義和之中，則是矣，謂彼私字已說出，流於不好之地，則非也。朱子謂“形氣屬自家體段上，便是私有底物，不比道便公共，故謂之私也，亦未便是不好”，眞西山亦謂“私猶言我之所獨耳。”然則此私字，不可謂流於不好之地，明矣。又謂“前則似說天理中有人欲，後則謂因天理而流於人欲。”此說亦未當。蓋利字之義，循其本而言，只是順遂便益之名。君子之處事以義，未嘗不順遂便益，故曰：“利者義之和。”如云“循天理則不求利而自無不利”者，是也。若以利爲人欲，則天理中一毫著不得，何云義之和耶？大抵此利字私字，皆與

▶ 己未年（明宗14, 1559년, 59세）2월 추정. 서울.

[文集所在] 〈重答黃仲舉〉(KNL0674/書-黃俊良-42)(癸卷19:28右)(樊卷25:37左)

尋常利私字，迥然不同，所指處雖異，【形氣之私，指知覺發用¹⁾處言；義和之利，指操術謀爲處言。】而類例則相似，【私是自家所有而已，非私欲也，猶利是順遂便益而已，非利欲也。】引而爲證甚善。但所自爲說處，反自拖泥和水說了，恐是玩理未熟之故。幸加反復，則所謂未發之蘊，只於此而有得爾。

《大學》修己治人，體用該載，則固然矣。然以止至善當一貫，以絜矩·財用·用人爲制度文章之事，則恐未然也。蓋至善與一貫，雖非二理，然至善是指事事物物各有恰好底道理而言，如君仁·臣敬·父慈·子孝之類，是也。一貫是從大原大本至千差萬別處，一齊貫串說來，如天地之至誠無息，而萬物各得其所，聖人之心，渾然一理，而泛應曲當，用各不同，是也。所指之處不同，立言之旨亦異，不可以理同而袞合爲一說也。況至善加以止字，則正是曾子於其用處隨事精察而力行之事耳。豈可便以爲衆理之會于一而與一貫同其旨乎？絜矩之用，雖至廣，然只是就因心度物得其均齊方正處言，固非制度文章之謂。至於財用·用人，亦不過說“有天下者於此等事，如此則善而得，如彼則不善而失。”或勸或戒，皆推廣絜矩之義而已，何嘗有一句說及制度文章事

1) 用：上本‘明’

耶？何謂制度文章？如一部〈周官〉所記許多法制，又如經禮三百·曲禮三千，文質損益與²⁾凡政教號令，皆是也。當時顏淵所問，乃問治天下之法，非論學也。故孔子就四代禮樂，斟酌文質之宜，立萬世常行之法，畫一以告之，隱然有周公制禮作樂底意思。若《大學》方教人以修己治人之學，舍存心出治之本，而遽及於此，則不幾於倒置而不切於受用乎？故愚謂此亦有待而發也。若以其見於用處而可謂之制度文章，則又有不然者。夫子嘗曰：“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夫以敬爲本而有四者之事，豈不是兼該於體用？然而龜山以爲“此特論其所存而已。未及乎爲政也。”然則愚以《大學》一書爲存心出治之本而未及乎制度文章者，豈爲無稽之言乎？外至善而尋一貫，固無是理。然欲遂指至善爲一貫，是見派流而認爲源頭，其可乎？爲邦之本，固具於平天下章。然欲遂指此章之說，爲制度·文章·損益皆備，則是猶製³⁾衡而不爲星子曰：“關石和鈞，已具於此。”其可乎？大抵通天下萬物，只此一理。故義理語言，若僂侗合說則無不可同，牽引指說

2) 與：初本‘及’[교정기 ‘與’]

3) 製：癸本·甲本·樊本·上本에는 [두주 ‘製’當去衣.]가 있다；鄭校[‘製’去衣，似當.]

退陶先生自省錄

則無不近似，終無奈當初聖賢立言本意不如此，不足以發明經訓，適足以晦真理亂實見，此學者之通患也。古人所以終身講學惟日不足者，豈不以義理微密處，易差難明如此，及至下手著腳，又忒不易，而又不容休罷故耶？感足下有疑相難，往復不置，故聊發其愚，幸勿廣也。

自省錄-17

答奇正字明彥【大升】

春初一紙，遠付¹⁾南鴈，未幾東歸，潛深伏隩，京信且不得時聞，況於湖南更在千里外耶？中間，問知公來都下，欲爲一書致意，而復計公方困一新字，滉亦自困於積病，無暇修人事，但每以子中之來，擬聞公之動靜，而子中又遲來，及至前月旬時，子中倅來，始獲承八月望間兩書及追寄三月初五日答書并所著說一篇。其爲慰釋，不可勝云。因而²⁾反復三書之意，見公傾倒於滉，而又令人慨嘆無已也。大抵出處去就，當自決於心，非可謀之於人，亦非人所能與謀。胡康侯³⁾所見，卓然可法，第患平時理有所未精，志有所不剛，則其所自決，

▶ 己未年（明宗14, 1559년, 59세）10월 24일, 禮安.

[文集所在] 〈答奇明彥〉(KNL0550/書-奇大升-3)(癸卷16:2右)(樊卷21:2右)

[資料考] 《往復書》 권1에도 전문이, 《四七往復書》 권1에는 일부가 실려 있다.

[年代考] 《往復書》에는 뒤에 ‘歲方寒沍, 惟爲時珍懋萬萬. 謹拜白. 嘉靖己未陽月二十四日, 病人滉拜.’라고 하여 작성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1) 付：上本 ‘附’

2) 而：樊本·上本 ‘以’

3) 侯：中本 ‘候’

或不免昧於時義，奪於願慕，而失其宜耳。今觀來喻之意，自謂學未成而遽出，恐仕宦之奪志，欲歸而卒究大業爾，此乃古人之所難得，而今世之所未見。滉所以爲公斂枉者特深，而亦不能不爲公憂且懼也。姑以滉身親經歷者言之。滉少嘗有志於學，而無師友之導，未少有得，而身病已深矣。當是時，正宜決山林終老之計，結茅靜處，讀書養志，以益求其所未至，加之三數十年之功，則病未必不痊，學未必無成，天下萬物，如吾所樂何哉？顧不出此，而從事於應舉覓官，以爲我姑試之，如或不可，欲退則退，誰復絆我。初不知今時與古時大異，我朝與中朝不同。士忘去就，禮廢致仕，虛名之累，愈久愈甚，求退之路，轉行轉險，至於今日，進退兩難，謗議如山，而危慮極矣。嘗自念山野之性，雖不由爵祿之慕，而學不明理，昧於時義，一誤其初，後雖有悟，難於收拾以至此。然而猶有可質於古義者，身病如許，國人所共見，天地鬼神所共鑑，非有託也。若在公之身，則處之之難，又有甚於滉者，既辱見謀，不得不略陳鄙意。公以英拔⁴⁾之氣·棟梁之具，未出而名播遠邇，始出而一國盡傾，長途逸駕，發軔伊始，而身非有如滉

4) 拔：上本‘發’

之病。持此欲舍而退藏，時人肯舍公哉？時人不舍，而已欲舍之，愈舍而愈不免，雖欲如病臣之屢乞辭退，不亦難乎？人之歸責，無亦有甚於責病愚者乎？此滉所以爲公憂且懼也。是故，爲公之計，當其未出世，而早決其志，則學可專而道可得，雖由是豎赤幟於一世，爲東方絕學之倡，蔑不可矣。今既不然而應舉覓官矣，又既屈首忍辱而行免新矣，始乃謀之於人，欲退而畢願，無乃見事之晚，而所謂“違俗就己之願，素定於心”者，恐未可以必得也。來喻曰：“處世之難，亦患吾學之未至耳。吾學若至，則處之必無難矣。”此固切至之言也，而所示四端七情說，其所造亦可謂邃矣。然而自愚揆之，高明之學，有見於正大廣博之域，而或未融貫於細密精微之蘊也；其處心制行，多得於疎達曠⁵⁾坦之意，而尚欠於收斂凝定之功也。故其發爲言論者，雖甚超詣，而或不免有出入矛盾之病，其所自爲謀者，雖非常人所及，而猶未脫於安排前卻之中，則其於擔當一大事，佩負一大名，以處於衝風激浪之際，何可謂無難乎？夫士生於世，或出或處，或遇或不遇，歸潔其身行其義而已，禍福非所論也。然嘗怪吾東方之士，稍有志

5) 曠：上本‘廣’

慕道義者，多罹於世患，是雖由地偏人澆之故，亦其所自爲者有未盡而然也。其所謂未盡者，無他，學未至而自處太高，不度時而勇於經世，此其取敗之道，而負大名當大事者之切戒也。故爲公今日之道，勿太高於自處，勿遽勇於經世，凡百勿太過於自主張。身既出世而許國，則何可專守其退志？志以道義爲準則，則又何可有就而無去？直以夫子學優仕優之訓爲處身之節度，而精審⁶⁾於義理之所安，其行於世，則職思其憂之外，常須退一步低一頭，而專意於學曰：“我學未至，何遽任經濟之責乎？”其違於時，則一絲莫管於外，必須或乞閒或圖退，而專意於學曰：“我學未至，靜修進益，今其時矣。”如是久遠爲期，一進一退，莫不以學爲主，深知義理之無窮，常歉然有不自滿之意，喜聞過，樂取善，而眞積力久，則道成而德立，功自崇而業自廣，向之所云經世行道之責，至是始可任矣。竊觀來喻，意在於欲退，而滉之言，兩持出處之說，其無乃見斥爲世俗常情，同於鄭生之爲公謀者乎？鄭生之見，固有所未至，而其言未知其何如也。以滉所見，豈不知勸公之高翔遐舉，一往不返，以應古人隱居求志之義，可出於常情之表，爲甚

6) 審：樊本·上本‘深’

快樂也？顧嘗聞之，朱先生與門人論程子不請俸之事，其意若曰：“今人若由科目入仕者，不得不以常調處之。”今公既失堅臥於初，又非病廢於後，而入仕由科目，則爲公忠謀者，安得一切以出世之事奉勸乎？或者鄭生之意，其亦出於此否乎？雖然，滉之此言，一蹉則入於安常襲故隨俗俯仰之陋，必常有不可奪之志·不可屈之氣·不可昧之識見，而學問之力，日淬月鍛，然後庶可以牢著脚跟，不爲世俗聲利威風所掀倒也。不然，味無味而無得，鑽彌堅而不入，少間，不免心懶意闌，志慮回撓，而世俗利害禍福之說，又從而怵迫恐喝，寢銷寢⁷⁾鑠，則其不變其初服而以諧世取容背道趨利爲得計者，鮮矣，是尤可懼之甚者也。未知公意以爲如何？本原之地下功，滉方此求之，而未審其可否。今承俯詢，敢舉以取正焉。聞之，心爲萬事之本，性是萬善之原，故先儒論學，必以收放心養德性，爲最初下手處，乃所以成就本原之地，以爲凝道廣業之基，而其下功之要，何俟於他求哉？亦曰主一無適也，曰戒愼恐懼也。主一之功，通乎動靜；戒懼之境，專在未發。二者不可闕一，而制於外以養其中，尤爲緊切。故三省·三貴·四勿之類，

7) 寢：中本(권9) [부전지 傳本作‘寢’.] [부전지 ‘寢’, ‘浸’.]，定草本 [추가 ‘寢’.]

退陶先生自省錄

皆就應接處言之，是亦涵養本原之意也。苟不如是，而一以心地功夫爲主，則鮮不墮於釋氏之見矣，如何？四端七情之辨⁸⁾，既辱提誨，不可無三隅之反，瞽說錄在別紙，僭率爲媿，幸垂折衷。且如心之虛靈分屬理氣。理虛無對等語，但諭以未安，而不示其所以未安之故，不知回稟之說當出於何旨，故不爲條報，并望垂示以發蒙蔽。子中以護送之命，不意還都，不及附音，追寫此書，因便寄子中，冀以轉呈，但未知公已下湖南，或猶在都下，而書之得不浮沈，又未可卜也。臨紙耿耿，不能裁悉云云。⁹⁾

8) 辨：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辯’

9) 云云：문집 목판본에는 없다：中本·樊本·上本에도 없고, ‘歲【‘歲’下, 《錄》無】方寒
沍, 惟爲時珍懋萬萬. 謹拜白.’이 있다. 《往復書》에는 小註 없이 뒤에 ‘嘉靖己未陽月
二十四日, 病人滉拜.’이 더 있다.

自省錄-18

答奇明彥論四端七情分理氣辨第一書

性情之辨¹⁾，先儒發明詳矣。惟四端七情之云，但俱謂之情，而未見有以理氣分說者焉。往年鄭生之作圖也，有“四端發於理，七情發於氣”之說。愚意亦恐其分別²⁾太甚，或致爭端，故改下“純善³⁾”·“兼氣”等語，蓋欲相資以講明，非謂其言之無疵也。今者，蒙示辨⁴⁾說，擿抉差謬，開曉諄悉，警益深矣。然猶有所不能無惑者，請試言之而取正焉。夫四端情也，七情亦情也。均是情也，何以有四七之異名耶？⁵⁾來喻所謂“所就以言之者不同”，是也。蓋理之與氣，本相須以爲體，相待以爲

▶ 庚申年(明宗15, 1560년, 60세) 11월 5일. 禮安.

[文集所在] 이 글은 〈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一書】〉(KNL0551/書-奇大升-4)(癸卷16:8右)(樊卷21:8左)(舊本)의 〈改本〉(KNL0554A/書-奇大升-7-1)(癸卷16:19右)(樊卷22:1右)을 실은 것이다.

1) 辨：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 ‘辯’

2) 別：上本 ‘明’

3) 善：鄭校 [‘善’]似作‘理’.]；養校 [‘善’恐‘理’]. 참고로 이 서신의 개정 전 舊本의 해당 부분에 대한 鄭校는 [‘善’恐當作‘理’]. 考此卷首一書, 可知.]이다.

4) 辨：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 ‘辯’

5) 耶：樊本·上本(舊本) ‘也’

用，固未有無理之氣，亦未有無氣之理。然而所就而言之不同，則亦不容無別。從古聖賢有論及二者，何嘗必滾合爲一說⁶⁾，而不分別言之耶？且以性之一字言之，子思所謂天命之性，孟子所謂性善之性，此二性字，所指而言者何在乎？初⁷⁾非就理氣賦與之中而指此理原⁸⁾頭本然處言之乎？由其所指者在理不在氣，故可謂之純善無惡耳。若以理氣不相離之故，而欲兼氣爲說，則已不是性之本然⁹⁾矣。夫以子思·孟子洞見道體之全，而立言如此者，非知其一不知其二也。誠以爲雜氣而言性，則無以見性之本善故也。至於後世程·張諸子之出，然後不得已，而有氣質之性之論，亦非求多而立異也，所指而言者，在乎稟生之後，則又不得純以本然之性¹⁰⁾稱之也。故愚嘗妄以爲，情之有四端七情之分，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然則其於性也，既可以理氣分言之，至於情，獨不可以理氣分言之乎？惻隱羞惡辭讓是

6) 說：癸本에는 [두주 ‘說’, 一本作‘物’.]이 있다；中本·樊本·上本 ‘物’[두주 ‘物’, 《錄》作‘說’.]；《四七往復書》‘物’. 참고로, 이 편지의 개정 전 舊本의 해당 부분에는 養校 [‘說’, 《自省錄》作‘物’.]이 있는데 養校는 무언가 착오가 있는 듯하다.

7) 初：문집과 《四七往復書》에는 ‘將’으로 되어 있다.

8) 原：문집과 《四七往復書》에는 ‘源’으로 되어 있다.

9) 然：中本(舊本) ‘然’[‘然’一作‘善’]

10) 性：문집에는 뒤에 [소주 ‘純以’以下, 舊作‘以本然之性混’, 今改.]가 있다.

非，何從而發乎？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喜怒哀懼愛惡欲，何從而發乎？外物觸其形而動於中，緣境而出焉爾。四端之發，孟子既謂之心，則心固理氣之合也。然而所指而言者則主於理，何也？仁義禮智¹¹⁾之性，粹然在中，而四者其端緒也。七情之發，程子謂之動於中，朱子謂之各有攸當，則固亦兼理氣¹²⁾也。然而所指而言者則在乎氣，何也？外物之來，易感而先動者，莫如形氣，而七者其苗脈也。安有在中爲純理，而才發爲雜氣，外感則形氣，而其發顧爲理不爲氣¹³⁾耶？四端皆善也，故曰：“無四者之心，非人也。”而曰：“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七情本善，而易流於惡，故其發¹⁴⁾而中節者，乃謂之和。一有之而不能察，則心已不得其正矣。¹⁵⁾由是觀之，二者雖曰皆不外乎理氣，而因其所從來，各指其所主與所重¹⁶⁾而言之，則謂之某爲理某

11) 知：문집과 《四七往復書》에는 ‘智’로 되어 있다.

12) 氣：문집에는 뒤에 [소주 ‘程子謂’以下, 舊作‘朱子謂“本有當然之則”，則非無理.’今改.]가 있다.

13) 氣：문집에는 뒤에 [소주 ‘顧爲理’以下, 舊作‘爲理之本體’, 今改.]가 있다.

14) 發：문집과 《四七往復書》에는 앞에 ‘其’가 있다.

15) 矣：문집에는 뒤에 [소주 ‘本善而’以下, 舊作‘善惡未定也. 故一有之而不能察, 則心不得其正, 而必發而中節, 然後乃謂之和.’ 今改.]가 있다.

16) 與所重：문집과 《四七往復書》에는 없다. 문집에는 ‘其所主’ 뒤에 [소주 此間, 舊有‘與所重’三字, 今去之.]가 있다.

爲氣，何不可之有乎？竊詳¹⁷⁾來喻之意，深有見於理氣之相循不離，而主張其說甚力，故以爲“未有無理之氣，亦未有無氣之理”，而謂“四端七情，非有異義”。此雖近是，而揆以聖賢之旨，恐有所未合也。大抵義理之學，精微之致，必須大著心胷，高著眼目，切勿先以一說爲主，虛心平氣，徐觀其義趣，就同中而知其有異，就異中而見其有同，分而爲二，而不害其未嘗離，合而爲一，而實歸於不相雜，乃爲周悉而無偏也。請復以聖賢之說，明其必然。昔者，孔子有繼善成性之論，周子有無極太極之說，此皆就理氣相循之中，剔撥而獨言理也；孔子言相近相遠之性，孟子言耳目口鼻之性，此皆就理氣相成之中，兼指而主言¹⁸⁾氣也。斯四者豈非就同中而知其有異乎？子思之論中和，言喜怒哀樂，而不及於四端；程子之論好學，言喜怒哀懼愛惡欲，而亦不言四端。是則就理氣相須之中，而渾淪言之也。斯二者，豈非就異中而見其有同乎？今之所辨¹⁹⁾則異於是，喜同而惡離，樂渾全而厭剖²⁰⁾析，不究四端七情之所

17) 詳：上本‘想’

18) 言：문집에는 뒤에 [소주 ‘兼指’以下，舊作‘偏指而獨言’，今改.]가 있다.

19) 辨：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辯’

20) 剖：樊本·上本(舊本)‘部’

從來，概以爲兼理氣有善惡，深以分別言之爲不可。中間雖有“理弱氣強”·“理無昧，氣有迹”之云，至於其末，則乃以氣之自然發見，爲理之本體然也，是則似遂以理氣爲一物，而無所分矣。若眞以爲一物，而無所分，則非滉之所敢知，不然，果亦以爲非一物，而有所別，故本體之下，著然也二字，則何苦於圖，獨以分別言之，爲不可乎？²¹⁾ 且來喻旣云“子思·孟子所就而言之者，不同”，又以四端爲剔撥出來，而反以四端七情爲無異指，不幾於自相矛盾乎？夫講學而惡分析，務合爲一說，古人謂之鶻圖吞棗，其病不少，而如此不已，不知不覺之間，駸駸然入於以氣論性之蔽²²⁾，而墮於認人欲作天理之患矣。奚可哉？自承示喻，卽欲獻愚，而猶不敢自以己²³⁾見，爲必是而無疑，故久而未發。近因看《朱子語類》論孟子四端處末一條，正論此事，其說云：“四端是理之發，七情是氣之發。”古人不云乎？“不敢自信而信其師。” 朱子吾所師也，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

21) 乎：문집에는 뒤에 [소주 ‘似遂以’以下，舊作‘遂以理氣爲一物而無所別矣。近世羅整菴倡爲理氣非異物之說，至以朱子說爲非是。滉尋常未達其指，不謂來喻之云亦似之也。’今改.]가 있다. 다만 樊本·上本에는 ‘謂’가 ‘意’로 되어 있고, 《四七往復書》에는 ‘異’가 ‘二’로 되어 있다.

22) 蔽：養校 [‘蔽’疑‘弊’.]

23) 己：문집과 《四七往復書》에는 ‘其所’로 되어 있다.

退陶先生自省錄

得是說，然後方信愚見不至於大謬。而當初鄭說，亦自爲無病，似不復²⁴⁾改也。乃敢粗述其區區²⁵⁾，以請教焉，不審於意云何？若以爲理雖如此，名言之際，眇忽有差，不若用先儒舊說爲善，則請以朱子本說代之，而去吾輩之說，便爲穩當矣。如何如何？

24) 復：문집과 《四七往復書》에는 ‘須’로 되어 있다.

25) 粗述其區區：樊本·上本(舊本) ‘粗述區區’[두주 一本‘述’下有‘其’字‘.]

自省錄-19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
答如左

論冲漠無朕萬象森然已具.

程子曰：“冲漠無朕，萬象森然已具云云。”【語見《近思錄》一卷】
朱子曰：“此言未有這事，先有這理。如未有君臣，已先有君臣之理，未有父子，已先有父子之理。不成元無此理，直待有君臣父子，却旋將道理入在裏面。”又曰：“今人只見前面一段事無形無兆，將謂是空蕩蕩，却不知道冲漠無朕，萬象森然已具。”又曰：“未有事物之時，此理已具。少間應處，只是此理。”

《太極圖說解》曰：“自其著者而觀之，則動靜不同時，陰陽不同位，而太極無不在焉；自其微者而觀之，則冲

▶ 庚申年（明宗15, 1560년, 60세）2월. 禮安.

[文集所在]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庚申】〉(KNL1057/書-鄭惟一-28)(癸卷25:4左)(樊卷34:47右)

[資料考] 이 편지는 《文峯集》 권4에도 수록되어 있다.

[年代考] 初本 題下 小註에 ‘庚申二月’이라고 했다.

漠無昧，而動靜陰陽之理，已悉具於其中矣。”

〈易序〉“體用一源，顯微無間”注，朱子曰：“自理而言，則卽體而用在其中，所謂一源也；自象而言，則卽顯而微不能外，所謂無間也。”又曰：“言理則先體而後用，蓋舉體而用之理已具，所以爲一源也；言事則先顯而後微，蓋卽事而理之體可見，所以爲無間也。”

朱子答呂子約書曰：“道之得名，只是事物當然之理，元德直以訓行，則固不可。當時，若但以當行之路答之，則因彼之說，發吾之意，而沖漠之云，亦自通貫矣。今且以來示所引一陰一陽·君臣父子·形而上下·沖漠氣象等說，合而析之，則陰陽也，君臣父子也，皆事物也，人之所行也，形而下者也，萬象紛羅者也。是數者，皆各¹⁾有當然之理，卽所謂道也，當行之路也，形而上者也，沖漠之無昧者也。若以形而上者言之，則沖漠者固爲體，而其發於事物之間者爲之用；若以形而下者言之，則事物又爲體，而其理之發見者爲之用，不可概謂形而上者爲道之體，而天下達道²⁾爲道之用也。”又答曰：“謂當行之路爲達道³⁾，沖漠無昧爲道之本原，此直

1) 各：上本‘合’

2) 道：初本에는 [부전지 《朱書》, ‘道’下有‘五’字.]가 있다. 今按: 실제로 《朱子全書》 권48 〈答呂子約〉(40)에는 ‘五’가 있다.

是不成說話. 不謂子約見處乃只如此.⁴⁾ 須看得只此當然之理沖漠無眛, 非此理之外別有一物沖漠無眛也. 至於形而上下, 却有分別, 須分得此是體彼是用, 方說得之源, 分得此是象彼是理, 方說得無間. 若只是一物, 却不須更說一源無間也.”

滉按, “沖漠無眛, 而萬象森然已具”, 向來愚見, 亦與明彥同. 及得來示, 因檢出朱先生說六七條, 子細參詳, 而會其微旨, 乃知前見之差. 其答呂子約兩條, 義尤明白. 蓋眛字雖訓萌兆, 無眛, 不可專作無萌兆看, 只是言無聲臭無形影云爾, 則明彥所謂無萌兆之意, 已包在其中矣. 而所謂若天地既判, 萬物既生之後, 則不可著無眛字者, 誤矣. 子中因前儒舊說而爲言, 故別無病痛. 但其曰“此理無形無影, 而萬事萬物之理”, 此上下兩理字相帶累, 當去上理字. 不然, 下理字代以象字, 可也.

體用, 當隨處活看, 不可硬定說.

“形器已具, 其理無眛.” 此無眛⁵⁾卽沖漠無眛, 豈有異耶?⁶⁾

3) 如此: 《朱子全書》 권48 〈答呂子約〉(41)에는 뒤에 ‘亦無怪他說之未契也.’가 있다.

4) 達道: 《朱子全書》 권48 〈答呂子約〉(41)에는 뒤에 ‘而’가 있다.

5) 此無眛: 上本에는 없다.

6) 耶: 樊本·上本 ‘也’

論所當然所以然是事是理？

《大學或問》〈格物傳〉註，問：“所以然而不可易，是指理而言，所當然而不可已，是指人心而言？”【此輔漢卿問也】朱子曰：“下句只是指事而言。凡事固有所當然而不容已者，然又當求其所以然者，何故？所以然者，理也。”

八條目，論格物曰：“天下之物，必各有所以然之故，與其所當然之則，所謂理也。”注，朱子曰：“所當然之則，如君之仁，臣之敬；所以然之故，如君何故用仁，臣何故用敬云云，皆天理使之然。”新安陳氏曰：“所當然之則，理之實處；所以然之故，乃其上一層理之源頭也。”

〈格物傳〉曰：“自其一物之中，莫不有以見其所當然而不容已，與其所以然而⁷⁾不可易者。”注，西山真氏曰：“如爲君當仁臣當敬之類，乃道理合當如此，不如此則不可，故曰所當然。然仁敬等，非人力強爲，有生之初，卽稟此理，是乃天之所與也，故曰所以然。知所

7) 而：上本에는 없다.

當然，是知性，知所以然，是知天，謂知其理所從來也。”

《大全書》，陳安卿問：“理有能然，有必然，有當然，有自然處，皆須兼之，方於理字訓義爲備云云。凡事皆然，能然必然者，理在事先，當然者，正就事而直言其理，自然者，貫事理直言之也云云。”先生曰：“此意甚備。”

滉⁸⁾按，明彥以當然爲事，所以然爲理，卽朱子與輔漢卿答問之意也。然以朱子後兩說及新安陳氏⁹⁾·西山眞氏¹⁰⁾·北溪陳氏¹¹⁾諸說考之，當然者，亦固是理也。子中·明彥兩說，可以通看，不相爲礙，而究極論之，當然者爲理之說，爲長。蓋君仁臣敬之類，皆天命所當然之理，實精微之極致也。非外此而事別有所當然也。

子中疑蔡節齋說“自陰陽未生之時而言，則所謂太極者，卽在乎陰陽之中。”【說見《性理大全》〈論道門〉。】¹²⁾

8) 滉：初本에는 없다.

9) 陳氏：《文峯集》에는 없다.

10) 眞氏：《文峯集》에는 없다.

11) 陳氏：《文峯集》에는 없다.

滉按，蔡氏此語，亦見〈太極圖說〉註。詳其文則“所謂太極者”之下有“其理已具，自陰陽既生之時而言，則所謂太極者”十九字，則其語意圓足無病。其見於〈論道門〉者，闕此十九字，所以文義差舛如此。子中看得出，甚不易也。¹³⁾

12) 子中……道門：初本·中本에는 없다

13) 滉按……易也：初本에는 없다.

自省錄-20

與奇明彥書別紙【書見上】

鄙書多慮患之語，似乎無端。老生更歷世故之日多，自然慮至於此，幸勿爲怪。愚見此事極一生辛苦工夫，僅可庶幾，而舉足之始，虛聲¹⁾先播於世，此古今之通患，甚可懼也。凡所願所學，未爲實得，而人之處我，已可駭，不以聖賢地位推之，則以聖賢事業責之，若不知懼，又受而²⁾自處，則其名實未³⁾副之處，不免有文飾蓋覆，以自欺而欺人，此勢所必至。然則其末之顛蹶，何足異哉？故吾儕一爲人所知所譽，便是不好消息，其驟有進用於時，殊非可喜可願之事，若至居要地，爲衆所趨，則是決無善後之圖矣。公在今日，未必知鄙言之切，異時身履其地，當思此言。願公留意慎密爲上。今

▶ 己未年（明宗14, 1559년, 59세）10월 24일. 禮安.

[文集所在] 이 편지는 원래 이 책 17번째에 수록된 自省錄-17의 別紙이다. 즉, 〈答奇明彥〉(KNL0550)의 〈別紙〉(KNL0550A)(癸卷16:7左)(樊卷21:7左)이다.

[資料考] 《往復書》 권1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

1) 聲：上本 ‘名’

2) 而：中本·樊本·上本 ‘以’

3) 未：中本(권9)·《往復書》 ‘不’

退陶先生自省錄

日書札往復，且可如此，若公柄⁴⁾用巍顯之日，散人亦難以此⁵⁾等閒言語往復矣，故罄言之耳。

4) 柄：中本·樊本·上本·《往復書》‘秉’

5) 此：中本(권11) ‘至’

自省錄-21

答盧伊齋【守愼】

往歲奉書質疑，事甚率易．厥後病歸嶺南，潛深伏隩，自中間嘗一入都，僅¹⁾有傳聞外，千里恒阻，聲問且不能相及，況進於此者乎？意者，前書或不達，雖達，或不足留意，或緣公過爲防愼，皆不敢知，又不敢再有問訊．不謂今者，辱示《解》說，綴以報語，誦味詞旨，撫攬今昔，爲之慨然也．明²⁾師近名之戒，誠是瞶眩之藥，但此亦不可以一概斷也．人有飾智矯情掠虛造僞以

▶ 庚申年（明宗15, 1560년, 60세）8월 하순. 禮安.

[文集所在] 〈答盧伊齋【庚申】〉(KNL0074/書-盧守愼-2)(癸卷10:12左)(樊卷11:7左)

[資料考] 盧守愼은 辛亥年(1551년) 11월 1일 珍島 謫所에서 草定한 《夙興夜寐箴解》(《穌齋集》內集上篇草創錄二, 1右~11右, 〈夙興夜寐箴解初本【往復取舍本草】〉)을 退溪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였으며, 퇴계는 1554년 7월 14일 〈與盧伊齋寡悔【守愼○甲寅】〉(KNL0073)와 〈別紙〉(KNL0073A)를 보내 그에 답하였다. 盧守愼은 1558년 3월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냈고(《穌齋集》內集上篇草創錄二, 13左~15右, 〈答退溪書〉). 이 편지와 別紙는 그에 대한 답서이다. 여기에서는 본 편지만 싣고 別紙는 싣지 않았다. 中本·樊本·上本, 그리고 《穌齋集》에 실려 있는 것이 草稿이며, 《自省錄》과 문집 목판본에 실려 있는 것은 그에 대한 修正稿이다. 역시 수정 관련 교감 사항은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年代考] 初本에는 이 편지 끝에 ‘庚申八月下旬’으로 그 작성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1) 僅：上本 ‘厘’

2) 明：樊本·上本 ‘名’

得名者，其陷於禍敗，固所自取。其有實積而華發，形大而聲宏，德充而譽溢者，名之所歸，謗亦隨之，或因而不免焉，斯可盡以爲其人之罪乎？古之人有云：“苟欲避名，無爲善之路。”今人之於人，顯斥其爲善，公排其向學曰：“惡近名也，戒召患也。”至於爲善而自怠，向學而中廢者，其自諉亦然，舉俗靡靡，日趨於頹壞。嗚呼！孰謂³⁾治病之劑，而反爲迷人之毒乎？夫公之所遭，謂之非名之累，則不可，然向非絕人逃世，同群鳥獸⁴⁾，其亦末⁵⁾如之何矣。惟當不以自外至者，入於靈臺，而益俛焉孳孳，以庶幾終果無愧於名，可也。今以二親之故云云，此固人情之極，而所不能⁶⁾堪者矣，亦所不忍言者矣。雖然，謂緣此⁷⁾不能復有意學問事，則雖知其⁸⁾出於痛恨之餘，非實語也，而猶不能無疑也。

3) 謂：樊本·上本 ‘爲’

4) 獸：문집에는 뒤에 ‘其至於此’가 있다. 그런데 初本·中本·定草本·《穌齋集》·《自省錄》에는 ‘其至於此’가 없다；定草本에는 [추가 性傳所藏本, ‘獸’下, 先生手添‘其至於此’四字.]가 있고 樊本·上本에는 [두주 ‘其至於此’四字, 依印本補入.]이 있다. 今按: 이것은 목판본을 편성할 때 禹性傳이 소장한 자료에 기록된 선생 자신의 수정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樊本·上本에서는 자신이 底本으로 삼은 中本에 없었지만 목판본 편성 시 수록된 부분이 退溪의 수정 사항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본문에 補入하고 그 사정을 두주로 표시해 두었다.

5) 末：擬本 ‘末’

6) 能：初本·定草本·《穌齋集》‘可’；定草本에는 [추가 先生手改‘能’字.]가 있다.

7) 緣此；《穌齋集》에는 없다.

8) 其：初本에는 없다.

盍嘗思夫蛇至匿迹之時，其事如何？其心如何？何⁹⁾嘗以是掩抑摧隕，忘其操守，而以酒自廢乎？李延平之言曰：“如有大段排遣不去，只思古人所遭有不可堪處，持以自比，則亦少安矣。”凡若此類，想皆爲公平日之飲食裘葛，然而私心所疑，亦不敢不獻其愚，不知公以爲如何？〈夙夜〉一箴，爲學之道備矣，雖不能體行，而竊有事斯之願。向所以質疑拳拳者，得其解而喜幸於心，至其有疑處，不敢苟阿其所好，敢以瞽說，求正爲完書。然而當時，但當陳其所疑，而不當¹⁰⁾輒有所改，後來思之，深自汗慙。今承報示，其去取從違之間，知有義理，而不知有物我，平心稱停，無所吝執。觀自古論學往復之際，非唯難得肯可，至有立敵相攻如仇怨者，多矣。向¹¹⁾非公自力於學問，加工於克己之地，能若是哉？不寧惟是，又責以重辨¹²⁾，而有不合不措之喻。滉其可始發其愚，而終反有不盡耶？故敢於逐條之下，踵前作¹³⁾過，復注謬見之一二，以聽其再賜裁處，

9) 何：初本에는 없다.

10) 當：《蘇齋集》‘敢’

11) 向：初本‘而’

12) 辨：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辯’

13) 前作：樊本·上本‘作前’

其於金說亦然。嗚呼！《集註》·《章句》之所以百世無異辭者，以能集衆長而精去取，有少¹⁴⁾未安，不憚修改，期就於至善無可改，而後已焉故也。由是言之，公之於此《解》，雖至於十改，未見其爲病，而當見其益精矣。滉之於所疑，雖至於再獻，未見其太¹⁵⁾過，而或見其有補也。‘射的’之云，恐非所虞，而‘透關’之喻，尤非所擬耳。抑又有一說焉，老先生之於《集註》·《章句》，釋一字，訓一句，以至於推論章旨，一循當時立言之意，淺則淺言之，深則深言之，近則近言之，遠則遠言之，其於精粗大小，莫不皆然。故其文簡約精當，一字不可增減。至其敷衍辨證之論，則別爲《或問》等書¹⁶⁾，以盡其餘意。今則乃合《集註》與《章句》而爲一書，故或淺而深言者，有之，或近而遠言者，有之。蓋自爲一體，非欲其盡同於《章句》。然滉所以稟疑之處，多在於此，今又稟《解》末，以一論敬之病，意亦如此，不審公意亦以爲何如？南塘 陳公，不知何許人。觀其論學，似非先於考亭之世者，若後於考亭，而又在魯齋之前，則殆若及登考亭之門者，而考亭門人之列，

14) 少；《蘇齋集》‘所’

15) 太：初本·中本·樊本·上本·日本刻本‘大’

16) 書：《蘇齋集》‘說’

未見有此人，何耶？山間，典籍不備，不能考徵¹⁷⁾，三復責沈之文，殊悶人也，幸須詳以教示。¹⁸⁾

17) 典籍不備，不能考徵：初本에는 없다.

18) 教示：문집에는 뒤에 내용이 더 있다.

答奇明彥¹⁾

滉戊午入都之行，極是狼狽，而猶爲自幸者，以得見吾明彥故也。南來屏迹，邈無再款之期，而馳遡靡已。適得子中所傳手書及四端七情說而後，喜可知也。因修一書，略見區區，復於四七文字，有不能無疑處，不敢苟同，則亦粗述鄙見，以代就正焉。蓋所以求直諒之益，爲發蒙之地，不得不然，而其事則殊甚率易也。旣而思得鄙說中有一二段未安處，當改而未及耳。今秋，子中自京下鄉，示以吾友所與鄭靜而書兩紙，其所論鄙說，

▶ 庚申年(明宗15, 1560년, 60세) 9월 1일. 禮安.

[文集所在] 〈答奇明彥〉(KNL0553/書-奇大升-6)(癸卷16:14左)(樊卷21:14左)

[資料考] 《往復書》 권1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 이 편지는 奇大升이 1560년 8월 8일에 보낸 〈答上退溪先生座前〉(《往復書》 권1), 책자로 만든 四端七情第二書(〈附奇存齋論四端七情第二書〉)(〈高峯答退溪論四端七情書〉,《四七往復書》 권1), 그리고 〈小貼子〉와 李恒·金麟厚·奇大升이 太極에 대해 논한 편지(〈贈奇正字〉·〈湛齋與一齋小柬〉·〈贈奇正字書〉·〈重答湛齋書〉·〈答一齋書〉·〈奉復奇正字〉, 《往復書》 권1) 등에 대한 답장이다.

[年代考] 《往復書》 수록 편지에서 산절된 부분에 ‘上存齋賢契座下. 嘉靖三十九年庚申九月初一日, 病人眞城李滉眼昏亂草悚汗.’이라고 하여 작성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1) 《往復書》 ‘答上存齋契右’

凡有幾段，而向所自覺者，亦在其中矣。其末云：“將條析以見報。”自是，渴於承獲者有日。千里倅來，辱書諄誨，副以正謬文字一冊，論辨²⁾援證，至贍且悉，所以爲指迷之慮者，無餘蘊矣。仍審溥收涼進，素履清福，神相燕超。滉薄劣無狀，平生以病自繞，進則有叨冒尸曠之誅，退則有稽逋慙負之責，而癯老委篤，心目昏眩，身若枯藤，無復齒人之理。過去光陰，已不可追，雖有朝聞夕可³⁾之願，無明師彊輔日相策勵，但知從事於殘編⁴⁾敗冊之中，管窺蠡測，所得非全，銖累寸積，隨手消散。所以談名義則如繫風捕影，准⁵⁾心迹則若掣肘矛盾，雖蒙吾友忠告而善導之，如此其至，猶恐無以爲虛受之地·服膺之實，而副盛意之萬一也。然厚逮，不可不條報以求終誨，而鈍根之於文字義理，非積日精思，不能有所悟解，略觀所論，浩瀚微妙，茫無涯畔，未得其要領⁶⁾，加以連日客至，無暇尋繹，來使又不可久留。故今且粗修此報，而留此辨⁷⁾目，以俟後日柳太

2) 辨：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辯’

3) 可：鄭校[‘可’恐似‘死’.]

4) 編：上本‘篇’

5) 准：《往復書》‘準’

6) 其要領：上本‘要領’

7) 辨：中本·癸本·甲本·樊本·上本‘辯’

造便人，容謝不敏焉，其亦可乎？抑吾友以如此博學深造，縱之以修途逸駕。自常情言之，宜以爲吾事已了，方自大自滿之不暇，顧乃慊然於外得，而慨然於求志，殿考之事，又適其會。天之所以玉成於吾友者，何其幸也？則往歲鄙書云云，皆吾友所已獨得者，而非私憂過計之所當及也。來書不以爲不當，而每言以反復之，又可見大度之無不容·邇言之無不察矣，幸甚幸甚。出處去就之說，有疑於康侯之自決，而質之以晦菴之咨友，果如所喻。然晦菴平日定見，壁立萬仞，不以人言而少有前卻，此又不可不知者耳。所云經歷世患之故，乃處地處時，甚不得已之義，而其言太近於老人摧縮眇孱之發，其於盛年剛氣，若在斥外，而乃反深有味於其間，非熟於義理，審於酬世者，能若是乎？至若受病根源，固非庸醫所能知，況可責之以下藥乎？雖然，嘗聞之，朱夫子⁸⁾之言曰：“知其病而欲去之，則只此欲去之心，便是能去之藥。”願吾友勿訪藥於他人，卽於此句內求之，而痛下砭治，則必有神驗，非苦口之藥所能及者矣。“學至則處世無難”一條，當時謬見，實不能無疑於高明之自處如是，今得示，方釋然自知，不能盡乎人言

8) 朱夫子：《往復書》‘朱子’

之失矣。“兩持出處”以下，高明之所處所言，甚善。來書所云若燭照數計而龜卜者，非所以施於老謬，而在高明則既當之耳。其中無骨蟲一語，眞可以發一大笑。此蟲既不可爲，而覆轍又當戒蹈，此正投刃之所不敢輕處。細觀程叔子·朱夫子以至剛大名行於世，每事不放過如彼，而不嬰於世患者，徒以纔遇未安處，力辭而得遂其志故也。今則此一路既已絕塞而永廢，故一或有之，則非唯不聽，必至於衆怒群猜，窘逼多端，使不得再有辭避，同⁹⁾與爲波瀾而後已焉。夫如是，士苟一¹⁰⁾立於朝，則皆爲中鉤之魚，其剛腸疾惡者，多至於不免，依阿巽懦者，不過相戒爲模稜容悅之態而已。是二者，皆可悶也。而況蓋棺之前，此事不容中悔，發軔之初，此聲已覺四馳。德之未崇，而遽任經綸，覆餗之堦也；誠之未孚，而強聒不舍，辱身之道也。鑑前人之顛沛，率由於此，欲此學之專攻，莫善於藏。左見偶及於此，故前書發之。蓋蛾之赴燭，人不當似之，立巖墻之下，以取覆壓，自非道理云爾。若夫疾病，非如區區之甚，而不得已出於世者，其盡分盡責，各有當然，熊魚

9) 同：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而’가 있다.

10) 一：上本에는 없다.

取舍，截有定則，所謂“夭¹¹⁾壽不貳，修身以俟死”者，出與處，何殊觀耶？來喻所謂盡誠以聽命者，盡之。要之，能以其從來冀廢之心，而堅守此一句，終始不變，則庶乎其不負所學矣。惟吾友勉之，以副吾徒之慕望，幸甚。金河西，芹宮·玉堂，相與周旋，其人遊於域¹²⁾中，而放懷物表，其初入處多在老莊。故中年頗爲詩酒所壞，爲可惜，而聞其晚年留意此學。近方得見其論學文字，其見識儘精密，想其閒中所得如此，甚可嘉尚，而遽爲古人，聞來悲痛，又非尋常之比也。今送其子處慰狀，傳致是懇。¹³⁾

李一齋，久聞其名，未知其學之如何。今蒙示，以論太極相與往復之說，雖亦未暇參詳，猶見其大概，幸甚幸甚。其言之得失，非區區所及，當俟後日，獻所疑也。但覺有¹⁴⁾古人所謂“但知有己，不知有他人”之病，此

11) 夭：《往復書》‘夭’

12) 域：癸本·《往復書》‘域’

13) 傳致是懇：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別紙所喻前日三書，令兒輩謄寫呈上。所需存齋大字及白紙唐牋，所要皆不敢率意辭拒，姑並奉留，但苦乏精力，常時寫得數幅紙書，或覺倦彌日，何能強作此等事盡如意耶？雖作，正不足溷洳於雅賞，況銘記述作事耶？凡此皆擬於冬間尋得太浩家使人往來時附謝，其果未果如何耳。太浩家距此不甚邇，太浩雖來，千里之行，又怎能訪人？其相見未卜，故欲附其使人，而覺得此事勝於從都下友人轉致者，彼有廣布之嫌而此無之耳。餘惟爲斯文萬加崇珍。不宣。謹拜狀。【‘別紙’止‘狀’，《錄》無。】’가 있다. 《往復書》에는 小註는 없으며 그에 이어서 ‘上存齋賢契座下。嘉靖三十九年庚申九月初一日，病人眞城李滉眼昏亂草悚汗.’이 더 있다.

不是小病，奈何奈何？¹⁵⁾ 其一二段文義錯看，不足論也。¹⁶⁾ 惟當先去此病，然後可與論此學耳。滉僭率之甚，竊觀左右鍼一齋病處，似一一中的¹⁷⁾，而於自家，亦似未免微有此患，何耶？抑滉亦落在裏許，出脫不得，故錯認吾友說如此耶？當更詳之。王元澤是何如人？其言出何書？是其何義？後須明以教我，懇祈懇祈。餘並¹⁸⁾俟後。

退陶先生自省錄 卷一終

14) 有：上本에는 없다.

15) 奈何奈何：《往復書》‘奈何’

16) 也：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7) 中的：上本‘的中’

18) 並：樊本·上本‘并’

聖學十圖

解題

解題

退溪는 1568년 12월 16일, 宣祖(1552~1608. 재위 1567~1608)에게 자신이 편성한 《聖學十圖》와 〈進聖學十圖筭子〉를 올렸다. 그 내용은 聖學과 心法 곧 性理學의 요체를 집성한 것으로, 〈太極圖〉를 필두로 한 열 개의 圖와 圖說 및 그와 관련된 先賢들의 言說을 모아놓은 附說, 그리고 퇴계 자신의 解說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및 인용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聖學十圖》 구성 및 인용(출처) 사항

	圖	圖說	附說	解說
太極圖	周敦頤	周敦頤	朱熹	退溪
西銘圖	程復心	張載	朱熹/楊時/ 饒魯	退溪
小學圖	退溪	朱熹	朱熹	退溪
大學圖	權近	大學經文	朱熹	退溪
白鹿洞規圖	退溪	朱熹	없음	退溪
心統性情圖	程復心/ 退溪	程復心	없음	退溪
仁說圖	朱熹	朱熹	朱熹	退溪
心學圖	程復心	程復心	없음	退溪
敬齋箴圖	王柏	朱熹	朱熹/吳澄/ 眞德秀	退溪
夙興夜寐箴圖	退溪	陳柏	없음	退溪

그 구성에서 명확한 것처럼, 《聖學十圖》의 형성에는 朱熹의 언설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周敦頤와 張載, 程子, 楊時 등의 北宋 시기 유학자들, 그리고 南宋에서 元明代에 걸치는, 朱子(朱熹)의 後學이라고 할 수 있는 眞德秀(1178~1235), 饒魯(1193~1264), 王柏(1197~1274), 吳澄(1249~1333), 陳柏(明, 16세기 중후반기 활동) 등 유학자들의 언설이 인용되고 있다. 朱熹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程復心(1257~1340, 號는 林隱, 字는 子見)이다. 그는 朱熹의 제자인 黃榦과 輔漢卿의 제자로서 元代的 인물이다. 그가 많이 인용된 것은 그의 학문에 대한 퇴계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학십도》와 유사한 성격의 《四書章圖》의 저자로서, 《四書章圖》가 당시 조선에 소개되어 퇴계가 구득한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의 선배 유학자로는 陽村 權近(1352~1409)이 유일하게 인용되었다. 양촌에 대해 퇴계는 한편으로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의 언설이 유일하게 인용된 것은 程復心과 마찬가지로 그가 《入學圖說》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저작의 저자이기도 한 것과 함께 또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성학십도》는 완전히 독창적인 저작이 아니라 주로 朱子를 중심으로 하여, 北宋에서 元明代에 걸치는 新儒學 계열의 유학자들과 조선의 선배 학자의 언설을 집성한 集成本의 성격을 가진다. 그것을 바친 2년 후 퇴계가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통상 거기에 퇴계 학문의 정수가 집약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述而不作’을 강조하는 유학의 전통적 관점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聖學十圖》의 編成 혹은 編輯에서 퇴계 자신의 독창성 혹은 독자성을 읽어 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또한 퇴계가 《聖學十圖》 전체를 다 인용으로 채우고 있는 것도 아니다. 퇴계 자신이 10개의 그림에 빠짐없이

解題

해설을 붙여 놓은 것은 물론이고, 〈小學圖〉, 〈白鹿洞規圖〉, 〈夙興夜寐箴圖〉의 세 그림은 스스로 그렸으며, 上·中·下의 三圖로 구성되어 있는 〈心統性情圖〉의 中圖와 下圖는 鄭復心の 원래 그림을 버리고 그에 대신하여 스스로 그린 것으로 고봉과의 四端七情論辨의 성과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퇴계는 분명 《聖學十圖》의 주요한 저자인 것이다.

또한 퇴계는 어떤 경우에는 先賢이 그린 그림이나 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修正하여 인용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수정에서 퇴계 자신의 독자적 견해의 흔적을 발견해 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퇴계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는 《聖學十圖》를 편성하여 선조에게 올린 후 판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판각이 이미 끝난 후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두 방향의 수정 작업은 그가 《聖學十圖》의 적극적인 저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수정의 국면에서 퇴계 晩年の 학문의 자취와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宋代 이후 東아시아 新儒學에서 유학자들은 자신의 학문을 聖人을 지향하는 학문, 곧 聖學으로 규정했으며, 그것은 곧 帝王을 위한 帝王學을 士大夫의 학문인 道學의 체계 속으로 통합해 낸 것이었다. 退溪가 宣祖에게 바친 《聖學十圖》는 그러한 聖學의 이념을 간명하게 표출한 것인 동시에 聖學의 내용과 방법의 핵심을 담은 것으로, 朱子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중국 宋·元·明 시대 新儒學 사상가들의 사상의 精髓 위에 조선 성리학의 역사상의 成就를 결합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凡例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1) 基準本

《聖學十圖》의 基準本은 圖說의 경우 榮川本으로 하고, 圖의 경우 1744년 本을 基準本으로 하되 수정된 부분은 榮川本을 병행해서 제시한다. 榮川本은 榮川郡守 許忠吉이 海州本을 模刻하여 1572년 8월에 펴낸 목판본이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계명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對校本

〈單行本〉

(1) 1569년本: 1569년(己巳年) 校書館에서 木版으로 인쇄된 初刊本이다. 현재 陶山書院과 계명대학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海州本: 黃海道 觀察使를 역임했던 朴承任(1517~1586) 혹은 尹斗壽(1533~1601)에 의해 海州 監營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1570년에서 1572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3) 咸興本: 1572년 5월, 咸興府에서 간행된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569년 교서관본을 대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1744년本: 1744년(영조20) 왕명으로 校書館에서 重刊한 것으로, 도산서원과 서울대 규장각, 영남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定本 退溪全書 ㉓

있다.

(5) 1755년본: 1755년(영조31) 왕명으로 校書館에서 重刊한 것으로, 서울대 규장각과 영남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文集 木板本〉

- (1) 癸本: 《退溪先生文集》, 癸卯校正本,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本
- (2) 庚本: 《退溪先生文集》, 庚子本, 慶熙大圖書館 소장본
- (3) 擬本: 《退溪先生文集》, 擬庚子本, 陶山書院(國學振興院 委託) 소장본
- (4) 甲本: 《退溪先生文集》, 甲辰重刊本, 養閑堂本 啓明大圖書館 소장본

〈文集 筆寫本〉

- (1) 樊本: 《陶山全書》, 樊南本, 退溪學研究院 影印本
- (2) 上本: 《陶山全書》, 上溪本, 陶山書院(國學振興院 委託) 소장본

〈文集 草本〉

- (1) 中本: 《退溪先生集》, 中草本, 陶山書院(국학진흥원 위탁) 소장본
- (2) 定草本: 《退溪先生文集》, 定草本, 陶山書院(국학진흥원 위탁) 소장본

〈기타 자료〉

- (1) 《聖學十圖附錄》: 后山 許愈 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1250-54)

〈校正, 校勘 및 考證 자료〉

- (1) 養校: 養閑堂本 상란에 기재된 교정기록. 養閑堂 李世恒(1692~1766)의 수택본.

凡例

- (2) 柳校: 柳道源(1721~1791)의 《退溪先生文集攷證》(1788년), 韓國文集叢刊 수록본
- (3) 李校: 李野淳(1755~1831)의 《要存錄》, 啓明漢文學研究會 《退溪學文獻全集》 수록본
- (4) 《朱子大全》: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朱子全書》 共27冊, 2002
- (5)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 (6) 《心經附註》: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古1252-41)
- (7) 《中庸章圖櫟括總要》: 《續修四庫全書》160, 《四書輯釋》 수록본.
- (8) 《孟子章圖櫟括總要》: 《續修四庫全書》160, 《四書輯釋》 수록본.

2. 定本の 構成

1) 本文의 구성

각 자료는 기본적으로 題目, 圖, 그리고 圖說 本文으로 구성된다.

2) 題下註

해당 저작과 관련된 정보들을 [編輯考], [資料考], [年代考]의 순서대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제시한다.

- (1) [編輯考]는 문집 편집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시한다.
- (2) [資料考]는 자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年代考]는 작성 시기 추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작성 시기 추정의 근거를 서술한다.

3) 本文

- (1) 본문 전체를 원형대로 수록한다.
- (2) 기준본 본문의 글자가 誤字임에 분명해 보이는 경우, 만약 대교본에 수정된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본문을 수정하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면 고치지 않는다. 또한 어떤 경우든 관련 사항을 校勘註 내에 按說(今按)로 제시한다.
- (3) 避諱하여 ‘滉’을 ‘某’라 한 것 등은 퇴계 자신이 避諱한 것이 아니면 避諱하지 않고 원래대로 쓴다. 임금 등을 높이기 위해 한 자를 띄운 것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 (4)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훼손된 부분을 추정한 글자

4) 校勘記

- (1) 校勘記는 脚註의 형식으로, 교감 사항을 간단하게 작은따옴표(‘ ’) 속에 기록하며, 각 판본의 조성 순서에 따라 草本類, 木板本類, 筆寫本類의 순서로, 그리고 이어서 手稿類 및 對方文集 등 傍系資料, 校正 및 校勘記錄의 순서대로 기록한다. 기본적으로 각 판본과 자료의 성격별로 세미콜론(;)을 써서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순서대로 통합하여 정리한다.

- (2) 위에서 열거된 독립적인 교정기 외에 각 판본별로 본문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경우,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교정기],

凡例

[부전지], [추기], [두주], [산거표시]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 ① ‘부전지’는 附箋紙가 붙어 있는 경우, ‘추기’는 본문 上欄 등 혹은 附箋紙 위에 추가로 직접 필사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두주’는 본문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된 본문 上欄의 주석 기록의 경우에 사용한다. ‘교정기’는 附箋紙 혹은 追記의 방식으로 單字 교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산거표시’는 산거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 ② 이들 사항은 교감 글자에 붙어 있는 경우 함께 이어서 표시하거나 ‘X에는 [부전지]가 있다.’ 등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 ③ 기준본의 頭註는 본문 요소로 간주하여 가장 먼저 표시하되 ‘[두주]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와 관련된 두주나 부전지 상황을 모아서 표시한다. 다른 경우들은 본문 글자에 대한 교감이 뒤에 기록한다.
- ④ 靑墨, 朱墨 등 글자의 색은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부전지 상에 追記가 있는 경우는 [부전지][추기]의 형식으로 이어서 표시한다. 부전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부전지][부전지]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 ⑥ 교정 및 교감 기록은 ‘鄭校 []’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3) 본문의 글자가 誤字가 명백한 경우, 교감주의 내용에 대해 교감작업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혹은 독자적인 교감 및 교정 의견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 ’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4)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3. 文字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밑줄(),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하며, 각

凡例

저작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부호를 첨가할 수 있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

凡例

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로 표시한다.

(9) 밑줄()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

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解題	i
凡例	v

聖學十圖

進聖學十圖笥子【庚申】	1
第一 太極圖	6
太極圖說	7
第二 西銘圖	9
西銘	11
第三 小學圖	13
小學題辭	14
第四 大學圖	17
大學經	18
第五 白鹿洞規圖	20
洞規後叙	21
第六 心統性情圖	23
心統性情圖說	25
〈早号1〉	28
〈早号2〉	29
第七 仁說圖	30
仁說	31
第八 心學圖	34

心學圖說	35
第九 敬齋箴圖	37
敬齋箴	38
第十 夙興夜寐箴圖	40
夙興夜寐箴	41

聖學十圖

進聖學十圖劄子 【庚申】

判中樞府事臣李滉，謹再拜上言。臣竊伏以道無形象，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出，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然而道之浩浩，何處下手？古訓千萬，何所從入？聖學有大端，心法有至要，揭之以爲圖，指之以爲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斯亦後賢之所不得已而作也。而況人主一心，萬幾²⁾所由，百責所萃，衆欲互攻，群邪迭鑽。一有怠忽，而放縱繼之，則如山之崩，如海之蕩，誰得而禦之？古之聖帝明王，有憂於此。是以，兢兢業業，小心畏慎，日復一日，猶以爲未也。立師傅之官，列諫諍之職，前有疑，後有丞，左有輔，右有弼。在輿有旅賁之規，位宁有官師之典，倚几有訓誦之諫，居寢有瞽³⁾御之箴，臨事有瞽史之導，宴居有工師之誦。以至盤盂·几杖·刀劔·戶牖，凡目之所

[年代考] 《年譜》(권2: 15b~16a), 〈履歷草記〉(《春塘集》, 권4:20b), 〈家庭雜錄〉(《蒙齋集》, 권2:6b)에 의하면, 이 차자는 戊辰年(1568년) 12월 16일에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退溪는 이때 서울에 있었다.

- 1) 劄子：文集 木版本 諸本에는 ‘子’가 없다. 1569本에서는 ‘字’로 잘못 인쇄되어 있다.
- 2) 幾：樊本·上本 ‘機’
- 3) 瞽：李校 [‘瞽’恐‘瞽’, ‘瞽’與褻同, 近習之常侍左右者曰‘瞽御’.]

寓，身之所處，無不有銘有戒。其所以維持此心防範此身者，若是其至矣。故德日新而業日廣，無纖過而有鴻號矣。後世人主，受天命而履天位，其責任之至重至大爲如何？而所以自治之具，一無如此之嚴也，則其憫然自聖·傲然自肆於王公之上·億兆之戴，終歸於壞亂殄滅，亦何足怪哉？故于斯之時，爲人臣而欲引君當道者，固無所不用其心焉。若張九齡之進《金鑑錄》，宋璟之陳《無逸圖》，李德裕之獻《丹扆六箴》，眞德秀之上《豳風七月圖》之類，其愛君憂國拳拳之深衷，陳善納誨懇懇之至意，人君可不深念而敬服也哉？臣以至愚極陋，辜恩累⁴⁾朝。病廢田里，期與草木同腐，不意虛名誤達，召置講筵之重。震越惶恐，辭避無路。既不免爲此叨冒，則是勸導聖學，輔養宸德，以期致於堯·舜之隆，雖欲辭之以不敢，何可得也？顧臣學術荒疎，辭辯拙訥，加以賤疾連仍，入侍稀罕，冬寒以來，乃至全廢。臣罪當萬死，憂慄罔措。臣竊伏惟念 當初上章論學之言，既不足以感發天意，及後登對屢進之說，又不能以沃贊睿猷。微臣惴惴，不知所出。惟有昔之賢人君子，明聖學而得心法，有圖有說，以示人入道

4) 累：《聖學十圖附錄》‘屢’

聖學十圖

之門·積德之基者，見行於世，昭如日星。茲敢欲乞以是進陳於左右，以代古昔帝王工誦器銘之遺意。庶幾借重於既往，而有益於將來。於是，謹就其中揀取其尤著者，得七焉。其心統性情，則因程圖而附以臣作二小圖。其三者，圖雖臣作，而其文其旨，條目規畫，一述於前賢，而非臣創造。合之爲《聖學十圖》，每圖下，輒亦僭附謬說，謹以繕寫投進焉。第緣臣恹寒纏疾之中，自力爲此，眼昏手顫，書未端楷，排行均字，並無准⁵⁾式。如蒙勿卻，乞以此本，下諸經筵官，詳加訂論，改補差舛。更令善寫者精寫正本，付之該司，作爲御屏一坐，展之清燕之所，或別作小樣一件粧貼爲帖，常置几案上，冀得於俯仰顧眄之頃，皆有所觀省警戒焉，則區區願忠之志，幸莫大焉。而其義意有所未盡者，臣請得而申言之。竊嘗聞之，孟子之言曰：“心之官則思。思則得之，不思則不得也。”箕子之爲武王陳〈洪範〉也，又曰：“思曰睿，睿作聖。”夫心具於方寸而至虛至靈，理著於圖書而至顯至實。以至虛至靈之心，求至顯至實之理，宜無有不得者。則思而得之，睿而作聖，豈不足以有徵於今日乎？然而心之虛靈，若無以主宰，則事當

5) 准：上本‘準’

前而不思，理之顯實，若無以照管，則日常接而不見。此又因圖致思之不可忽焉者然也。抑又聞之，孔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學也者，習其事而真踐履之謂也。蓋聖門之學，不求諸心，則昏而無得，故必思以⁶⁾通其微，不習其事，則危而不安，故必學以踐其實。思與學，交相發而互相益也。伏願聖明深燭此理，先須立志，以爲“舜何人也，予何人也？有爲者亦若是”，奮然用力於二者之功。而持敬者，又所以兼思學·貫動靜·合內外·一顯微之道也。其爲之之法，必也存此心於齋莊靜⁷⁾一之中，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不睹不聞之前，所以戒懼者愈嚴愈敬，隱微幽獨之處，所以省察者愈精愈密。就一圖而思，則當專一於此圖，而如不知有他圖。就一事而習，則當專一於此事，而如不知有他事。朝焉夕焉而有常，今日明日而相續。或紬繹玩味於夜氣清明之時，或體驗栽培於日用酬酢⁸⁾之際。其初猶未免或有掣肘矛盾之患，亦時有極辛苦不快活之病，此乃古人所謂‘將大進之幾，亦爲好消息之端。’切毋因此而自沮，尤當自信而益勵。至於積眞之多·用力

6) 以：上本‘而’

7) 靜：樊本‘精’

8) 酢：上本‘酌’

聖學十圖

之久，自然心與理相涵而不覺其融會貫通，習與事相熟而漸見其坦泰安履。始者各專其一，今乃克協于一。此實孟子所論‘深造自得’之境·‘生則烏可已’之驗。又從而俛焉孳孳，既竭吾才，則顏子之心不違仁，而爲邦之業在其中，曾子之忠恕一貫，而傳道之責在其身。畏敬不離乎日用，而中和位育之功可致，德行不外乎彝倫，而天人合一之妙斯得矣。是其爲圖爲說，僅⁹⁾取敘陳於十幅紙上。思之習之，只做工程於平日燕處，而凝道作聖之要，端本出治之源，悉具於是。惟在天鑑，留神加意，反復終始，勿以輕微而忽之，厭煩而置之，則宗社幸甚，臣民幸甚。臣不勝野人芹曝之誠，冒瀆宸嚴，輒以爲獻。惶懼屏息，取進止。

9) 僅：上本‘謹’[부진지 ‘謹’字當考.]

第一 太極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太極圖說

無極而太極。太極動而生陽，動極而靜，靜而生陰，靜極復動，一動一靜，互爲其根，分陰分陽，兩儀立焉。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五氣順布，四時行焉。五行一陰陽也，陰陽一太極也，太極本無極也。五行之生也，各一其性。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乾道成男，坤道成女。二氣交感，化生萬物，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惟人也，得其秀而最靈。形既生矣，神發知矣。五性感動，而善惡分，萬事出矣。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焉。故聖人“與天地合其德，日月合其明，四時合其序，鬼神合其吉凶。”君子修之，吉。小人悖之，凶。故曰：“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與義。”又曰：“原始反終，故知死生之說。”大哉《易》也！斯其至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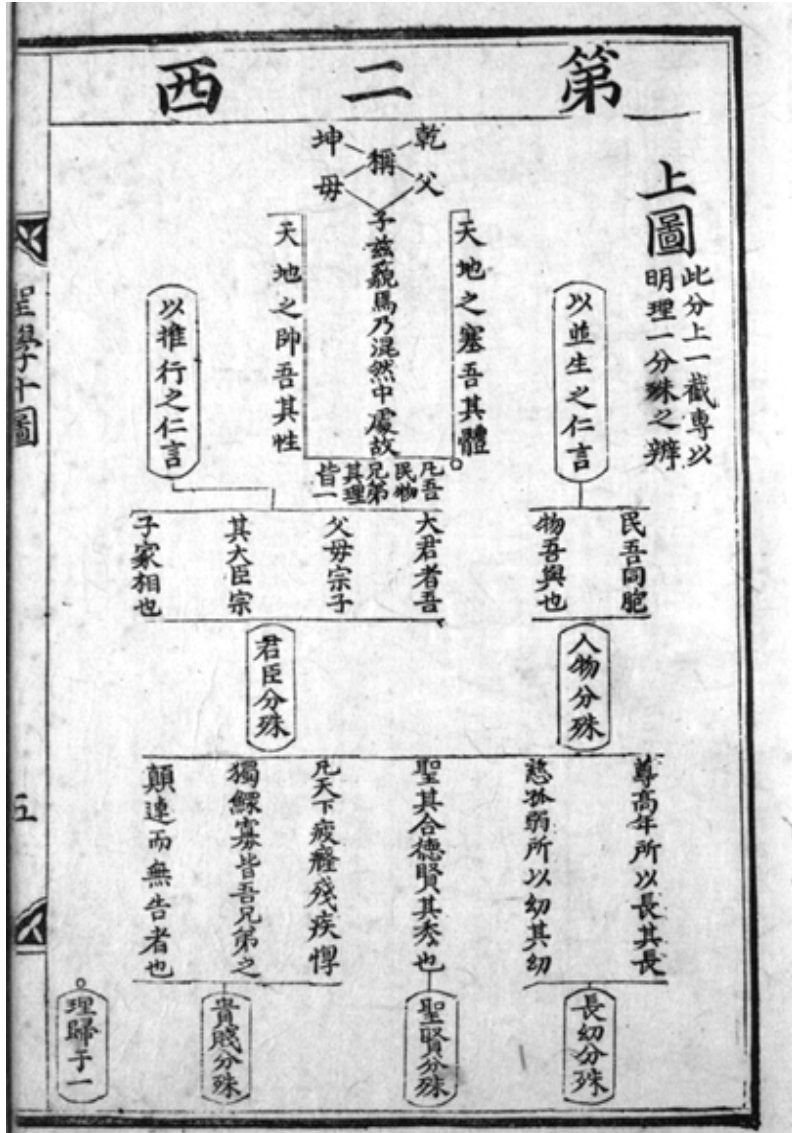
朱子曰：“〈圖說〉首言陰陽變化之原，其後即以人所稟受明之。自惟人也得其秀而最靈，純粹至善之性也，是所謂太極也。形生神發，則陽動陰靜之爲也。五性感動，則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之性也。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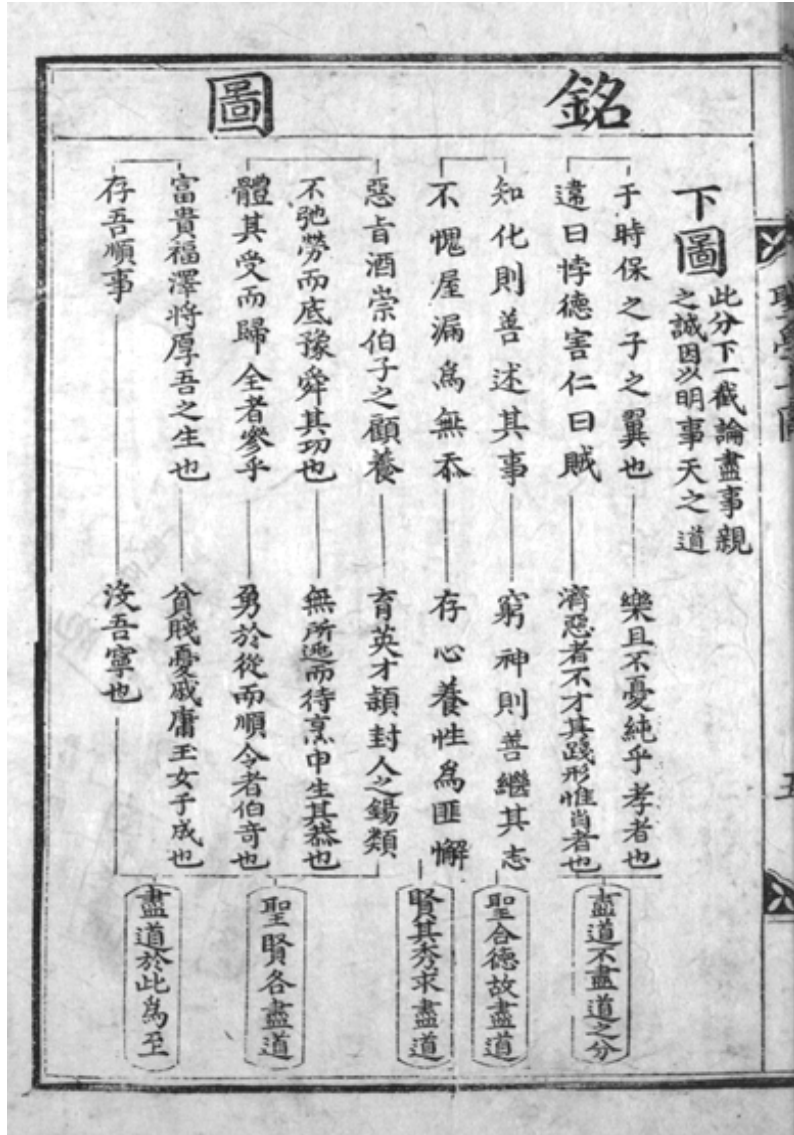
惡分，則成男成女之象也。萬事出，則萬物化生之象¹⁾也。至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焉，則又有得乎太極之全體，而與天地混合無間矣。故下文又言天地·日月·四時·鬼神，四者無不合也。”又曰，“聖人不假修爲而自然也。未至此而修之，君子之所以吉也。不知此而悖之，小人之所以凶也。修之悖之，亦在乎敬肆之間而已矣。敬則欲寡而理明，寡之又寡，以至於無，則靜虛動直，而聖可學矣。”

○右，濂溪 周子自作圖並說。平巖 葉氏謂：“此圖即〈繫辭〉‘《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之義而推明之。但《易》以卦爻言，圖以造化言。”朱子謂“此是道理大頭腦處”，又以爲“百世道術淵源。”今茲首揭此圖，亦猶《近思錄》以此說爲首之意。蓋學聖人者，求端自此，而用力於《小》·《大學》之類，及其收功之日，而遡極一源，則所謂“窮理盡性而至於命”，所謂“窮神知化，德之盛”者也。

1) 象：《朱子語類》에는 ‘義’로 되어 있다.

第二 西銘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西銘

乾稱父，坤稱母。予茲藐焉，乃混然中處。故天地之塞，
吾其體，天地之帥，吾其性。民吾同胞，物吾與也。大
君者，吾父母宗子，其大臣，宗子之家相也。尊高年，
所以長其長，慈孤弱，所以幼其幼。聖其合德，賢其秀
也。凡天下疲癯殘疾惛獨鰥寡，皆吾兄弟之顛連而無告
者也。“于時保之”，子之翼也，“樂且不憂”，純乎孝者
也。違曰悖德，害仁曰賊。濟惡者，不才，其踐形，惟
肖者也。知化則善述其事，窮神則善繼其志。不愧屋漏
爲無忝，存心養性爲匪懈。惡旨酒，崇伯子之顧養，育
英才，穎封人之錫類。不弛勞而底豫，舜其功也，無所
逃而待烹，申生其恭也。體其受而歸全者，參乎，勇於
從而順令者，伯奇也。富貴福澤，將厚吾之生也，貧賤
憂戚，庸玉女¹⁾于成也。存吾順事，沒吾寧也。

朱子曰：“〈西銘〉，程子以爲明理一而分殊。蓋以
乾爲父，坤爲母，有生之類，無物不然，所謂理一也。
而人物之生，血脈之屬，各親其親，各子其子，則其

1) 女：中本·定草本·樊本上本‘汝’

分亦安得而不殊哉？一統而萬殊，則雖天下一家，中國一人，而不流於兼愛之蔽。萬殊而一貫，則雖親疎異情，貴賤異等，而不梏於爲我之私。此〈西銘〉之大旨也。觀其推親親之厚，以大無我之公，因事親之誠，以明事天之道，蓋無適而非所謂分立而推理一也。”又曰：“《銘》前一段如棋盤，後一段如人下棋。”○龜山 楊氏曰：“〈西銘〉，理一而分殊。知其理一，所以爲仁。知其分殊，所以爲義。猶孟子言‘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其分不同，故所施不能無差等耳。”○雙峯 饒氏曰：“〈西銘〉前一節²⁾，明人爲天地之子。後一節，言人事天地，當如子之事父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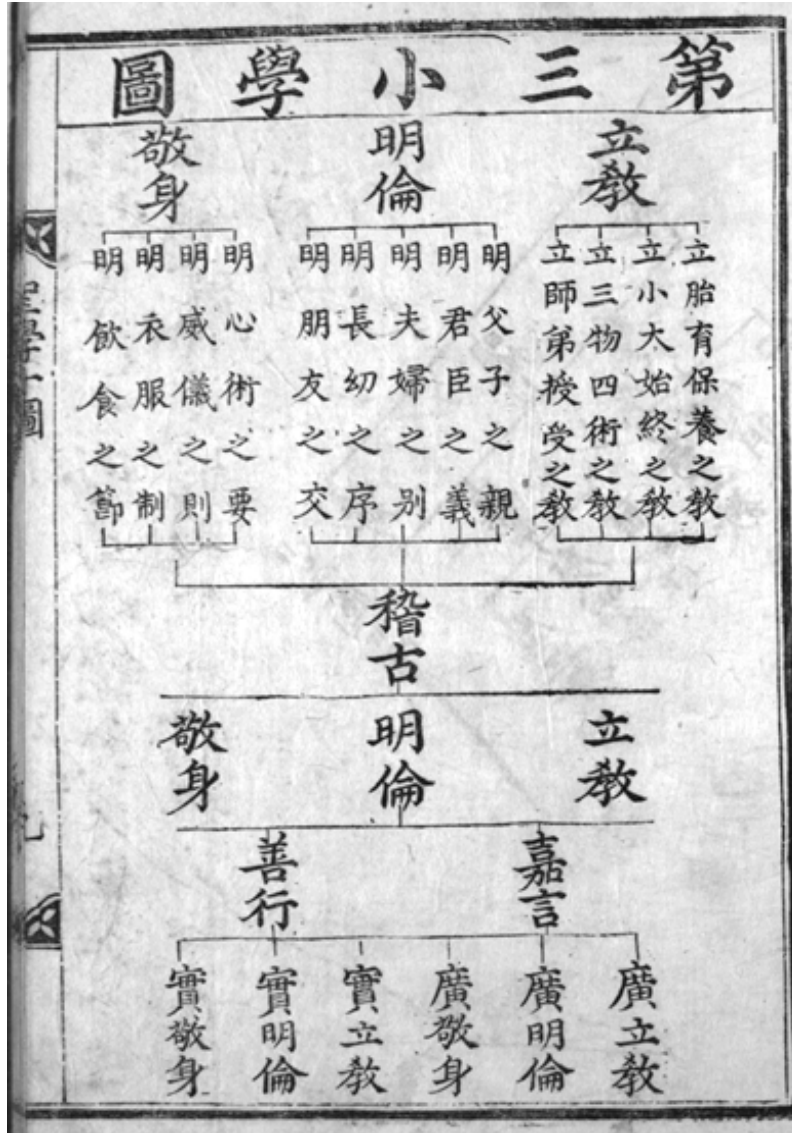
○右銘，橫渠 張子所作。初名訂頑，程子改之爲西銘。林隱 程氏作此圖。蓋聖學在於求仁，須深體此意，方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真實如此處，爲仁之功，始親切有³⁾味，免於莽蕩無交涉之患，又無認物爲己之病，而心德全矣。故程子曰：“〈西銘〉意極完備，乃仁之體也。”又曰：“充得盡時，聖人也。”

2) 節：樊本·上本‘絕’

3) 切有：上本‘功末’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小學題辭

元亨利貞，天道之常，仁義禮智，人性之綱。
凡此厥初，無有不善，藹然四端，隨感而見。
愛親敬兄，忠君弟長，是曰秉彝，有順無彊。
惟聖性者，浩浩其天，不加毫末，萬善足焉。
衆人蚩蚩，物欲交蔽，乃頹其綱，安此暴棄。
惟聖斯惻，建學立師，以培其根，以達其支。

《小學》之方，灑掃應對，入孝出恭，動罔或悖。
行有餘力，誦詩讀書，詠歌舞蹈，思罔或逾。
窮理修身，斯學之大，明命赫然，罔有內外。
德崇業廣，乃復其初，昔非不足，今豈有餘。
世遠人亡，經殘教弛，蒙養弗端，長益浮靡。
鄉無善俗，世乏良材，利欲紛拏，異言喧豗。
幸茲秉彝，極天罔墜，爰輯舊聞，庶覺來裔。
嗟嗟小子，敬受此書，匪我言耄¹⁾，惟聖之謨。

或問：“子方將語人以《大學》之道，而又欲其考乎
《小學》之書，何也？”朱子曰：“學之大小，固有不

1) 耄：樊本‘髦’

聖學十圖

同，然其爲道則一而已。是以，方其幼也，不習之於《小學》，則無以收其放心，養其德性，而爲《大學》之基本。及其長也，不進之於《大學》，則無以察夫義理，措諸事業，而收《小學》之成功。今使幼學之士，必先有以自盡乎灑掃應對進退之間·禮樂射御書數之習，俟其既長而後，進乎明德·新民，以止於至善，是乃次第之當然，又何爲不可哉？”曰：“若其年之既長而不及乎此者，則如之何？”曰：“是其歲月之已逝，固不可追。其功夫之次第條目，豈遂不可得而復補耶？吾聞敬之一字，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爲《小學》者，不由乎此，固無以涵養本源，而謹夫灑掃應對進退之節與夫六藝之教。爲《大學》者，不由乎此，亦無以開發聰明，進德修業，而致夫明德新民之功也。不幸過時而後學者，誠能用力於此，以進乎大，而不害兼補乎其小，則其所以進者，將不患其無本而不能以自達矣。”

○右《小學》，古無圖。臣謹依本書目錄爲此圖，以對《大學》之圖。又引朱子《大學或問》通論大小之說，以見二者用功之梗概。蓋《小學》·《大學》，相待而成，所謂²⁾一而二，二而一者也，故《或問》

2) 謂：癸本 등 문집에는 모두 ‘以’로 되어 있으나, 1569年本·海州本·榮川本에는 ‘謂’로 되어 있다；養校[‘以’館本‘謂’.] 今按: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聖學十圖》初刊本(1569년 校書館本)에는 ‘謂’로 되어 있다. 養閑堂本の 상관의 교정기록(養校)에

得以通論，而於此兩圖，可以兼收相備云.

館本이라 한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第四 大學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大學經

大學之道，在明明德，在新民，在止於至善。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安而后能慮，慮而后能得。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¹⁾，先致其知，致知，在格物。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誠，意誠而后心正，心正而后身修，身修而后家齊，家齊而后國治，國治而后天下平。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其本亂而末治者，否矣，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未之有也。

或曰：“敬，若何以用力耶？”朱子曰：“程子嘗以主一無適言之，嘗以整齊嚴肅言之。門人謝氏之說，則有所謂常惺惺法者焉。尹氏之說，則有其心收斂不容一物者焉云云。敬者，一心之主宰，而萬事之本根也。知其所以用力之方，則知《小學》之不能無賴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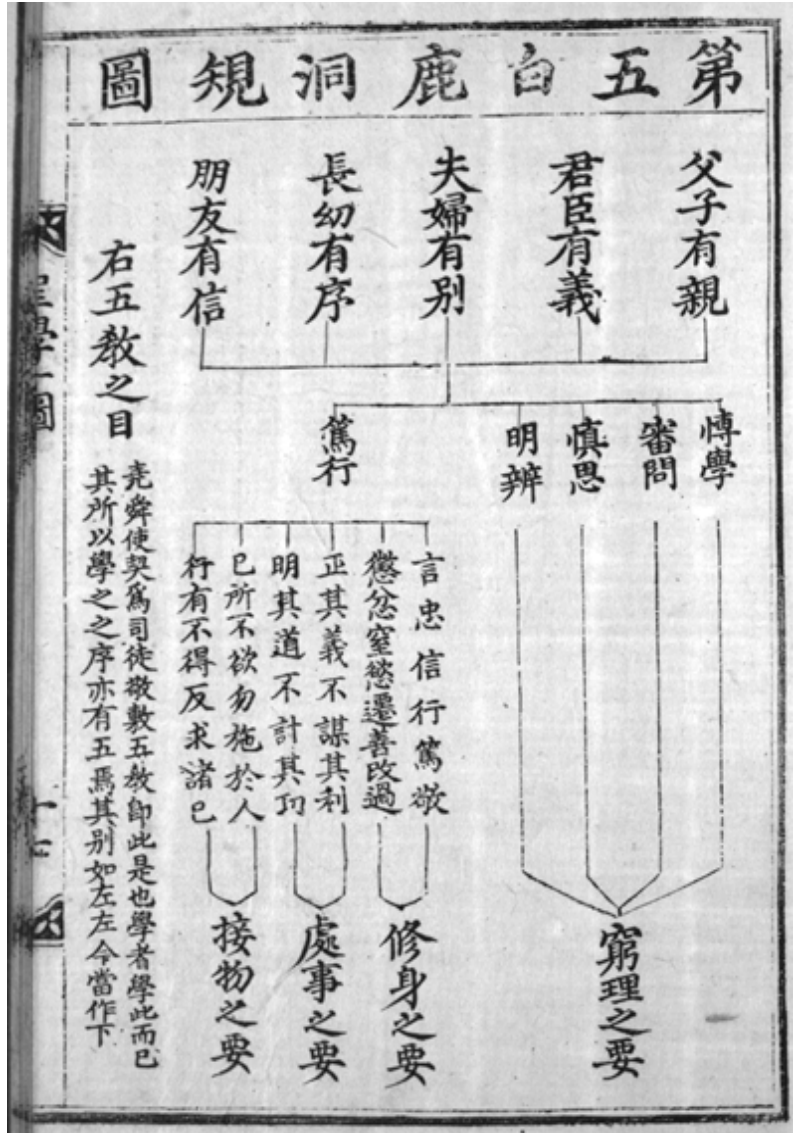
1) 者：樊本‘則’

聖學十圖

此以爲始，知《小學》之賴此以始，則夫《大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終者，可以一以貫之而無疑矣。蓋此心既立，由是格物致知，以盡事物之理，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則所謂‘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則所謂‘修己以安百姓’·‘篤恭而天下平。’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然則敬之一字，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

○右，孔氏遺書之首章。國初，臣權近作此圖，章下所引《或問》通論《大》·《小學》之義，說見〈小學圖〉下。然非但二說當通看，並與上下八圖，皆當通此二圖而看。蓋上二圖，是求端擴充體天盡道極致之處，爲《小學》·《大學》之標準本原。下六圖，是明善誠身崇德廣業用力之處，爲《小學》·《大學》之田地事功，而敬者又徹上徹下，著工收效，皆當從事而勿失者也。故朱子之說如彼，而今茲十圖，皆以敬爲主焉。【〈太極圖說〉，言靜不言敬，朱子註中，言敬以補之。】

第五 白鹿洞規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聖學十圖

洞規後叙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以及人，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釣聲名取利祿而已。今之爲學者，既反是矣。然聖賢所以教人之法，具存於經，有志之士，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苟知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則夫規矩禁防之具，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近世於學有規，其待學者爲已淺矣，而其爲法，又未必古人之意也。故今不復施於此堂，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條列如右，而揭之楣間，諸君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則夫思慮云爲之際，其所以戒謹恐懼者，必有嚴於彼者矣。其有不然，而或出於禁防之外，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固不得而略也。諸君其念之哉！

○右規，朱子所作以揭示白鹿洞書院學者。洞在南康軍北匡廬山之南，有唐李渤隱于此，養白鹿以自隨，因名其洞。南唐建書院，號爲國庠，學徒常數百人。宋太宗頒書籍，官洞主，以寵勸之，中間蕪廢，朱子知南康軍，請于朝重建，聚徒設規，倡明道學，

書院之教，遂盛于天下。臣今謹依規文本目，作此圖以便觀省。蓋唐虞之教，在五品，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故規之窮理力行，皆本於五倫。且帝王之學，其規矩禁防之具，雖與凡學者有不能盡同者，然本之彝倫，而窮理力行，以求得夫心法切要處，未嘗不同也。故並獻是圖，以備朝夕警御之箴。

○以上五圖，本於天道，而功在明人倫·懋德業。

第六 心統性情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 1) 癸本에는 [두주 上圖下方, 有“臣謹按, 程子云‘信無端’, 此有信之端, 竊恐當從程子說”二十一字. 見三十七卷〈答李平叔書〉. 中圖有‘仁’·‘義’·‘禮’·‘智’·‘虛’·‘靈’·‘知’·‘覺’位置改本, 下圖有‘仁義禮智信’·‘虛’·‘靈’·‘知’·‘覺’·‘清濁粹駁’位置改本, 並見三十卷〈與金而精別紙〉.]가 있다. 今按: 頭註는 제6도 心統性情圖에 대한 改本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退溪가 《聖學十圖》를 올린 후 밝힌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文集에 수록된 《聖學十圖》는 〈進聖學十圖劄〉에 첨부된 자료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형을 보존하여 수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집 외에 따로 통행된 《聖學十圖》 중에는 退溪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癸本에 이르러 두주에서 그러한 수정에 따른 改本이 있음을 기록해 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문석윤, 〈退溪의 《聖學十圖》 修正에 관한 연구〉(《退溪學報》제130집, 2011.12) 참조.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隆慶 壬申秋(1572년 8월) 開刊 榮川本〉

聖學十圖

心統性情圖說

林隱 程氏曰：“所謂心統性情者，言人稟五行之秀以生，於其秀²⁾而五性具焉，於其動而七情出焉。凡所以統會其性情者則心也。故其心寂然不動，爲性，心之體也。感而遂通，爲情，心之用也。”張子曰“心統性情”，斯言當矣。心統性，故仁義禮智爲性，而又有言‘仁義之心’者。心統情，故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而又有言惻隱之心·羞惡辭讓是非之心者。心不統性，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心不統情，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學者知此，必先正其心，以養其性，而約其情，則學之爲道，得矣。”【臣謹按程子〈好學論〉“約其情”，在正心養性之前，此反居後者，此以心統性情言故也。然究其理而言之，當以程論爲順。○圖有未穩處，稍³⁾有更定。】

○右三圖，上一圖，林隱 程氏作，自有其說矣。其中·下二圖，臣妄竊推原聖賢立言垂教之意而作。其中圖者，就氣稟中指出本然之性，不雜乎氣稟而爲

2) 秀：[교정기 ‘秀’疑‘靜’]이 있다；養校 [下{‘秀’字恐‘靜’}.]；1744本 ‘靜’[보수한 흔적이 있음.] 今按：원 출처인 程復心の 《孟子章圖櫟括總要》에는 ‘秀’로 되어 있다.

3) 稍：樊本에는 없다.

言，子思所謂天命之性，孟子所謂性善之性，程子所謂即理⁴⁾之性，張子所謂天地之性，是也。其言性，既如此，故其發而爲情，亦皆指其善者而言。如子思所謂中節之情，孟子所謂四端之情，程子所謂“何得以不善名之”之情，朱子所謂“從性中流出，元無不善”之情，是也。其下圖者，以理與氣合而言之，孔子所謂‘相近’之性，程子所謂“性即氣·氣即性”之性，張子所謂‘氣質之性’，朱子所謂“雖在氣中，氣自氣，性自性，不相夾雜”之性，是也。其言性，既如此，故其發而爲情，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如四端之情，理發而氣隨之，自純善無惡，必理發未遂而掣於氣，然後流爲不善。七者之情，氣發而理乘之，亦無有不善，若氣發不中而滅其理，則放而爲惡也。夫如是，故程夫子之言曰：“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二之則不是。”然則孟子·子思所以只指理言者，非不備也。以其並氣而言，則無以見性之本善故爾，此中圖之意也。要之，兼理氣統性情者，心也。而性發爲情之際，乃一心之幾微，萬化之樞要，善惡之所由分也。學者誠能一於持敬，不昧理⁵⁾欲，而尤致謹於此，未發而存養之功深，已發而省察之習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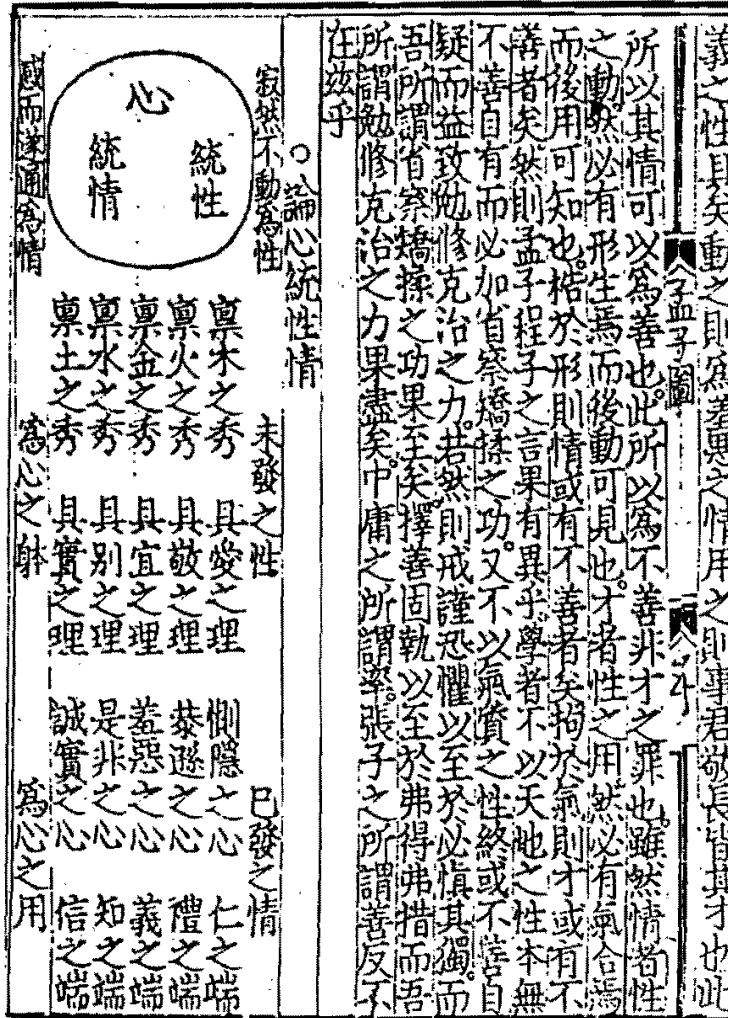
4) 理：樊本‘性’

5) 理：樊本‘利’

聖學十圖

眞積力久而不已焉，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存體應用之心法，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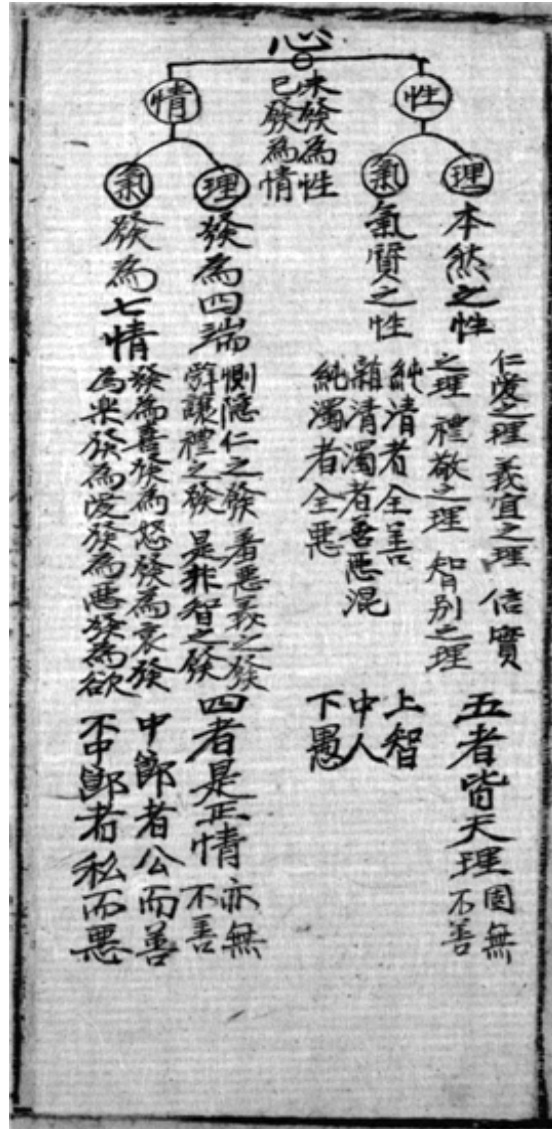
〈부록1〉



〈程復心の「心統性情圖」1〉 (《四書集釋 孟子章圖彙括總要》, 《續修四庫全書》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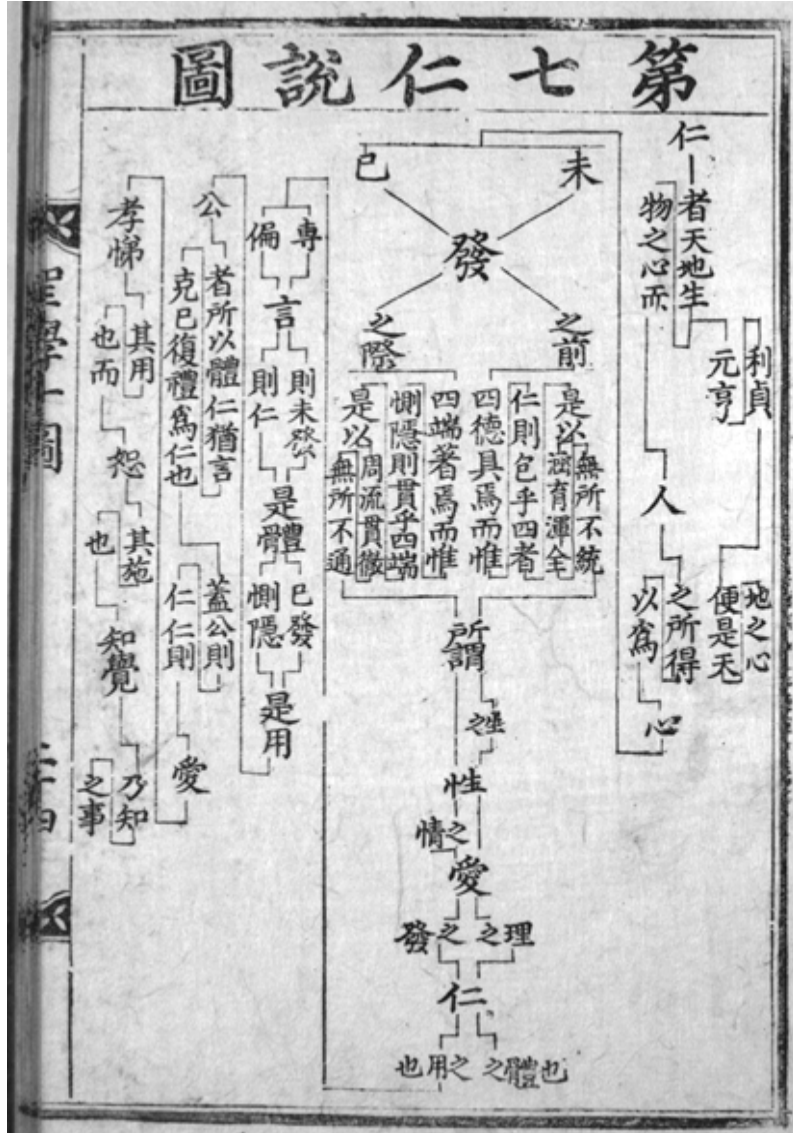
聖學十圖

〈부록2〉



〈程復心の 〈心統性情圖〉2〉 (《陶山全書》제2책, 281쪽)

第七 仁說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仁說

朱子曰：“仁者，天地生物之心，而人之所得以爲心。未發之前，四德具焉，而惟仁則包乎四者。是以，涵育渾全，無所不統，所謂生之性·愛之理，仁之體也。已發之際，四端著焉，而惟惻隱則貫乎四端。是以，周流貫徹¹⁾，無所不通，所謂性之情·愛之發，仁之用也。專言則未發是體，已發是用。偏言則仁是體，惻隱是用。公者，所以體仁，猶言克己復禮爲仁也。蓋公則仁，仁則愛，孝悌其用也，而恕其施也，知覺乃知²⁾之事。”

又曰：“天地之心，其德有四，曰元亨利貞，而元無不統³⁾，其運行焉，則爲春夏秋冬之序，而春生之氣，無所不通。故人之爲心，其德亦有四，曰仁義禮智，而仁無不包，其發用焉，則爲愛恭宜別之情，而惻隱之心，無所不貫。蓋仁之爲道，乃天地生物之心，即物而在，情之未發而此體已具，情之既發而其用不窮。誠能體而

1) 徹：樊本‘澈’

2) 知：擬校 [추가 ‘乃知’之‘知’，當作‘智’.]

3) 統：中本·定草本·庚本·甲本·擬本·樊本·上本‘通’；擬校·養校 [‘通’《朱子大全》及館本皆作‘統’] 今按：현재 통행본 《朱子大全》(晦庵集) 권67 〈仁說〉에도 ‘統’으로 되어 있다.

存之，則衆善之源·百行之本，莫不在是。此孔門之教所以必使學者汲汲於求仁也。其言有曰‘克己復禮爲仁’，言能克去己私，復乎天理，則此心之體無不在，而此心之用，無不行也。又曰‘居處恭，執事敬，與人忠’，則亦所以存此心也。又曰‘事親孝，事兄悌，及物恕’，則亦所以行此心也。此心，何心也？在天地則塊然生物之心，在人則溫然愛人利物之心，包四德而貫四端者也。或曰：‘若子之言，程子所謂愛情仁性，不可以愛名仁者，非歟？’曰：‘不然。程子之所謂，以愛之發而名仁者也，吾之所論，以愛之理而名仁者也。蓋所謂情性者，雖其分域之不同，然其脈絡之通，各有攸屬者，則曷嘗離絕而不相管哉？吾方病夫學者誦程子之言而不求其意，遂至於判然離愛而言仁，故特論此，以發明其遺意，子以爲異乎程子之說，不亦誤哉？’曰：‘程氏之徒，有以萬物與我爲一爲仁之體者⁴⁾，亦有以心有知覺釋仁之名者，皆非歟？’曰：‘謂物我爲一者，可以見仁之無不愛，而非仁之所以爲體之眞也。謂心有知覺者，可以見仁之包乎智矣，而非仁之所以得名之實也。觀孔

4) 者：榮川本에 해당하는 규장각 소장(상백)본에는 아래의 ‘者’와 아울러 [교정기 “兩‘者’下俱脫‘矣’字”]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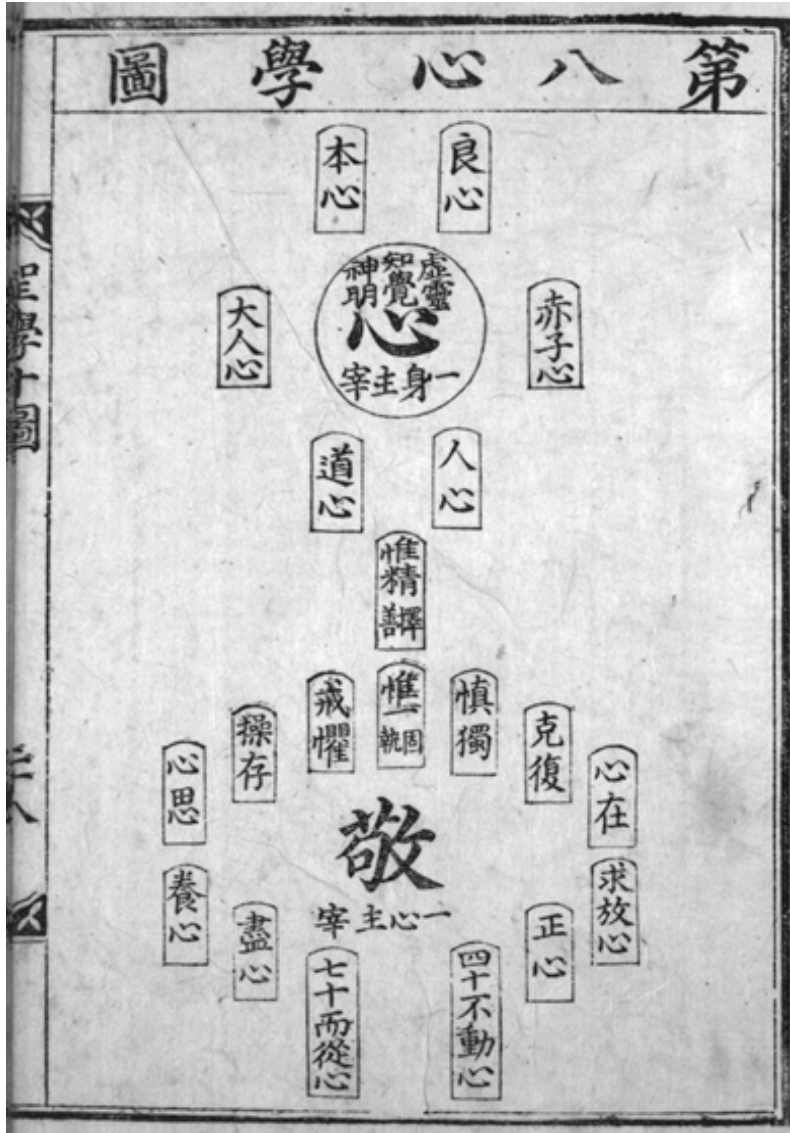
聖學十圖

子答子貢博施濟衆之間與程子所謂覺不可以訓仁，則可見矣。子⁵⁾安得以此而論仁哉?’”

○右仁說，朱子所述，並自作圖，發明仁道，無復餘蘊。《大學》傳曰：“爲人君，止於仁。”今欲求古昔帝王傳心體仁之妙，盍於此盡意焉？

5) 子：中本·1569本·海州本·榮川本‘予’；榮川本(기준본)에는 [교정기 ‘子’]가 있다.
이 교정기에 의거해 본문을 고쳤다.

第八 心學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心學圖說

林隱 程氏[復心¹⁾]曰：“赤子心是人欲未汨之良心，人心即覺於欲者。大人心是義理具足之本心，道心即覺於義理者。此非有兩樣心。實以生於形氣，則皆²⁾不能無人心。原於性命，則所以爲道心。自精一擇執以下，無非所以遏人欲而存天理之工夫也。慎獨以下，是遏人欲處工夫，必至於不動心，則‘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可以見其道明德立矣。戒懼以下，是存天理處工夫，必至於‘從心’，則心即體，欲即用，體即道，用即義，‘聲爲律而身爲度’，可以見‘不思而得，不勉而中’矣。要之，用工之要，俱不離乎一³⁾敬。蓋心者，一身之主宰，而敬又一心之主宰也。學者熟究於主一無適之說・整齊嚴肅之說，與夫其心收斂・常惺惺之說，則其爲工夫也盡，而優入於聖域，亦不難矣。”

1) 復心：中本에는 큰 글자로 되어 있다；擬本에는 [부전지 ‘復心’二字，當在上.]이 있다.

2) 皆：[교정기 《心經》無‘皆’字]가 있다. 今按：실제로 《心經》에는 없으나，程復心の 《中庸章圖櫟括總要》에는 ‘皆’가 있다.

3) 一：[교정기 《心經》無‘一’字]가 있다. 今按：《心經》에는 없으나，程復心の 《中庸章圖櫟括總要》에는 ‘一’이 있다.

○右林隱程氏掇取聖賢論心學名言爲是圖，分類對置，多而不厭，以見聖學心法亦非一端，皆不可不用功力云爾。其從上排下，只以淺深生熟之大概言之有如此者，非謂其工程節次如致知·誠意·正心·修身之有先後也。或疑既云以大概敍之，求放心是用工初頭事，不當在於心在之後。臣竊以爲求放心，淺言之則固爲第一下手著脚處。就其深而極言之，瞬息之頃，一念少差亦是放，顏子猶不能無違於三月之後，更不能無違。斯涉於放，惟是顏子“纔差失，便能知之，纔知之，便不復萌作”，亦爲求放心之類也。故程圖之敍如此。程氏字子見，新安人。隱居不仕，行義甚備，白首窮經⁴⁾，深有所得，著《四書章圖》三卷。元仁宗朝，以薦召至，將用之，子見不願，即以爲鄉郡博士，致仕而歸。其爲人如此，豈無所見而妄作耶？

4) 經：上本‘理’

第九 敬齋箴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敬齋箴

正其衣冠，尊其瞻視，潛心以居，對越上帝。足容必重，手容必恭，擇地而蹈，折旋蟻封。出門如賓，承事如祭，戰戰兢兢，罔敢或易。守口如瓶，防意如城，洞洞屬屬，罔敢或輕。不東以西，不南以北，當事而存，靡他其適。弗貳以二，弗參以三，惟心¹⁾惟一，萬變是監。從事於斯，是曰持敬，動靜弗違，表裏交正。須臾有間，私欲萬端，不火而熱，不冰而寒。毫釐有差，天壤易處，三綱既淪，九法亦斁。於乎小子，念哉敬哉。墨卿司戒，敢告靈臺。

朱子曰：“周旋中規，其回轉處欲其圓如中規也。折旋中矩，其橫轉處欲其方如中矩也。蟻封，蟻垤也。古語云‘乘馬折旋於蟻封之間’，言蟻封之間，巷路屈曲狹小，而能乘馬折旋於其間，不失其馳驟之節，所以爲難也。守口如瓶，不妄出也。防意如城，閑邪之入也。”又云：“敬須主一，初來有介²⁾事，又添一

1) 心：今按：星湖 李瀾은 《星湖全集》 권13:18右-左에서 이것이 ‘精’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이른바 《書·大禹謨》에 나오는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현행 《朱熹集》 권85에 실려 있는 〈敬齋箴〉에는 ‘精’으로 되어 있다.

聖學十圖

个，便是來貳，他成兩個。元有一个，又添兩個，便是³⁾參⁴⁾，他成三⁵⁾个。須臾之間，以時言。毫釐之差，以事言。”○臨川 吳氏曰：“箴凡十章，章四句。一言靜無違，二言動無違，三言表之正，四言裏之正，五言心之正而達於事，六言事之主一而本於心，七總前六章，八言心不能無適之病，九言事不能主一之病，十總結一篇。”○西山 眞氏曰：“敬之爲義，至是無復餘蘊。有志於聖學者，宜熟復之。”

○右箴題下，朱子自叙曰：“讀張敬夫〈主一箴〉，掇其遺意，作〈敬齋箴〉，書齋壁以自警云。”又曰“此是敬之目，說有許多地頭去處。”臣竊謂‘地頭’之說，於做工好有據依，而金華 王魯齋 柏⁶⁾排列地頭作此圖，明白整齊，皆有下落又如此，常宜體玩警省於日用之際·心目之間，而有得焉，則敬爲聖學之始終，豈不信哉！

2) 介：甲本‘个’；養校[‘个’，《語類》‘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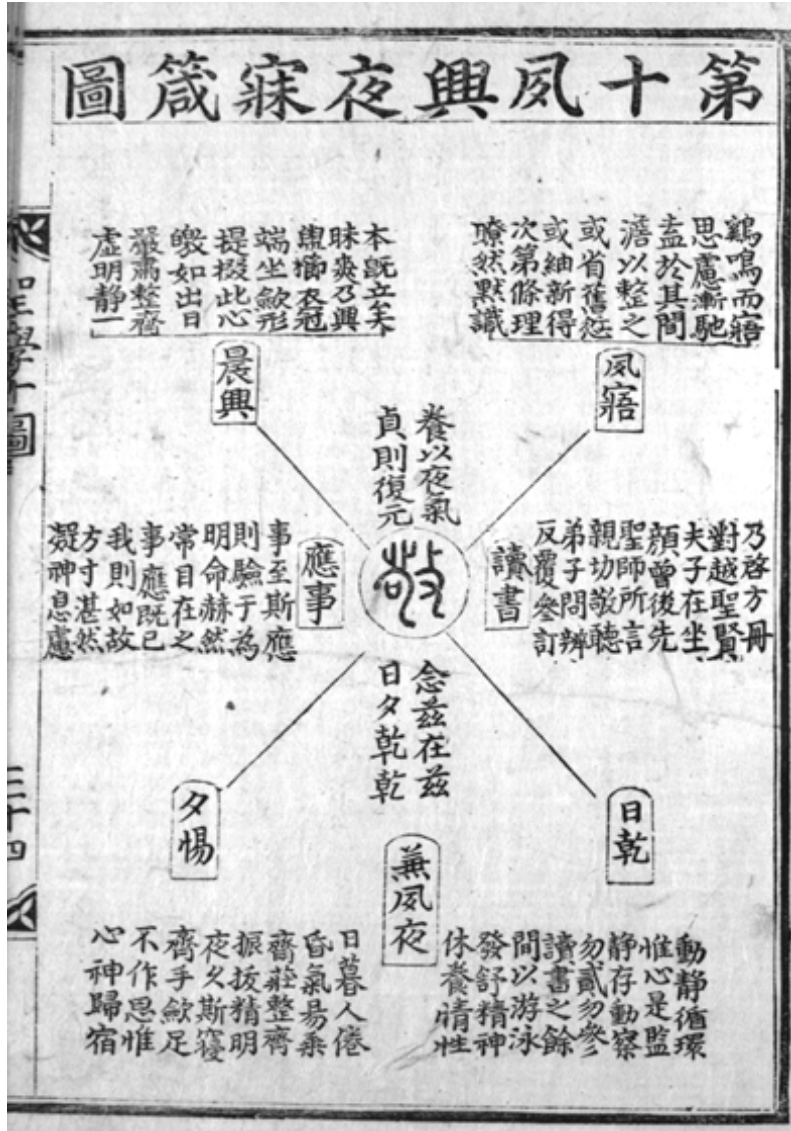
3) 是：養校[‘是’，《語類》‘來’.] 今按：《朱子語類》에는 해당 부분의 인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敬須主一. 初來有一箇事，又添一箇，便是來貳，他成兩箇；元有一箇，又添兩箇，便是來參，他成三箇.”

4) 參：定草本에는 [교정기 ‘三’]이 있다.

5) 三：中本·定草本 ‘參’；定草本에는 [교정기 ‘三’]이 있다.

6) 柏：癸本에는 小註로 되어 있다.

第十 夙興夜寐箴圖



〈도산서원 소장 1744년 교서관 내사본〉

夙興夜寐箴

鷄鳴而寤，思慮漸馳，盍於其間，澹以整之？或省舊愆，或紬新得，次第條理，瞭¹⁾然默識。本既立矣，昧爽乃興，盥櫛衣冠，端坐斂形。提掇此心，皦如出日，嚴肅整齊，虛明靜一。乃啓方冊，對越聖賢，夫子在坐²⁾，顏·曾後先。聖師所言，親切敬聽，弟子問辨，反覆參訂。事至斯應，則驗于爲，明命赫然，常目在之。事應既已，我則如故，方寸湛然，凝神息慮。動靜循環，惟心是監，靜存動察，勿貳勿參。讀書之餘，間以游泳，發舒精神，休養情性。日暮人倦，昏氣易乘，齋莊正³⁾齊，振拔精明。夜久斯寢，齊手斂足，不作思惟，心神歸宿。養以夜氣，貞則復元，念茲在茲，日夕乾乾。

○右箴，南塘 陳茂卿 柏所作以自警者，金華 王魯齋嘗主教台州 上蔡書院，專以是箴爲教，使學者人人誦習服行。臣今謹倣魯齋〈敬齋箴圖〉，作此圖以與彼圖相對。蓋〈敬齋箴〉有許多用工地頭，故隨其地

1) 瞭：上本‘瞭’

2) 坐：樊本·上本‘座’

3) 正：癸本 등 문집에는 ‘整’으로 되어 있다；養校 [‘整’之■■■■■]

頭而排列爲圖。此箴有許多用工時分，故隨其時分而排列爲圖。夫道之流行於日用之間，無所適而不在，故無一席無理之地，何地而可輟工夫？無頃刻之或停，故無一息無理之時，何時而不用工夫？故子思子曰：“道也者，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又曰：“莫見乎隱，莫見⁴⁾乎微。故君子，慎其獨也。”此一靜一動，隨處隨時，存養省察，交致其功之法也。果能如是，則不遺地頭而無毫釐之差，不失時分而無須臾之間。二者並進，作聖之要，其在斯乎！

○以上五圖，原於心性，而要在勉日用崇敬畏。

4) 見：癸本 등 문집에는 ‘顯’으로 되어 있다.

古鏡重磨方

解題

《古鏡重磨方》은 퇴계의 저술은 아니지만 퇴계가 成湯부터 원나라 吳澄에 이르기까지 24명의 글을 채록하여 편찬한 選集이다. 《古鏡重磨方》의 내용은 箴 13편, 銘 53편, 贊 4편 총 7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古鏡重磨方》은 퇴계의 選集으로 알려지면서 門徒를 중심으로 널리 읽히고 전파되었으며, 이후 조선 한문학에서 잠명류의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자의 강학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王命에 의해 관본으로 간행되는 등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심신 수양서로 두루 활용되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李野淳(1755~1831)의 《退溪先生年譜補遺》에 의하면 퇴계는 《古鏡重磨方》을 1559년 9월에 완성하였다. 하지만 퇴계 생전에는 제자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데, 月川 趙穆(1524~1606)이 1595년(宣祖 28) 도산서원에서 手稿本 형태로 발견하고 필사하여 전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¹⁾

1607년(선조 40, 丁未年) 寒岡 鄭逵(1543~1620)에 의해 安東都護府에서 9行 14字本으로 초간되었다. 이후 乙丑年(肅宗 11, 1685) 寧邊府에서 간행된 10行 20字本, 甲子年(英祖 20, 1744) 영조의 명을 받아 金在魯(1682~1759)가 쓴 〈御製篇題〉가 붙어있는 8行 16字의 校書館 刻本, 甲辰年(高宗 8, 1904) 盧相稷(1855~1931)의 주도로 密陽 蘆谷에서 간행된 10行 20字本の 4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초간본 외 3종은 모두 版下本을 다시 쓰고 본문의 체제를 달리한 중간본의 형태이다. 刊本の 발행과 더불어 조선 후기 선비들의 마음을 닦는 수양서로 두루 필사되어 다수의 寫本이 기관 및 개인소장으로 전하고 있다.²⁾

1) 《月川先生文集·年譜》 1595년조 참조.

-
- 2) 임기영, <《古鏡重磨方》의 간행과 판본>《書誌學研究》제56집, 2013); 이광호 외 옮김, 《퇴계 선생이 엮은 옛 사람들의 마음 닦기》(학자원, 2019); 정석태 編,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退溪學研究院, 2005); 김윤조, <箴銘類 산문의 전통과 《古鏡重磨方》>《大東漢文學》제59집, 2019) 등 참조.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古鏡重磨方》은 목판본 4종과 다수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1595년 趙穆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이후 趙穆, 琴蘭秀(1530~1604) 등 당시 유학자들이 필사하여 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초간본이 간행된 후에도 조선 후기 유학자들에게 심신 수양서로 활용되면서 필사의 형태로 상당수가 기관(60 여종 이상) 및 개인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사본의 경우 그 수량이 많고 대체로 간행자·간행연도가 불분명하여 자료의 신뢰도 및 반영할 만한 특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대교본에서 제외한다.

목판으로 간행된 4종의 판본과 주요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木版本>

- 《古鏡重磨方》, 安東府本, 1책, 丁未年(1607년), 安東都護府, 9行 14字本,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 소장.
- 《古鏡重磨方》, 寧邊府本, 1책, 乙丑年(1685년 추정), 寧邊都護府, 10行 20字本, 국회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미국),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등 소장.
- 《古鏡重磨方》, 校書館本, 1책, 甲子年(1744년), 校書館, 8行 16字本,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 소장.
- 《古鏡重磨方》, 蘆谷本, 甲辰年(1904년), 密陽 蘆谷, 10行 20字本, 경상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소장.

퇴계의 手寫本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우며 본문의 오류 및 인용 원전과의 차이도 가장 적은 丁未年 初刊本 安東府本을 기준으로 삼고, 乙丑重刊本인 寧邊府本, 甲子重刊本인 校書館本, 甲辰重刊本인 密陽 蘆谷本을 대교본으로 삼는다. 安東府本은 계명대학교 소장본, 寧邊府本은 국회도서관 소장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校書館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密陽 蘆谷本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위주로 활용하였다.

2. 정본의 구성

1) 머리말: 固有番號

- (1) 고유번호는 《古鏡重磨方》에 실린 내용 전체의 一連番號이다.
- (2) 고유번호는 ‘(古鏡01)’의 형식으로 부여한다. 고유번호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定本の 편집순서와 일치하며, 安東府本 《古鏡重磨方》의 순차를 가리킨다.
- (3) 같은 고유번호 안에 소제목으로 구별된 경우는 본문에서 소제목 위에 ‘(古鏡01-1)’과 같이 일련번호 형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 間 : (古鏡19-1)

視箴

(古鏡19-2)

聽箴

2) 題目

凡例

基準本の 제목을 표시한다. 異本の 表題가 基準本과 차이가 있는 경우 校勘記를 달아 이본의 표제 전체를 표시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校勘記에는 基準本の 제목을 다시 표기하지는 않는다.

3) 本文

(1) 《古鏡重磨方》의 本文을 기록한다.

(2) 기준본인 초간본 간행 이후 중간된 판본들에 있는 序文이나 跋文 등은 본문 마지막에 [부록]으로 편성하여 싣는다.

(3) 기준본의 본문 글자만이 異本들의 그것과 다르고 인용 원전에도 차이점이 없는 경우는 정본 본문에서 기준본 글자를 수정하고 주석을 통해 수정 근거를 밝힌다.

예) 久 : 기준본인 安東府本에는 ‘人’으로 되어있으나 寧邊府本·校書館本·蘆谷本에 의해 ‘久’로 수정하였다.

(4) 기준본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각주를 달아 밝히고 본문을 수정하되 인용 원전을 달리 새긴 경우나 생략, 도치 등은 기본적으로 기준본 본문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각주를 통해 그 내용을 밝힌다.

(5) 追記, 頭註 등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집 범례에 준하여 교감주에 표시한다.

(6) 본문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자 처리 관련 범례를 따른다.

(7) 諸 版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아래에 각주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한다. 校勘記 작성 범례는 아래를 참고.

(8)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위의 표점 원칙을 참고.

(9) 기준본에 들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정본 본문에서는 한 줄을 띄우는 것으로 나타낸다.

(10)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한 글자

4) 題下註

1번 주석 위에 제하주로 ‘▶’표시를 하고 원저자와 원문의 출전을 밝힌다. 원저자명은 《古鏡重磨方》의 원문을 그대로 쓰고, 옆에 괄호()를 하여 활동 시기 및 生沒年의 기본 인명 정보를 제공한다. 원문에 호칭으로 쓰인 경우는 괄호 안에 성명을 추가로 기입한다. 이어서 인용한 원전의 제목 정보를 제공하며, 출전은 ‘본문은 《~》에 실려 있다.’라고 서술한다.

예1) ▶ 陳德秀 (宋, 1178-1235), 본문은 《西山文集》에 실려 있다.

예1) ▶ 伊川先生 (程頤, 宋, 1033-1107), 본문은 《河南程氏文集》 등에 실려 있다.

5) 校勘記

基準本과 對校本들 사이의 異同 사항을 표시한다. 異本 자료 모두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 의견이 있다면 그

凡例

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2) 校勘記의 校勘 臺本들 가운데 다음 판본들은 略號를 사용한다.

丁未 初刊本 → 安東府本 (기준본)

乙丑 重刊本 → 寧邊府本

甲子 重刊本 → 校書館本

甲辰 重刊本 → 蘆谷本

(3) 校勘記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단어·구절을 쓰고 ‘:’을 찍은 후 기준본인 安東府本의 교감 내용을 맨 앞에 기록한다. 이어서 책이 간행된 연대에 따라 寧邊府本, 校書館本, 蘆谷本 순서로 교감 사항을 기록한다. 인용 원전의 교감 내용은 대조본이 아니라 참조본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를 찍고 작성하며 위치는 맨 마지막으로 한다. 이는 이용자가 대조 자료 사이의 異同 및 變遷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1) 誠 : 寧邊府本 ‘成’, 校書館本 ‘戒’, 蘆谷本 ‘恂’ ; 《西山文集》 ‘戒’

(4)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 혹은 표제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를 해서 밝힌다. 교감내용이 동일한 대조본은 가운데점(·)을 쓰고 해당 글자를 한 번만 쓴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는, 없으면 ‘~에는 없다’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熙：寧邊府本 ‘熙’, 校書館本 ‘熙’, 蘆谷本 ‘熙’

→ 熙：寧邊府本·校書館本·蘆谷本 ‘熙’

예2) 也：寧邊府本에는 없고 [추가 一本‘病’下, 有‘也’字.]가 있다.

(5) 각 대교본의 본문 上欄이나 下欄 혹은 左右側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경우 그것은 본문과 별도로 취급하며, 그 중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속에 넣어 표시하되, [추가], [두주]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추가’는 臺本 위에 추가로 직접 필사되어 있는 기록을, ‘두주’는 본문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된 상란 주석 기록을 일컫는다.

(6) 對校本의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경우라도 校勘記를 달 수 있다.

(7) 對校本의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8)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9)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

凡例

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凡例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로 표시한다.

(9) 밑줄(_)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凡例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解題	i
凡例	iii

古鏡重磨方

古鏡-序	1
古鏡01 盤銘 (成湯)	2
古鏡02 席四端銘 (武王)	3
古鏡03 鑑銘 (武王)	4
古鏡04 鑑銘 (武王)	5
古鏡05 楹銘 (武王)	6
古鏡06 杖銘 (武王)	7
古鏡07 金人銘【古之慎言人也。】(周廟)	8
古鏡08 座右銘 (崔子玉)	9
古鏡09 座右銘 (魏 卞蘭)	10
古鏡10 座右銘 (白居易)	11
古鏡11 續座右銘 (李至)	12
古鏡12 陋室銘 (劉禹錫)	13
古鏡13 槃水銘 (司馬君實)	14
古鏡14 司馬公布衾銘 (范堯夫)	15
古鏡15 茅齋銘 (魏華父)	16
古鏡16 座右銘 (范益謙)	17
古鏡17 五箴 (韓退之)	18

(古鏡17-1) 游箴	18
(古鏡17-2) 言箴	19
(古鏡17-3) 行箴	19
(古鏡17-4) 好惡箴	19
(古鏡17-5) 知名箴	20
古鏡18 楮衾銘【示子志道】(眞西山)	21
古鏡19 四勿箴【并序】(伊川先生)	23
(古鏡19-1) 視箴	23
(古鏡19-2) 聽箴	24
(古鏡19-3) 言箴	24
(古鏡19-4) 動箴	24
古鏡20 西銘(橫渠先生)	25
古鏡21 東銘(橫渠先生)	27
古鏡22 克己銘(呂與叔)	28
古鏡23 座右銘(張思叔)	29
古鏡24 心箴(范蘭溪)	30
古鏡25 求放心齋銘(晦菴先生)	31
古鏡26 尊德性齋銘【內弟程允夫以‘道問學’名齋，予謂當以‘尊德性’易之。允夫請銘，因爲作此。】(晦菴先生)	32
古鏡27 志道齋銘【四齋銘】(晦菴先生)	33
古鏡28 據德齋銘(菴先生)	34
古鏡29 依仁齋銘(晦菴先生)	35
古鏡30 游藝齋銘(晦菴先生)	36
古鏡31 崇德齋銘【南劍州 尤溪縣學四齋銘】(晦菴先生)	37
古鏡32 廣業齋銘(晦菴先生)	38
古鏡33 居仁齋銘(晦菴先生)	39
古鏡34 由義齋銘(晦菴先生)	40
古鏡35 學古齋銘【浦城 周侯嗣恭，葺其先大父徽猷公所作學古齋，烹爲題其榜，又推	

古鏡重磨方

其意，作銘曰。】(晦菴先生)	41
古鏡36 蒙齋銘【據《性理大全》以係朱子，今按《真西山集》有此銘。其序云：“桂陽史君，張侯某，以蒙名齋，西山復真某，取果行育德之義爲之銘。然則當改係西山。】(真德秀)	42
古鏡37 敬義齋銘【同上】(真德秀)	44
古鏡38 敬齋銘(南軒先生)	45
古鏡39 主一齋銘(南軒先生)	46
古鏡40 書字銘(晦庵先生)	47
古鏡41 紫陽琴銘(晦庵先生)	48
古鏡42 窓銘(晦庵先生)	49
古鏡43 寫照銘【乾道九年，歲在癸巳，予年四十有四，而容髮凋悴遽已如此。然亦將脩身以畢此生而已，無他念也。福唐元爲予寫照，因銘自戒。】(晦庵先生)	50
古鏡44 敬齋箴【讀張敬夫〈主一箴〉，掇其遺，作〈敬齋箴〉，書齋壁以自警云。】(晦庵先生)	51
古鏡45 調息箴(晦庵先生)	52
古鏡46 警學贊(晦庵先生)	53
古鏡47 復卦贊(晦庵先生)	54
古鏡48 復卦義贊(南軒)	55
古鏡49 主一箴(南軒)	56
古鏡50 心經贊(真西山)	57
古鏡51 勿齋箴【爲陳無競作。】(真西山)	59
古鏡52 思誠齋箴【爲陳若虛作。】(真西山)	61
古鏡53 夜氣箴(真西山)	62
古鏡54 敬銘(吳草廬)	64
古鏡55 和銘(吳草廬)	65
古鏡56 自新銘(吳草廬)	66
古鏡57 自修銘(吳草廬)	68
古鏡58 消人欲銘(吳草廬)	69

古鏡59 長天理銘 (吳草廬)	70
古鏡60 克己銘 (吳草廬)	71
古鏡61 理一箴 (吳草廬)	72
古鏡62 夙興夜寐箴 (陳茂卿)	75
古鏡63 綱齋銘〔爲東巖 王次點作.〕 (眞西山)	76
古鏡64 讀書樓銘 (張南軒)	77
古鏡65 葵軒石銘 (張南軒)	78
古鏡66 南劍州 尤溪縣 傳心閣銘〔爲石子重作〕 (張南軒)	79
古鏡67 顧齋銘〔爲宇文紹節作.〕 (張南軒)	81
古鏡68 魯齋箴 (北山 何文定公)	82
古鏡69 愛日箴〔爲族孫璞作.〕 (王魯齋文憲公)	84
古鏡70 虛舟銘 (眞西山)	85
古鏡-跋	86

古鏡重磨方

古鏡-序

古鏡重磨要古方，眼明偏與日爭光，明明直照吾家路，
莫指并州作故鄉。

右朱夫子送¹⁾林熙之詩五首中一首。李先生手寫箴銘，
取此詩首句之義以名之。學者其有以體之哉。茲弁諸
首，使開卷敬玩，知此書所以得名之意云。

萬曆 丁未 六月日 門人 鄭逑 敬識。

▶ 宣祖 40年 丁未年(1607) 退溪의 문인이었던 寒岡 鄭逑(1543~1620년)에 의해 安東都護府에서 간행된 初刊本の 서문이다.

1) 送：寧邊府本 ‘選’

古鏡01

盤銘

成湯

苟日新，日日新，又日新.

▶ 湯：未詳~B.C.1588년 추정. 본문은 《大學》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02

席四端銘

武王

安樂必敬，無行可悔．一反一側，亦不可不志．殷監¹⁾
不遠，視爾所代．

▶ 武王：未詳~B.C.1043년 추정. 본문은 《大戴禮記》에 실려 있다.

1) 監：寧邊府本·蘆谷本 ‘鑑’

古鏡03

鑑銘

武王

見爾前，慮爾後.

▶ 武王：未詳~B.C.1043년 추정. 본문은 《大戴禮記》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04

鑑銘

武王

與其溺於人也，寧溺於淵。溺於淵猶可游，溺於人不可
掇也。

▶ 武王：未詳~B.C.1043년 추정. 본문은 《大戴禮記》에 실려 있다.

古鏡05

楹銘

武王

母曰‘胡殘’，其禍將然. 母曰‘胡害’，其禍將大. 母曰‘胡傷’，其禍將長.

▶ 武王：未詳~B.C.1043년 추정. 본문은 《大戴禮記》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06

杖銘

武王

於乎！危於忿寔，於乎！失道於嗜欲，於乎！相忘於富貴。

▶ 武王：未詳~B.C 1043년 추정. 본문은 《大戴禮記》에 실려 있다.

古鏡07

金人銘【古之慎言人也.】¹⁾

周廟

戒之哉！無多言，無多事。多言多敗，多事多害。安樂必誠²⁾，無行所悔。勿謂何傷，其禍將長。勿謂何害，其禍將大。勿謂不聞，神將伺人。焰焰弗滅，炎炎若何。涓涓不壅，終爲江河。綿綿不絕，或成網羅。毫末不札，將尋斧柯。誠能慎之，福之根也。口是何傷，禍之門也。強梁者不得其死，好勝者必遇其敵。盜憎主人，民怨其上。君子，知天下之不可上也，故下之；知衆人之不可先也，故後之。江海雖左，長於百川，以其卑也。天道無親，常與善人。戒之哉，戒之哉！

▶ 武王：未詳~B.C 1043년 추정. 본문은 《大戴禮記》에 실려 있다.

1) 古之慎言人也：蘆谷本에는 없다.

2) 誠：寧邊府本·蘆谷本 ‘戒’

古鏡重磨方

古鏡08

座右銘

崔子玉

無道人之短，無說己之長。施人而勿念，受施慎勿忘。
世譽不足慕，惟仁爲紀綱。隱心而後動，謗議庸何傷？
無使名過實，守愚聖所臧。在涅貴不緇，曖曖內含光。
柔弱生之徒，老氏戒剛強。

▶ 崔瑗：78~143. 號는 子玉. 본문은 《藝文類聚》에 실려 있다.

古鏡09

座右銘

魏 卞蘭¹⁾

重階連棟，必濁汝眞，金寶蒙屋，將亂汝神。厚味來殃，
艷色危身，求高反墜，務厚更貧。閑情塞欲，老氏所珍，
周廟之銘，仲尼是遵。審慎汝口，戒無失人，從容順時，
和光同塵。無謂冥漠，人不汝聞，無謂幽冥，處獨若群。
不爲福先，不與禍隣，守玄執素，無亂大倫。常若臨深，
終始惟新。

▶ 卞蘭：生卒年未詳. 본문은 《藝文類聚》에 실려 있다.

1) 卞蘭：기존본인 安東府本 및 寧邊府本·校書館本·蘆谷本에는 ‘下蘭’으로 되어있으나 《藝文類聚》四庫全書本에 의하여 ‘卞’으로 고쳤다.

古鏡重磨方

古鏡10

座右銘

白居易

勿慕富與貴，勿憂賤與貧，自問道何如，貴賤安足云？
聞毀勿戚戚，聞譽勿欣欣，自顧行何如，毀譽安足論？
無以意傲物，以遠辱於人，無以色求事，以自重其身。
遊與邪分歧，居與正爲隣，於中有取舍，此外無疎親。
修外以及內，靜養和與眞，養內不遺外，動率義與仁。
千里始足下，高山起微塵，吾道亦如此，行之貴日新。
不敢規他人，聊自書諸紳，終身且自勉，身歿貽後昆。
後昆苟反是，非我之子孫。

▶ 白居易：772~846. 字는 樂天, 號는 香山. 본문은 《白居易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11

續座右銘

李至

短不可護，護則終短，長不可矜，矜則不長．尤人不如尤己，好圓不如好方．用晦¹⁾則天下莫與汝爭智，撝謙則天下莫與汝爭強．多言者老氏所戒，欲訥者仲尼所臧．妄動有悔，何如靜而不動？大剛則折，何如柔而勿剛？吾見進而不已者敗，未見退而自足者亡．爲善則遊君子之域，爲惡則入小人之鄉．吾將書紳帶以自警，刻盤盂而過防，豈如長存於座右，庶夙夜之不忘？

▶ 李至：947~1001, 字는 言几. 本문은 《全宋文》 등에 실려 있다.

1) 晦：寧邊府本 ‘悔’

古鏡重磨方

古鏡12

陋室銘

劉禹錫

山不在高，有仙則名，水不在深，有龍則靈，斯是陋室，惟吾德馨。苔痕上階綠，草色入簾青，談笑有鴻儒，往來無白丁，可以調素琴閱金經。無絲竹之亂耳，無案牘之勞形，南陽 諸葛廬，西蜀 子雲亭，孔子云：“何陋之有？”

▶ 劉禹錫：772~842. 字는 夢得. 本문은 《全唐文》 등에 실려 있다.

古鏡13

槃水銘

司馬君實

槃水之盈，止之則平，平而後清，清而後明．勿使小欹，
小欹則傾，傾不可收，用毀其成．嗚呼！奉之，可不兢兢？

▶ 司馬光：1019~1086. 字는 君實, 號는 迂夫 또는 迂叟. 본문은 《宋文鑑》 등에 실려 있다.

司馬公布衾銘

范堯夫

藜藿之甘，綈布¹⁾之溫，名教之樂，德義之尊，求之孔易，享之常安。錦繡之奢，膏粱之珍，權寵之盛，利慾之繁，苦難其得，危辱旋臻。舍難取易，去危就安，至愚且知，士寧不然？顏樂簞瓢，萬世師模，紂居瓊臺，死爲獨夫。君子以儉爲德，小人以侈喪軀，然則斯衾之陋，其可忽諸？

▶ 范純仁：1027~1101. 字는 堯夫. 本문은 《文章辨體彙選》 등에 실려 있다.

1) 布：寧邊府本·蘆谷本 ‘袍’

古鏡15

茅齋銘

魏華父

茅之爲物，可植¹⁾可茜，可藉可鼎，可包可束。堅剛潔白，君子之屬，肆古宮室，編茅架木。土²⁾階簡簡，清廟肅肅，侯直分社，農絢乘屋。上下同然，儉而易足，匪惟著儉，抑亦觀德。於〈泰〉象陽，於《詩》比玉，瓦葺之分，〈考工〉所錄。迨其流弊，文題刻桷，去潔尚華，損剛從欲。趙君之居，澗泉之目，章泉之詩，古義是篤。睹名知訓，我銘維服。

▶ 魏了翁：1178~1237. 字는 華父, 號는 鶴山. 본문은 《鶴山集》 등에 실려 있다.

1) 植：安東府本·寧邊府本·校書館本·蘆谷本에는 ‘植’으로 되어있으나, 四庫全書本 《鶴山集》에는 ‘茜’로 되어있다.

2) 土：寧邊府本 ‘土’

座右銘

范益謙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三，不言衆人所作過惡。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又曰：一，與人附書，不可開折沈滯。二，與人並坐，不可窺人私書。三，凡入人家，不可看人文字。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五，凡喫飲食，不可揀擇去取。六，與人同處，不可自擇便利。七，見人富貴，不可歎羨詆毀。凡此數事，有犯之者，足以見用意之不廣。於存心修身，大有所害，因書以自警。¹⁾

▶范冲：1067~1141. 字는 元長. 本문은 《小學》 등에 실려 있다.

1) 因書以自警. : 蘆谷本에는 뒤에 [소주 按, ‘不廣’, 一作‘不肖’.]가 있다.

古鏡17

五箴

韓退之

人患不知其過，既知之不能改，無勇也。余生四十有八年。髮之短者日益白，齒之搖者日益脫，聰明不及於前時，道德日負於初心。其不至於君子而卒爲小人也，昭昭矣！作〈五箴〉以訟其惡云。

(古鏡17-1)

游箴

余少之時，將求多能，早夜以孜孜；余今之時，既飽而嬉，早夜以無爲。嗚呼余乎，其無知乎？君子之棄，而小人之歸乎？

▶韓愈：768~824. 字는 退之. 본문은 《御選唐宋文醇》 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17-2)

言箴

不知言之人，烏可與言？知言之人，默然而其意¹⁾已傳。
幕中之辯，人反以汝爲叛；臺中之評，人反以²⁾爲傾。
汝不懲邪，而呶呶以害其生邪！

(古鏡17-3)

行箴

行與義乖，言與法違，後雖無害，汝可以悔；行也無邪，
言也無頗，死而不死，汝悔而何？宜悔而休，汝惡曷
瘳？宜休而悔，汝善安在？悔不可追，悔不可爲；思而
斯得，汝則弗思。

(古鏡17-4)

好惡箴

1) 意：寧邊府本・蘆谷本‘言’

2) 以：寧邊府本・校書館本・蘆谷本에는 뒤에 ‘汝’가 있다.

無善而好，不觀其道；無悖而惡，不詳其故。前之所好，今見其尤；從也爲比，捨也爲讎。前之所惡，今見其臧；從也爲愧，捨也爲狂。維讎維比，維狂維媿，於身不祥，於德不義。不義不祥，維惡之大，幾如是爲，而不顛沛？齒之尚少，庸有不思，今其老矣，不慎胡爲！

(古鏡17-5)

知名箴

內不足者，急於人知；霈焉有餘，厥聞四馳。今日告汝，知名之法；勿病無聞，病其曄曄。昔者子路，惟恐有聞，赫然千載，德譽愈尊。矜汝文章，負汝言語，乘人不能，撝以自取。汝非其父，汝非其師，不請而教，誰云不欺？欺以賈憎，撝以媒怨，汝曾不寤，以及於難。小人在辱，亦克知悔，及其既寧，終莫能戒。既出汝心，又銘汝前，汝如不顧，禍亦宜然！

楮衾銘【示子志道】

眞西山

楮君之先，滕同厥宗，麻源 湛盧，豈其分封？粵有智者，創之爲紙，傳聖賢心，衣被萬世。巧者述之，製爲斯衾，覆冒生人，厥功亦深。朔風怒號，大雪如席，晝且難勝，況於永夕？豈無織纈，衣以厚繒？擁之高眠，可當嚴凝。井地不行，民俗多窶，終歲之厪，弗給布絮。一衾萬錢，得之曷繇？不有此君，凍者成丘。我嘗評君，蓋具四德，盎兮春溫，皜兮雪白。廉於自鬻，樂於燠貧，誰其似之？君子之仁！我方窮時，惟子與處，豈如弁髦，而忍棄女¹⁾？不歃而²⁾盟，偕之終身，且將傳之，于萬子孫。咨爾小子！惟素可寶，敝縕是慚，豈曰志道？奢不可縱，欲不可窮，去華務實，前哲所同³⁾。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先生眞文忠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女：寧邊府本·蘆谷本 ‘汝’

2) 而：寧邊府本·蘆谷本 ‘血’

以侈致喪，何羨乎季倫之錦障；以德見欽，何陋乎溫公之布衾？怵心一開，其流曷已？虎攫狼吞，寔自茲始。故曰，儉者，廉之本；廉者，行之先。吁嗟！汝曹可不勉旃！

3) 同：寧邊府本·蘆谷本‘得’

古鏡重磨方

古鏡19

四勿箴【并序】

伊川先生

顏淵問‘克己復禮’之目。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四者身之用也，由乎中而應乎外，制於外所以養其中也。顏淵事斯語，所以進於聖人。後之學聖人者，宜服膺而勿失也。因箴以自警。

(古鏡19-1)

視箴

心兮本虛，應物無迹。操之有要，視爲之則。蔽交於前，其中則遷。制之於外，以安其內。克己復禮，久而誠矣。

(古鏡19-2)

▶ 程頤：1033~1107. 字는 正叔, 號는 伊川. 본문은 《河南程氏文集》 등에 실려 있다.

聽箴

人有秉彝，本乎天性。知誘物化，遂亡其正。卓彼先覺，知止有定。閑邪存誠，非禮勿聽。

(古鏡19-3)

言箴

人心之動，因言以宣。發禁躁妄，內斯靜專。矧是樞機，興戎出好。吉凶榮辱，惟其所召。傷易則誕，傷煩則支。已肆物忤，出悖來違。非法不道，欽哉訓辭！

(古鏡19-4)

動箴

哲人知幾，誠之於思。志士勵行，守之於爲。順理則裕，從欲惟危。造次克念，戰兢自持。習與性成，聖賢同歸。

古鏡20

西銘

橫渠先生

乾稱父，坤稱母。予茲藐焉，乃混然中處。故天地之塞，
吾其體；天地之帥，吾其性。民吾同胞，物吾與也。大
君者，吾父母宗子；其大臣，宗子之家相也。尊高年，
所以長其長；慈孤弱，所以幼其¹⁾幼。聖其合德，賢其
秀也。凡天下疲癯·殘疾·惇獨·鰥寡，皆吾兄弟之顛連
而無告者也。于時保之，子之翼也；樂且不憂，純乎孝
者也。違曰悖德，害仁曰賊。濟惡者，不才，其踐形，
惟肖者也。知化則善述其事，窮神則善繼其志。不愧屋
漏爲無忝，存心養性爲匪懈。惡旨酒，崇伯子之顧養；
育英才，穎²⁾封人之錫類。不弛勞而底豫，舜其功也；
無所逃而待烹，申生其恭也。體其受而歸全者，參乎；

▶ 張載：1020~1077. 字는 子厚, 號는 橫渠. 본문은 《張子全書》 등에 실려 있다.

1) 其：寧邊府本·蘆谷本 ‘吾’

2) 穎：蘆谷本 ‘穎’

勇於從而順令者，伯奇也。富貴福澤，將厚吾之生也；
貧賤憂戚，庸玉汝於成也。存吾順事，沒吾寧也。

古鏡重磨方

古鏡21

東銘

橫渠先生

戲言出於思也，戲動作於謀也。發於心，見乎四體，謂非己心，不明也；欲人無己疑，不能也。過言非心也，過動非誠也。失於聲，謬迷其四體，謂己當然，自誣也；欲他人己從，誣人也。或者，謂出於心者，歸咎爲己戲；失於思者，自誣爲己誠。不知戒其出汝者，歸咎其不出汝者。長傲且遂非，不知孰甚焉？

▶ 張載：1020~1077. 字는 子厚, 號는 橫渠. 본문은 《張子全書》 등에 실려 있다.

古鏡22

克己銘

呂與叔

凡厥有生，均氣同體。胡爲不仁？我則有己。物我旣立，私爲町畦，勝心橫生，擾擾不齊。大人存誠，心見帝則，初無吝驕，作我蝨賊。志以爲帥，氣爲卒徒，奉辭于天，孰敢侮予？且戰且徠，勝私窒慾，昔焉寇讐，今則臣僕。方其未克，窘我室廬，婦姑勃礪，安取厥餘？亦旣克之，皇皇四達，洞然八荒，皆在我闡。孰曰天下，不歸吾仁？痒癢疾痛，舉切吾身。一日至之，莫非吾事。顏何人哉？睎之則是。

▶ 呂大臨：1046~1092. 字는 與叔. 本문은 《宋文鑑》 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23

座右銘

張思叔

凡語必忠信，凡行必篤敬。飲食必慎節，字畫必楷正。
容貌必端莊，衣冠必肅整。步履必安詳，居處必正靜。
作事必謀始，出言必顧行。常德必固持，然諾必重應。
見善如己出，見惡如己病。凡此十四者，我皆未深省，
書此當座隅¹⁾，朝夕視爲警。

▶ 張繹：未詳~1108. 字는 思叔. 본문은 《宋名臣言行錄》 등에 실려 있다.

1) 隅：蘆谷本 ‘右’

古鏡24

心箴

范蘭溪

茫茫堪輿，俯仰無垠，人於其間，眇¹⁾然有身。是身之微，太倉稊米，參爲三才，曰惟心爾。徃古來今，孰無此心，心爲形役，乃獸乃禽。惟口耳目，手足動靜，投間抵隙，爲厥心病。一心之微，衆欲攻之，其與存者，嗚呼幾希。君子存誠，克念克敬，天君泰然，百體從令。

▶ 范浚：1102~1151. 字는 茂名. 本문은 《香溪集》 등에 실려 있다.

1) 眇：蘆谷本 ‘渺’

古鏡重磨方

古鏡25

求放心齋銘

晦菴先生

天地變化，其心孔仁，成之在我，則主于身。其主伊何？神明不測，發揮萬變，立此人極。晷刻放之，千里其奔，非誠曷有，非敬曷存？孰放孰求，孰亡孰有？屈伸在臂，反覆惟手。防微謹獨，茲守之常，切問近思，曰惟以相。〔本集，‘相’下‘有’之字，未詳是否。〕¹⁾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本集相下有之字未詳是否：寧邊府本·蘆谷本에는 없다.

古鏡26

尊德性齋銘 〔內弟程允夫以‘道問學’名齋，予謂當以‘尊德性’易之。允夫請銘，因爲作此.〕

晦菴先生

維皇上帝，降此下民。何以予之？曰義與仁。維義與仁，維帝之則。欽斯承斯，猶懼弗¹⁾克。孰昏且狂？苟賤汙卑。淫視傾聽，惰其四肢。褻天之明，慢人之紀。甘此下流，衆惡之委。我其監此，祇栗厥心。有幽其室，有赫其臨。執玉奉盈，須臾顛沛。任重道悠，其敢或怠？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弗：寧邊府本·蘆谷本 ‘不’

古鏡重磨方

古鏡27

志道齋銘 〔四齋銘〕 1)

晦菴先生

曰趨而挹者，孰履而持？曰飢而寒者，孰食而衣？故道也者，不可須臾離。子不志於道，獨罔罔其何之？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四齋銘: 蘆谷本에는 없다.

古鏡28

據德齋銘

晦菴先生

語道術，則無往而不通；談性命，則疑獨而難窮。惟其厚於外而薄於內，故無地以崇之。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29

依仁齋銘

晦菴先生

舉之莫能勝，行之莫能至，雖欲依之，安得而依之？爲
仁由己，而由人乎哉？雖欲違之，安得而違之？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등에 실려 있다.

古鏡30

游藝齋銘

晦菴先生

禮云樂云，御射數書，俯仰自得，心安體舒。是之謂游，
以游以居。嗚呼游乎！非有得於內，孰能如此其從容而
有餘乎？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31

崇德齋銘 [[南劔州 尤溪縣學四齋銘¹⁾]]

晦菴先生

尊我德性，希聖學兮。玩心神明，蛻汙濁兮。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四齋銘은 崇德齋銘(古鏡31)·廣業齋銘(古鏡32)·居仁齋銘(古鏡33)·由義齋銘(古鏡34)이다.

1) 銘：蘆谷本에는 없다.

古鏡32

廣業齋銘

晦菴先生

樂節禮樂，道中庸兮．克勤小物，奏膚公兮．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33

居仁齋銘

晦菴先生

勝己之私，復天理兮。宅此廣居，純不已兮。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34

由義齋銘

晦菴先生

羞惡爾汝，勉擴充兮。遵彼大路，行無窮兮。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35

學古齋銘 〔浦城周侯嗣恭，葺其先大父徽猷公所作學古齋，熹爲題其榜，又推其意，作銘曰。〕

晦菴先生

相古先民，學以爲己。今也不然，爲人而已。爲己之學，先誠其身。君臣之義，父子之仁。聚辨居行，無怠無忽。至足之餘，澤及萬物。爲人之學，燁然春華，誦數是力，纂組是誇。結駟懷金，煌煌煒煒。世俗之榮，君子之鄙。維是二者，其端則微。眇綿不察，胡越其歸。卓哉周侯，克承先志¹⁾！日新此齋，以迪來裔。此齋何有？有圖有書。厥裔伊何？衣冠進趨。夜思晝行，咨詢謀度。絕今不爲，惟古是學。先難後獲，匪亟匪徐。我則銘之，以警厥初。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志：寧邊府本·蘆谷本 ‘旨’

古鏡36

蒙齋銘 〔據《性理大全》以係朱子，今按《眞西山集》有此銘。其序云：“桂陽史君，張侯某，以蒙名齋，西山俊眞某，取果行育德之義爲之銘。然則當改係西山.〕

眞德秀

物盈兩間，有萬其數，天理流行，無處不具。維象之顯，理寓于中，反而求之，皆切吾躬。觀天之行，其敢遑息？察地之勢，亦厚于德。天人一體，物我一源，驗之《義經》，厥旨昭然。卦之有〈蒙〉，內險外止。止莫如山，險莫如水。曷不曰水，而謂之泉？濫觴之初，厥流涓涓。其生之微，若未易達，其行之果，則不可遏。有崇茲山，潤澤所鍾，維靜而正，出乃不窮。始焉一勺，終則萬里。問奚以然？有本如是。是以君子，法取於斯，維義所在，必勇于爲。維行有本，繫德焉出，是滋是培，其體乃立。靜而養源，澄然一心¹⁾，動而敏行，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澄然一心：寧邊府本·蘆谷本 ‘一心澄然’

古鏡重磨方

萬善畢陳，厚化川流，初豈二致，溥博淵泉，其用弗匱。
於惟簡肅，宜有此孫，揭名齋扉，目擊道存。養正於蒙，
奚必童穉，終身由之，作聖之地。

古鏡37

敬義齋銘 〔同上〕

眞德秀

惟〈坤〉六二，其德直方，君子體之，爲道有常．內而立心，曰直是貴，維敬則直，不偏以陂．外而制事，曰方是宜，惟義則方，各當其施．曰敬伊何？惟主乎¹⁾一，凜然自持，神明在側．曰義伊何？惟理是循，利害之私，罔汨其眞．靜而存養，中則有主，動而酬酢，莫不中矩．大哉敬乎！一心之方．至哉義乎！萬事之綱．敬義夾持，不二不忒，表裏洞然，上達天德．昔有哲王，師保是詢，《丹書》有訓，西面以陳．敬與怠分，義與欲對，一長一消，禍福斯在．怠心之萌，闔焉沈昏；欲心之熾，蕩乎狂奔．惟此二端，敗德之賊，必壯乃猷，如敵斯克．怠欲旣泯，敬義斯存，直方以大，協德于坤．一念小差，眊此齋扁，嚴師在前，永詔無倦．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 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乎：寧邊府本·蘆谷本 ‘于’

敬齋銘

南軒先生

天生斯人，良心卽存。聖愚曷異，敬肆是分。事有萬變，統乎心君。一顏其綱，泯焉絲棼。自昔先民，修己以敬。克持其身，順保常性。敬匪有加，惟主乎是。履薄臨深，不昧厥理。事至理形，其應若響。而實卓然，不與俱往。動靜不違，體用無忒。惟敬之功，協于天德。嗟爾君子，敬之敬之。用力之久，其惟自知。勿憚其艱，而或怠遑。亦勿迫切，而以不常。毋忽事物，必精吾思。察其所發，以會于微。忿慾之萌，則杜其源。有過斯改，見善則遷。是則天命，不遏于躬。魚躍鳶飛，仁在其中。於焉有得，學則不窮。知至而至，知終而終。嗟爾君子，勉哉敬止！成己成物，匪曰二致。任重道遠，其端伊邇。毫釐有差，繆則千里。惟建安公，自力古義。我作銘詩，以諗同志。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39

主一齋銘

南軒先生

人之心，一何危？紛百慮，走千岐。惟君子，克自持。
正衣冠，攝威儀。澹以整，儼若思。主于一，復何之？
事物來，審其幾。應以專，匪可移。理在我，寧彼隨？
積之久¹⁾，昭厥微。靜不偏，動靡違。嗟勉哉，自邇卑。
惟勿替，日在茲。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1) 久：기준본인 安東府本에는 ‘人’으로 되어있으나 寧邊府本·校書館本·蘆谷本에 의해 ‘久’로 수정하였다.

古鏡重磨方

古鏡40

書字銘

晦庵先生

握管濡毫，伸紙行墨，一在其中，點點畫畫。放意則荒，
取妍則惑，必有事焉，神明厥德。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41

紫陽琴銘

晦庵先生

養君中和之正性， 禁爾忿慾之邪心。 乾坤無言物有則，
我欲與子鉤其深。¹⁾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深：寧邊府本 ‘心’

古鏡重磨方

古鏡42

窓銘

晦庵先生

言思愍，動思蹟，過思棄．端爾躬，正爾容，一爾衷．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43

寫照銘 〔乾道九年，歲在癸巳，予年四十有四，而容髮凋悴遽已如此。然亦將修身以畢此生而已，無他念也。福唐元爲予寫照，因銘自戒。〕

晦庵先生

端爾躬，肅爾容，檢於外，一其中。力於始，遂其終，操有要，保無窮。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44

敬齋箴 〔讀張敬夫〈主一箴〉，掇其遺，作〈敬齋箴〉，書齋壁以自警云.〕

晦庵先生

正其衣冠，尊其瞻視，潛心以居，對越上帝。足容必重，手容必恭，擇地而蹈，折旋蟻封。出門如賓，承事如祭，戰戰兢兢，罔敢或易。守口如瓶，防意如城，洞洞屬屬，毋¹⁾敢或輕。不東以西，不南以北，當事而存，靡他其適。勿²⁾貳以二，勿³⁾參以三，惟心惟一，萬變是監。從事於斯，是曰持敬，動靜弗違，表裏交正。須臾有間，私欲萬端，不火而熱，不冰而寒。毫釐有差，天壤易處，三綱既淪，九法亦斲。嗚呼小子，念哉敬哉，墨卿司戒，敢告靈臺。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毋：蘆谷本 ‘罔’

2) 勿：蘆谷本 ‘弗’

3) 勿：蘆谷本 ‘弗’

古鏡45

調息箴

晦庵先生

鼻端有白，我其觀之，隨時隨處，容與猗移。靜極而
噓¹⁾，如春沼魚，動極而噏，如百蟲²⁾蟄。氤氲開闔，其
妙無窮，孰其尸之？不宰之功。雲臥天行，非予敢議，
守一處和，千二百歲。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噓：蘆谷本 ‘噓’

2) 蟲：寧邊府本·蘆谷本 ‘虫’

警學贊

晦庵先生

讀《易》之法，先正其心，肅容端席，有翼其臨。于卦于爻，如筮斯得，假彼象辭，爲我儀則。字從其訓，句逆其情。事因其理，意適其平。曰否曰臧，如目斯見；曰止曰行，如足斯踐。毋寬以略，毋密以窮，毋固而可，毋必而通。平易從容，自表而裏，及其貫之，萬事一理。理定既實，事來尙虛，用應始有，體該本無。稽實待虛，存體應用。執古御今，由靜制動。潔靜精微，是之謂易，體之在我，動有常吉。在昔程氏，繼周紹孔，奧旨宏綱，星陳極拱。惟斯未啓，以俟後人，小子狂簡，敢述而申。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周易傳義大全》등에 실려 있다.

古鏡47

復卦贊

晦庵先生

萬物職職，其生不窮。孰其尸之？造化爲功。陰闔陽開，一靜一動。於穆無彊，全體妙用！奚獨於斯，潛陽壯陰？而曰昭哉，此天地心。蓋翕無餘，斯闢之始，生意闐然，具此全美。其在于人，曰性之仁，斂藏方寸，包括無垠。有茁其萌，有惻其隱，于以充之，四海其準。曰惟茲今，眇綿之間，是用齋戒，掩身閉關。仰止羲圖，稽經協傳，敢贊一辭，以詔無倦。

▶ 朱熹：1130~1200.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逖翁. 본문은 《晦庵先生朱文公文集》등에 실려 있다.

復卦義贊

南軒

天地之心，其體則微，于動之端，斯以見之。其端伊何？維以生生，群物是資，而以日亨。其在於人，純是惻隱，動匪以斯，則非天命。曰義·禮·智，位雖不同，揆厥所基，脉絡該通。曷其保之？日乾夕惕，斯須不存，生道或息。養而無害，敬立義集，是爲“復亨，出入無疾”。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49

主一箴

南軒

人稟天性，其生也直，克愼厥彝，則靡有忒。事物之感，紛綸朝夕，動而無節，生道或息。惟學有要，持敬勿失，驗厥操舍，乃知出入。曷爲其敬？妙在主一。曷爲其一？惟以無適。居無越思，事靡他及，涵泳于中，匪忘匪亟。斯須造次，是保是積。既久而精，乃會于極。勉哉勿倦，聖賢可則。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心經贊

眞西山

舜·禹授受，十有六言，萬世心學，此其淵源。人心伊何？生於形氣，有好有樂，有忿有懷。惟欲易流，是之謂危，須臾或放，衆慝從之。道心伊何？根於性命，曰義曰仁，曰中曰正。惟理無形，是之謂微，毫芒或失，其存幾希。二者之間，曾弗容隙，察之必精，如辨白黑。知及仁守，相爲始終。惟精故一，惟一故中。聖賢迭興，體姚法，持綱挈維，昭示來世。戒懼謹獨，閑邪存誠，曰忿曰慾，必窒必懲。上帝寔臨，其敢或貳？屋漏雖隱，寧使有愧？四非當克，如敵斯攻；四端既發，皆廣¹⁾而充。意必之萌，雲捲²⁾席撤；子諒之生，春噓物茁。雞犬之放，欲其知求；牛羊之牧，濯濯是憂。一指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 號는 西山. 본문은 《心經》 등에 실려 있다.

1) 廣：寧邊府本·蘆谷本 ‘擴’

2) 捲：寧邊府本 ‘卷’

肩背，孰貴孰賤？簞食萬鍾，辭受必辨。克治存養，交致其功。‘舜何人哉？’期與之同。維此道心，萬善之主，天之與我，此其大者。斂之方寸，太極在躬；散之萬事，其用弗窮。若寶靈龜，若奉拱璧。念茲在茲，其可弗力？相古先民，以敬相傳。操約施博，孰此爲先？我來作州，茅塞是懼，爰輯格言，以滌肺腑。明窓³⁾棐几，清晝爐薰，開卷肅然，事我天君。

3) 窓：寧邊府本·校書館本‘窓’，蘆谷本‘牕’

古鏡重磨方

古鏡51

勿齋箴 〔爲陳無競作.〕

眞西山

天命之性，得之者人，人之有心，其孰不仁！人而不仁，曰爲物役，耳蕩於聲，目眩於色。以言則肆，以動則輕，人欲放紛，天理晦冥。於焉有道，禮以爲準，惟禮是由，非禮勿徇¹⁾。曰禮伊何？理之當然，不雜以人，一循²⁾乎天。勿之爲言，如防止水，孰其尸之？曰心而已。聖言十六，一字其機，機牙既幹，鈞石必隨。我乘我車，駟馬交驟，孰範其驅？維轡在手。是以君子，必正其心，翼翼兢兢，不顯亦臨。萬夫之屯，一將之令，霆鉤颺馳，孰敢干命？衆形役之，統於心官，外止弗³⁾流，內守愈安。其道伊何？所主者敬，表裏相維，動靜俱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 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徇：寧邊府本·蘆谷本 ‘循’

2) 循：寧邊府本 ‘徇’

3) 弗：寧邊府本·蘆谷本 ‘不’

正．莠盡苗長，醅化醴醇，方寸盎然，無物不春．惟‘勿’一言，萬善自出，念茲在茲，其永無斁．

思誠齋箴 〔爲陳若虛作.〕

眞西山

誠者天道，本乎自然，誠之者人，以人合天。曰天與人，其本則一，云胡差殊？蓋累於物，心爲物誘，性逐情移，天理之眞，其存幾希？豈惟與天，邈不相似？形雖人斯，實則物只。皇皇上帝，命我以人，我顧物之，抑何弗仁？維子思子，深憫斯世，指其本源，祛俗之蔽。學問辨行，統之以思，擇善固執，惟日孜孜。狂聖本同，其忍自棄？人十己千，弗止弗已。雲披霧卷，太虛湛然；塵掃鏡空，清光自全。曰人與天，旣判復合，渾然一眞，諸妄不作。孟氏繼之，命曰：“思誠”，更兩鉅賢，其指益明。大哉思乎！作聖之本。歸而求之，實近非遠。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 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文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53

夜氣箴

眞西山

子盍觀夫冬之爲氣乎？木歸其根，蟄坏其封，凝然寂然，不見兆朕，而造化發育之具，實胚胎乎其中。蓋闔者闢之基，貞者元之本，而艮所以爲物之始終。夫一晝¹⁾一夜者，三百六旬之積，故冬爲四時之夜，而夜乃一²⁾日之冬。天壤之間，群動俱聞，窈乎如未判之鴻濛³⁾。維人之身，嚮晦宴息，亦當以造物而爲宗。必齋其心，必肅其躬，不敢弛然自放於牀第之上，使慢易非僻得以賊吾之衷。雖終日乾乾，靡容一息之間斷，而昏冥易忽之際，尤當致戒謹之功。蓋安其身，所以爲朝聽晝訪之地，而夜氣深厚，則仁義之心亦浩乎⁴⁾其不窮。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 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晝：校書館本 ‘畫’

2) 一：校書館本 ‘二’

3) 鴻濛：蘆谷本 ‘初而’

4) 乎：寧邊府本·蘆谷本 ‘浩’

古鏡重磨方

本既立矣，而又致察於事物周旋之頃，敬義夾持，動靜交養，則人欲無隙之可入，天理皦乎其昭融。然知及之而仁不能守之，亦空言其奚庸？爰作箴以自砭，常懍懍乎癡惘。

古鏡54

敬銘

吳草廬

維人之心，易於放逸，操存舍亡，或入或出。‘敬’之一字，其義精密，學者所當，服膺弗¹⁾失。收斂方寸，不容一物，如入靈祠，如奉軍律。整齊嚴肅，端莊靜一，戒愼恐懼，兢業戰栗。如見大賓，罔敢輕率，如承大祭，罔敢慢忽。視聽言動，非禮則勿，忠信傳習，省身者悉。把捉於中，精神心術；檢束於外，形骸肌骨。常令惺惺，又新日日。敢以此語，鏤于虛室。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諡號는 文正. 본문은 《吳文正集》 등에 실려 있다.

1) 弗：寧邊府本·蘆谷本 ‘勿’

古鏡重磨方

古鏡55

和銘

吳草廬

‘和而不流’，訓在《中庸》，顏之愷悌，孔之溫恭。孔·顏往矣，孰繼遐蹤？卓彼先覺，元公·淳公。元氣之會，淳德之鐘，瑞日祥雲，霽月光風。庭草不除，意思冲冲，天地生物，氣象¹⁾融融！萬物靜觀，境與天通，四時佳興，樂與人同。泯若圭角，春然心胸，如玉之潤，如酒之醲。睟面盎背，辭色雍容，待人接物，德量含洪。和粹之氣，涵養之功，敢以此語，佩于厥躬。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諡號는 文正. 본문은 《吳文正集》 등에 실려 있다.

1) 象：蘆谷本 ‘像’

古鏡56

自新銘

吳草廬

齒本白，一朝不漱，其污已積。面本白，一旦不頰，其垢已黑。體本白，一日不浴，其形已墨。齒雖污，漱之則卽無。面雖垢，頰之則卽不。體雖墨其形，浴之則瑩然如玉潔且清。是知，齒本無污，其污也實自吾；面本無垢，其垢也實自取；體本潔且清，其形之墨也實自成。齒本白，而我自污，誰之辜？面本白，而我自垢，誰之咎？體本白，而我自墨，誰之慝？幸而一朝漱其齒，白者復爾。一朝頰其面，白者復見。一日潔其體，而白者復如玉。盍曰向也吾身，白者已塵，今焉澡雪，舊染維新，而今而後，殆不可復。士子守己，當如女子；文人治身，當如武人。女子居室，必無一毫點污。介然自守如此，是謂守己如女。武人殺敵，必須直前不顧。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 諡號는 文正. 본문은 《性理大全》 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勇於自治如此，是謂治身如武。女不女，《易》所謂‘不有躬’也。武不武，《傳》所謂‘我非夫’者。身之白者，渾全而未壞，貴常以不女之女爲戒；身之白者，既壞而求全，謹無若不武之武人然。

古鏡57

自修銘

吳草廬

養天性，治天情，正天官，盡天倫。奚而養，奚而治，奚而正，奚而盡？未知之，則究之；既知之，則踐之。究者何？窮其理。踐者何？履其事。若何而爲仁義禮智之道，若何而爲喜怒哀懼愛惡之節，若何而爲耳目鼻口手足¹⁾四支²⁾之則，若何而爲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之常？探其所以然，求其所當然，是之謂窮其理。存之於心則如此，見之於事則如此，行之於身則又如此，內而施之於家則如此，外而推之於人則如此，大而措之於天下則又如此。躬行之焉，力踐之焉，是之謂履其事。然則其先如之何？曰立誠而居敬。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 諡號는 文正. 본문은 《性理大全》 등에 실려 있다.

1) 手足：寧邊府本·蘆谷本에는 없다.

2) 支：蘆谷本 ‘肢’

消人欲銘

吳草廬

人欲之極，惟色與食，食能殞軀，色能傾國。紵兄摟子，食色乃得，將紵將摟，不亦大惑？必也謀道，必也好德，而勿謀食，而勿好色。飲食男女，大欲存焉，不爲欲流，乃可聖賢。我思古人，以理制欲，常戒以懼，惟慎其獨。賢賢易色，好善不足，何暇色耽，恣情悅目？食無求飽，志學惟篤，何暇食求，以極其腹？如或不然，是人其天，貪淫蠱惑，有愧格言。好色是欲，德未見好，惡食是恥，未足議道。嗚呼食色！今其戒茲，戒之如何？剛以治之。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 諡號는 文正. 본문은 《性理大全》 등에 실려 있다.

古鏡59

長天理銘

吳草廬

天理之至，惟仁與義。仁只在孝，義只在弟。苟孝於親，是能爲子。苟弟於兄，是能爲弟。能爲子弟，他不外是。此之不能，何況他事？盡乎人倫，堯·舜爲至，然其爲道，孝弟而已。知斯二者，卽所謂智。節斯二者，卽所謂禮。實有二者，卽信之謂。安行二者，樂則生矣。五常百行，不離斯二。窮神知化，亦由此始。如或不然，流入佛氏。名爲周徧，實外倫理。事親從兄，豈不甚易？人非不能，特不爲耳。嗚呼仁義！爲之由己。尙勉之哉！毋自暴棄。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諡號는 文正. 본문은 《性理大全》 등에 실려 있다.

克己銘

吳草廬

去病非難，當拔其根，己私既克，天理復還。克他未得，但加裁抑，固不猖獗，終尙潛匿。克者伊何？譬如破敵，戰而勝之，是之謂克。二者異情，學者當明，人欲如敵，入據吾城。被吾戰勝，遠屏退聽，不敢復來，攻城犯命。或敵在內，驅之城外，閉門固拒，控守要害。雖不得入，禍胎猶在，守備一疎，又被攻壞。一戰有功，敵自服從，區區固守，敵敢力鬪？一日克己，隨即復禮，天下歸仁，其效如此。克伐怨欲，苟徒力制，而使不行，仁則猶未。去惡之道，如農去草，既已芟夷，復蘊崇之。絕其本根，勿使能殖，則善者信，無復蠹賊。不能勝敵，其何能國？爲學亦然，其可不力？以士希賢，顏眞準的，力到功深，優入聖域。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諡號는 文正. 본문은 《性理大全》 등에 실려 있다.

古鏡61

理一箴

吳草廬

或問予天，予對曰‘理’。陰陽五行，化生萬類。其用至神，然特氣爾。必先有理，而後有氣。蒼蒼蓋高，包含無際！其體至大，然特形只。形氣之凝，理實主是。無聲無臭，於穆不已！天之爲天，斯其爲至。分而言之，名則有異。乾其性情，天其形體。妙用曰神，主宰曰帝。以其功用，曰神曰鬼。專而言之，曰理而已。大哉至哉，理之一言！天以此理，位上爲天。物資以始，是謂乾元。地以此理，而位下焉。物資以生，實承乎乾。人生其間，眇然有已。乃位乎中，而參天地。惟其理一，所以如此。天地與人，理固一矣。人之與物，抑又豈二？天地人物，萬殊一實。其分雖殊，其理則一。天地無情，純乎一眞。至誠不息，終古常新。曰天地人，理則惟鈞。或

▶ 吳澄：1249~1333. 字는 幼清·伯清, 諡號는 文正. 본문은 《性理大全》 등에 실려 있다.

不相似，以人有身。氣質不齊，私欲相因。惟聖無欲，與天地參。理渾然一，形肖而三。下聖一等，于時保之。未能樂天，畏天之威。畏天伊何？無終日違。及其至也，與聖同歸。一者謂誠，惟天惟聖。希聖之賢，主一持敬。敬而戒懼，弗聞弗見；敬而謹獨，莫見莫顯；敬而窮理，則明乎善。如臨如履，心常戰戰。一而無適，有失者鮮。如或不爾，禽獸不遠。人物之初，理同一原。人靈於物，曷爲其然？形氣之稟，物得其偏，是以於理，不通其全。人得其正，固非物比。全體通貫，性爲最貴。最貴之中，又有不同。氣有清濁，質有美惡。曰聖賢愚，其品殊途。濁者惡者，愚不肖也；其清其美，則爲賢知。得美之美，得清之清，無過不及，純粹靈明。天理渾然，無所虧喪，斯爲聖人，至誠無妄。聖性而安，賢學而行，愚而能學，雖愚必明。愚而不學，是自暴棄。“下愚不移”，正此之謂。乾父坤母，民胞物與。四而實一，窮亘今古。四者之內，物爲最賤。天地與人，則無少間。胡世之人，多間以私。上不化贊，下甘物爲？上智·下愚，學知·困知，就人而論，亦分四歧。理焉本一，人自爲四。下愚之人，蓋不足齒。困知可賢，聖可學能。奈何爲人，不求踐形？理在兩間，一本殊分。散爲百

行，別爲四端。或謂之道，或謂之誠。千言萬語，一之異名。萬事萬物，胥此焉出。理一之義，周遍詳密。理萬而一，心爲主宰。心一而萬，理之宗會。在天曰理，在人曰心。理一曰實，心一曰欽。

夙興夜寐箴

陳茂卿

鷄鳴而寤，思慮漸馳，盍於其間，澹以整之？或省舊愆，或紬新得，次第條理，瞭然默識。本既立矣，昧爽乃興，盥櫛衣冠，端坐斂形。提掇此心，噉如出日，嚴肅整齊，虛明靜一。乃啓方冊，對越聖賢，夫子在坐，顏·曾後先。聖師所言，親切敬聽，弟子問辨，反覆參訂。事至斯應，則驗於爲，明命赫然，常目在之。事應既已，我則如故，方寸澹然，凝神息慮。動靜循環，惟心是監，靜存動察，勿貳勿參。讀書之暇，間以遊泳，發舒精神，休養情性。日暮人倦，昏氣易乘，齋莊正齊，振拔精明。夜久斯寢，齊手斂足，不作思惟，心神歸宿。養以夜氣，貞則復元，念茲在茲，日夕乾乾。

▶ 陳柏：未詳. 본문은 《程氏家塾讀書分年日程》 등에 실려 있다.

古鏡63

綱齋銘 〔爲東巖 王次點作.〕

眞西山

衣錦綱衣，裳錦綱裳，有美于中，而弗自章。云胡昔人，若是其晦，爲己之功，無與乎外。懷焉戒惕，于隱于微，我欲亡愧，匪蘄人知。充實光輝，其積莫揜，而我之心，惟一韜斂。細人有善，汲汲暴揚，敝縕中閤，文錦外張。孰知聖門，回愚參魯？樸兮若無，至美森具。《中庸》之末，凡八引《詩》，聲臭泯然，繇此其基。淵乎至哉，聖學之妙！入德之門，曰惟至要。猗歟王子！日處此齋，益深益微，古人與偕。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 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文集》 등에 실려 있다.

讀書樓銘

張南軒

洪惟元聖！研幾極深，出言爲《經》，以達天心。天心煌煌，聖謨洋洋，有赫其傳，惠我無疆。嗟哉學子！生乎千載，孰謂聖遠？遺經猶在。孰不讀書，而昧厥旨。章句是鑿，文采是事？矧其所懷，惟以祿利，茫乎四馳，其曷予暨？嗟哉學子！當知讀書，匪有所爲，惟求厥初。厥初維何？爾所固然，因書而發，爾知則全。維誦維歌，維究維復，維以泳游，勿肆勿枯。維平乃心，以會其理，切于乃躬，以察以體。積功既深，有燁其明，迥然意表，大體斯呈。聖豈予欺？實發予機，俾予自知，以永于爲。若火始燃，若泉始達，推之自茲，進孰予遏？若登泰山，益高益崇，維理無形，維經無窮。嗟哉學子！益敬念茲，以是讀書，則或庶幾。『王文憲曰：“此篇俊健通達，足以起千古之沈痼。”○而‘味闕旨’之‘味’，疑作‘昧’。』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65

葵軒石銘

張南軒

正爾衣冠，無惰爾容，謹爾視聽，無越爾躬。爾之話言，式循爾衷，爾之起居，式蹈爾庸。敬爾所動，毋窒其通，貞爾所存，無失其宗。外之云肅，攸保于中，中之克固，外斯牽從。天命可畏，戒懼難終，勒銘于石，用儆爾慵。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南劍州尤溪縣傳心閣銘 〔爲石子重作〕

張南軒

惟民之生，厥有彝性，情動物遷，以隳厥命。惟聖有作，純乎天心，修道立教，以覺來今。孰謂道遠？始卒具陳，俾爾由學，而聖可成。鄒·魯云邈，異端日滋，白首章句，佞佞何之？惟子周子，崛起千載，獨探其源，以識其大。立象盡意，闡幽明微，聖學有傳，不曰在茲？惟一¹⁾程子，實嗣其徽，既自得之，又光大之。有渾其全，則無不總，有析其精，則無不中。曰體曰用，著察不遺，曰隱曰顯，莫間其幾。於皇聖心，如日有融！於赫心傳，來者所宗。有屹斯閣，尤溪之濱，翼翼三子，繪事孔明。儼然其秋，溫然其春，揭名‘傳心’，詔爾後人。咨爾後人！來拜于前，起敬起慕，永思其傳。于味其言，于考其爲，體于爾躬，以會其歸。爾之體矣，循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1) 一：校書館本·蘆谷本 ‘二’，今按: ‘二’가 옳은 듯하다.

其至而，爾之至矣，道豈異而？‘傳心’之名，千古不渝，
咨爾後人！無替厥初。

古鏡重磨方

古鏡67

顧齋銘 〔爲宇文紹節作.〕

張南軒

人之立身，言行爲大，惟言易出，惟行易怠。伊昔君子，聿思其艱，嚴其樞機，立是防閑。於其有言，則顧厥爲，豪釐之浮，則爲自欺。克謹于出，內而不外，確乎其言，惟實是對。於其操行，則顧厥言，須臾弗踐，則爲已愆。履薄臨深，戰兢自持，確乎其行，惟實是依。表裏交正，動靜是資¹⁾，若唱而和，若影而隨。伊昔君子，胡不慥慥？勉哉勿渝，是敬是保。

▶ 張栻：1133~1180. 字는 敬夫, 號는 南軒. 본문은 《南軒集》 등에 실려 있다.

1) 資：寧邊府本 ‘咨’

古鏡68

魯齋箴

北山 何文定公

王子會之，名其齋曰‘魯’，既爲記以自警。後俾其友人何基 仲恭父，作箴揭之。基謂“王子非魯者而自以爲魯，豈不以昔者曾子之在聖門，見謂爲魯，而一貫之妙獨參得之？”蓋將從事於篤實堅苦之學，以收曾氏之效也與，其志可謂遠矣。乃爲之箴曰。

維人之生，均稟太極，萬理森然，咸具物則。知覺虛靈，是謂明德，或蔽而昏，則由氣質。曷開其明，曷去其塞？復其本然，惟學之力。昔者子輿，萬世標的，始病於魯，竟以魯得。匪得于魯，而得于實，確固深純，精粹嚴密。稽其用功，有始有卒，履薄臨深，是警是飭。日省者三，猶懼或失，講辨聖門，是纖是悉。聞禮聞孝，

▶ 何基：1188~1269. 字는 子恭, 號는 北山. 본문은 《何北山先生遺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寸累銖積，誠明兩進，敬義偕立。一唯領會，萬理融液，彼達如賜，乃弗能及。孰謂參魯？收功反亟，卓哉！王子，追蹤在昔。有扁斯名，朝警夕惕，勿病於魯，謂質難易。勿安於魯，謂學無益，由魯入道，有魯可式。氣稟之偏，則懲則克，義理之微，則辯則析。知行兼盡，內外交迪，確乎其志，前哲是述。人百己千，明乃可必，從而上達，則在不息。滅裂鹵莽，乃吾自賊，歸咎于魯，豈不大惑？我作斯箴，侑坐是勒，勿貳爾心，服膺無斁。

古鏡69

愛日箴 〔爲族孫璞作.〕

王魯齋文憲公

天地之化，一日不停，歲不我與，日月駿奔。是以君子，
自強不息，審己乾乾，夕焉斯惕。禹惜寸陰，周公待旦，
矧是聖人，罔敢或倦。出作入息，衆人蚩蚩，自暴自棄，
老大傷悲。我年嘗少，我學不力，明德昧昧，噬臍無及。
嗟爾小子，母曰妙齡，髫髻幾何，頽頽而由。爾寒襲裘，
爾飢重味，師友琢磨，家庭訓誨。窓牖明潔，硯席靖夷，
於焉不學，烏獸須眉。相期爾深，爾勵爾勉，母視他人，
我監不遠。一善一惡，夢覺之間，一喜一懼，父母之年。
於斯二者，兢兢業業，母怠而忘，母作而輟。東方明矣，
圖書滿前，視此名扁，千程一鞭。日云暮矣，默計爾程，
歌此銘詩，冰炭爾衷。

▶ 王柏：1197~1274. 字는 會之·伯會，號는 魯齋·長嘯. 본문은 《魯齋集》 등에 실려 있다.

古鏡重磨方

古鏡70

虛舟銘

眞西山

余嘗喜誦《莊子》虛舟語。長沙郡齋有小室，名方舟，欲易之未暇也。雙井黃子，迺以爲名，余忻然爲作四言。

萬斛之舟，不楫不維，潏潏長川，縱其所之。云誰有船，適與之觸，舟本何¹⁾心，奚怨奚讟。德人天遊，其中休休，我無愛憎，物自春秋。雨露零零，孰知其德，雪霜凝凝，豈曰予刻。伯氏無尤，季平見思，懷哉兩賢，心事可師。紛紛小夫，欲蔽私室，森然戈矛，動與物敵。涪翁有言：“吾誰疎親”，子今自名，豈其後人。世塗漫漫，濤激浪洶，往安子行，萬變勿動。

▶ 眞德秀：1178~1235. 字는 景元·希元·景希, 號는 西山. 본문은 《西山文集》 등에 실려 있다.

1) 何：寧邊府本·蘆谷本 ‘無’

古鏡一跋

古鏡久埋沒，重磨未易光。
本明尚不昧，往哲有遺方。
人生無老少，此事貴自強。
衛公九十五，懿戒存圭璋。

右李先生手題箴銘之後，以寓用古方磨古鏡之義，意固深矣。古人之老而不已者，豈唯武公哉？大禹受精一之訓年七十三歲矣。武王受敬義之書年八十七歲矣。今人少而自棄者固不足云，老而不力者亦已矣，夫寧不哀哉？先生之詩實亦磨鏡之至方也哉！述敬識。